

Coach -Leader

KCDC 원장 박정근교수 정년퇴직기념



1. 박정근 교수의 리더십 인터뷰

Contents

- 박정근 교수의 리더십 인터뷰
- KCDC의 22년 역사
 - 12가지 주제별 프로젝트
 - ISG와 공동 프로젝트
- 박정근 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 박정근 교수의 언론기사
- KCDC소식 및 회원동정

Coach-Leader 인터뷰 KCDC 원장 박정근



대학교수
KCDC 원장
ISG 대표
연천미라클 구단주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기획단장
: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운 그의 인생스토리

"박정근 교수의 코칭리더십 이론과 인생 경험을 통한 리더십 향상 전략"

박정근 교수가 그동안 강의한 코칭리더십(심리학+리더십+코칭 포함) 이론과 살면서 터득한 인생 경험을 통합해서 얻은 리더십 향상 전략을 이야기(인터뷰)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즉, 리더십 전략은 아래 문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우연한 일들이 큰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Q. 제목을 보면 교수님의 코칭리더십 이론(모델)과 인생 경험이 다른 분들의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코칭리더십 이론은 무엇이며, 교수님의 어떤 경험이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요?

A. 먼저 박정근 코칭리더십 모델(우수코치들의 리더십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01년 제12권 제1호 참조)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데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특성들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국내 우수지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크게 8가지 리더십 특성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즉,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1. 성실한 태도와 좋은 철학을 지녀야 하고 2.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끊임 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고, 3.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 4. 탁월한 지도 방법, 5. 선수 관리, 6. 심리적 전략, 7. 경험, 8. 승부사적 기질이나 위기 관리 능력과 같은 특성들을 지녀야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스포츠 분야에서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일반 현장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 특성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는 특성들이지만 이러한 특성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경륜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연대기식으로 나열해서 우연한 일들이 큰일로 이어지는 경우를 중간중간에 예시를 들며 설명하겠습니다. 1. 목표 없이 보냈던 시절 2. 명확한 목표를 가졌던 유학준비 및 유학 시절 3. 결혼과 전쟁과 같았던 박사과정 유학 시절 4. 벼랑 끝에 서 있는 시간강사 시절 5. 대학교수 시절 6. 정년 퇴직 후의 삶

1. 출생-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군입대

A.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둔 다복한 집안에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내 인생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로 학업보다는 놀기 좋아했던 시기였습니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 노력, 끈기가 없고 그냥 어영부영 지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후회하는 것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중학교 때는 학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진학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은 쳤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치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체육교육과 선택도 우연한 기회에 체육선생님께서 저보고 ‘정근이 너는 체육 좋아하니 대학을 체육학과로 한 번 가보는 건 어때?’ 하는 그냥 장난스럽게 던진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실제로 체육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입시 준비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체육 입시생들보다 짧았고 실력이 부족했음에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덕분에 체육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도 좋았구요. 대학진학 후 1.2학년 때 역시 학업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았던 시기였으며, 2학년 마치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제대 후 복학-석사과정 미국 유학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유학 준비와 유학하던 시기)

A. 76.2.10-78.7.9 29개월 군 복무 하였습니다. 전반기 때는 최전방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했고, 제대 후 바로 복학하지 않고 한 학기는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복학 준비를 했습니다. 복학 이후의 내 삶이 **내가 처음으로 삶에 대한 내적동기화가 작동해서 내가 주도해서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한 시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학 후 '영문학과 학사 편입이나, 미국 유학이나' 고심하다 바로 미국 유학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오로지 미국 유학이었습니다. **목표가 명확하니 행동(선택, 노력, 지속성)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 변화는 유학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유학은 요즘처럼 일반화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학업에는 별로 뜻이 없다가 갑자기 복학해서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명확하니 나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유학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학 관련 프로그램(새벽반 영어학원, 점심 식사 후 랩실에서 1시간 동안 Listening 공부, 타임반 수강 등)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행동 변화는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학교 도서관에 새벽 항상 1등, 제일 늦게 집에 돌아갈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시간도 아까워서 자리에 앉으면 2시간 동안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금요일 밤만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의 변화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겁니다. 1, 2학년때 영어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토플 점수가 낮게 나오든, 영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아도 묵묵히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설정이 복학 후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유학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유학은 가기도 어렵고 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미국 유학을 가려면 먼저 국가유학시험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국사, 국민윤리, 영어 3과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성적이 3.0 이상인 자는 국가유학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1, 2학년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평점 3.0 이상을 유지하려면 3.4학년 복학 성적이 거의 A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4학년 2학기 20학점 수강 후 최종성적을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2.9999 어떨 때는 3.0001. 몇 번에 걸쳐서 계산해본 결과 다행히 3.0 이상이라 미국유학시험을 면제 받았습니다. 3과목 준비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텐데, 하여튼 제 인생은 매사가 이렇게 아슬아슬했습니다.

처음에 간 학교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던 펜실베이니아의 조그마한 대학으로 갔습니다. 한국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고 외롭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멀리 미국까지 유학을 왔으니 좀 크고 유명대학으로 옮기고 싶어서 바로 몇 군데에 지원하여 MSU로 옮겨서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석사학위 후 바로 박사과정 입학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급 귀국해서 보니 아버님의 식도암과 회사 부도 일보 직전으로 집안은 풍비박산이었습니다.



MSU 석사학위 졸업식 때

3. 결혼 후 박사과정 미국 유학(5년) (전쟁 같은 삶의 시기)

Q. 집사람 만남 & 결혼

A. 고향에서는 결혼을 위해서 이곳저곳 선도 보곤 했지만 부도나기 일보 직전의 어려운 상황에 선을 보고 할 분위기도 아니어서 내가 직접 서울에서 결혼대장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상경했습니다. 마침 친구를 만나러 친구 회사 앞 식당에서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강남 신사동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영어 강사 구직광고를 보고 전화해서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정말로 우연히 그곳에서 집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말로 **우연이 필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근무하고 싶어서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추천도 받았는데 그 당시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 내 직책을 의전과 과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국제부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입사가 무산되고 마침 이종사촌 형님이 경상대 대학원장으로 계시셔서 진주 경상대에서 1년간만 강사 생활을 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Q. 미국유학시절 어렵게 공부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A. 미시간주립대(MSU)는 스포츠심리학 분야가 유명해서 당시 학과장으로 계시던 Dr.



지도교수와 함께

Feltz 교수로 지도교수로 5년간 수학했습니다. 석사과정은 체육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박사과정 때는 행정학 전공이 없어지는 바람에 마침 심리학도 유

명하고 코치+리더십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석사 때는 집안에 좀 여유가 있었는데 박사과정 때는 아버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미국 유학을 할 수 없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람과 나는 미국 유학길을 강행했습니다. 가난한 유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집사람의 헌신은 나의 유학 생활을 지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사람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개월 반 된 애기(큰 딸)를 데리고 미국을 처음 온 새댁이 5년 유학 생활 동안 둘째 애기 임신하기 전까지 4년 반을 남편 공부시킨다고 웨이츄레스, 유학생 및 교민들 대상 미장원 운영하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정말 고맙죠. 나도 TA(강사), 교회 청소, 하우스 오피스, 집 청소 등을 하면서 둘이서 5년간 모은 돈이 10만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 다 쓰고 귀국하니 30만원 남더라고요. 집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고 봅니다.

Q. 미국유학시절 특별히 기억날만한 것은 없지요?

A. 마지막 졸업 학기에 유학생 학생회 회장을 맡으면서 박사논문과 코리언 페스티벌을 함께 준비하면서 2주간 거의 2-3시간 밖에 잠을 못



MSU 유학생 회장시절 간부진들과 함께 왼쪽 2번째 입길진 학생님

잔적도있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회장 시절 남북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북한사람과 1주일 함께 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남북한 학술대회를 하면서 북한사람들(3명)과 1주일 동안 함께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항에서 픽업해

서 우리 집에서 새벽 3-4시까지 함께 술 마시면서 노래도 하고 동포애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중에 언론에서 많이 접하게 된 4자회담, 6자회담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그때 저와 함께 형님 동생했던 이근 북미국장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통일되면 보자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헤어졌습니다. 통일되면 만나야죠.

4년 동안 학부생들에게 테니스, 배구, 소프트볼을 강의하였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니 학생들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등록금 면제에다 월급까지 받으면서 유학 생활을 하니 정말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좌에서 두 번째 이근 북미국장

Q. 미국유학시절 미국 스포츠 시스템을 보고 배울점은 없었나요?

A.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 스포츠 시스템(공부하는 운동선수)에 매료되어서 귀국하면 한국도 저런 시스템으로 바꾸어보자는 생각,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의 KCDC를 구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MSU에서 강의할 때 체육위원회에서 학생-선수들이 수업에 잘 참석하는지 여부를 담당교수들에게 직접 체크하는 시스템은 그 당시에는 참 특이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공부하는 운동선수상을 확립하는데 NCAA가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4. 귀국 후 대학 강사(4년)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기)

Q.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교수임용이 되었나요?

A. 귀국 후 교수임용까지 만 4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체육 동네에서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했고 연구업적도 좋은데 왜 교수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군요. 아시다시피 교수가 연구업적만 가지고 됩니까? 그 당시 강사 후배들이 내 별명을 총장급 강사 또는 재벌 강사라고 불렀습니다. 수업을 많이 하니 강사료 많이 받는다고 농담으로 붙여준 별명입니다. 강의를 제일 많이 할 때는 주 38시간 기록도 세웠습니다. 다른 강사들은 보통 주 10시간 정도 강의할 때입니다. 그때는 5개의 대학에서 10시간 실기수업, 28시간 이론 수업을 월-토요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목이 쉬면서 강의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강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4개월간 급여가 없으니 매 학기 초반에 돈이 없어서 주변에 함께 살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개강후 첫 월급 받으면 갚곤 했죠. 대한민국 강사는 처절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강사 신분으로 이런저런 연구, 교육, 봉사업적도 꽤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 및 제의(강의, 발표, 직책, 연구, 교육, 봉사 관련 일 등)를 하면 단 한 번도 'NO'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학회에서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YES', 발표를 시켜도 무조건 'YES', 강의를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YES'.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강의 준비, 강의, 논문작성 등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수 자리는 나에게 오지를 않더라고요. 주변에 형님들도 이렇게 교수 되기 어려운데 한국 왜 들어왔냐고 하기도 하고, 나이는 40세를 넘어가고 하니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절박함은 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꼭 교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5. 호서대 교수(24.5년) (진정한 내 삶의 시작 시기)

Q. 호서대 교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A. 1996년 9월 학기 정말 기적같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 42세, 지원 횟수 17번, 17타수 1홈런이죠. 그것도 기적처럼 임용되었습니다. 교무처에서 박정근 지원자 교수 합격했다는 전화를 집사람이 먼저 받았는데 집사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제 실력으로 교수가 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교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한 한 모멘텀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기적에는 나도 최선을 다했지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 업적도 좋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의 강력한 추천도 있었고, 학교 당국에서의 우수 교수 확보 등이 모두 맞아떨어진 거죠. 교수임용과정을 보면 **세상일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절박감이 생기면)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용감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야구에 자주 나오는 문구처럼 "시합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우연한 일이 큰일로 이어지는 경우이고 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Q. 교수 임용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A. 1996년 9월에 임용했는데 2년 후 **1998년 11월에 지금의 KCDC를 설립**했습니다. KCDC가 기반이 되어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2009년 9월에 ISG를 창업**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KCDC 22년 역사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Q. 교수님은 24.6년 교수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만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히 사회에 기여할만한 일과 본 주제와 관련 있는 일들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A. 특히 사회에 기여할만한 일과 본 주제와 관련있는 일들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스포츠 분야에 나름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근 교수가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했는지? 인플루언서 역할을 했는지?' 물어보시면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는 스포츠 역사에 남을 일도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찰나이다(우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연한 기회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우연한 기회였지만 그 기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성취해야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연한 일이었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들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한번 도전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어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일과 관계되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호서대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축구지도학과 설립, 왕중연 중국 국가 소프트볼 선수를 스카우트 후 전국 최강 상지대를 격파했을 때, 정말로 우연한 일로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을 창단했던 일, 독립야구단 ISG(연천)미라클 창단, ISG 창업,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용역 수주 및 천안유치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씩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하지요.

1.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축구지도자학과(현 스포츠과학대학원 축구학과) 설립

제 브랜드는 코칭입니다. 1998년에 코칭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해서 그 이후에는 항상 코칭과 관련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당시 축구관계자(나중에는 제 박사과정 학생이 되었던 장선생님)가 ‘교수님 호서대에 축구학과 만들면 좋겠다’고 설명을 해주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축구지도자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정보를 받게 되면 며칠 동안 생각하고 구상하고 자료 찾아보고 피드백 받고 하면서 하겠다는 결정이 내리면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는 우연한 일이었죠. 대학원 설립도 장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설립되지 않았을지 모르지요. 보통 사람들은 우연한 일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보려고 구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장 선생님 조언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KCDC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코칭에 도움 되는 프로젝트는 언제든지 준비 자세가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설립도 KCDC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특성화 대학원 코칭능력개발대학원을 제가 기안해서 본부에 올렸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를 않아서 순조롭게 축구학과(2002년)와 야구학과(2004년)를 설립했습니다. 축구학과는 유럽에 축구 관련 대학이 한 곳 있고, 현재는 국내 학부에 축구학과 개설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야구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첫 학과 개설이었습니다. 18년, 16년간 주임 교수하면서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축구학과와 야구학과가 연계되어서 나온 상품이 공부하는 선수상 TF팀(주말리그 탄생), 호서대 축구부 창단, 서울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창단, ISG미라클 독립야구단 창단입니다.

2. 왕종연 선수 스카웃

왕종연 선수 스카웃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소프트볼은 상지대가 대학최강이며 대부분 대표선수들로 포진되었으며 우승을 싹쓸이 할 때였습니다. 그러자 협회에서도 상지대가 너무 강팀으로 상대할 팀이 없으니 상지대를 견제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보려고 생각만 하다가 박정근 교수가 야구도 좋아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수라는 이야기를 협회에서 듣고 저에게 소프트볼팀 창단해주면 감독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해 줄 테니 호서대 팀 창단 부탁한다고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수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정도 많고 또한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서 수락했죠. 수락하자마자 감독 물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를 협회에 추천했던 전문숙 선생이 오현주 감독(전 이화여대 국가대표선수 출신)을 추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칭 석사학위를 하고 귀국한 오 감독을 만나서 둘의 철학도 유사하고 의기투합하여 선수 모집, 훈련에 함께 돌입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학교 체육관에서 정말로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체육학과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특기자 5명을 먼저 스카웃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내 소프트볼 교양수업 수강하던 일반학생들을 선수로 등록시켜 3월 2일에 창단하여 4월에 첫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첫 대회에서 창단한 지 10년 정도 된 단국대를 10:5로 격파하고 선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다음날 준결승에서 최강 상지대에게 26:0 2회전 콜드게임 패해서 선수들 또 울었습니다. 그 다음해, 5명 스카웃 했더니 선수 출신만 10명, 해볼 만했습니다. 1년 만에 결승에서 드디어 상지대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합 1주일 전에 감독이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독을 맡아서 예선부터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결승에서 7회말 마지막 찬스에서 뒤집

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투아웃 만루찬스에서 내 생각으로는 홈에서 세이프인데 심판이 아웃이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했지만 이미 게임 오버. 7:3패. 그래도 값진 패배였습니다.

그 다음해 한국, 중국 교류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중국대표팀으로 인민해방군팀이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팀, 상지대, 호서대와의 시합 일정이 있었습니다. 호서대 구장에서 시합을 하는데 약 400-500명 정도 관중들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중국 에이스가 던지는 것을 보고 관중들이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그 이름 왕종연. 내가 왕종연 투구동작을 보고 내 옆에 있던 통역한테 “내가 등록금 무료, 매월 장학금 형태로 생활비 지원해줄테니 왕종연이 호서대로 유학 올 수 있냐고?” 그냥 옆자리에서 물어보았더니 “이야기 잘하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합 후 바로 탑승하고 있던 버스로 가서 왕종연에게 유학 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스카웃의 첫 신호탄으로 1년 후에 호서대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왕종연이 한국 온 다음날이 바로 시합이었습니다. 승승장구 결국 상지대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마침 호서대 정근모 총장님께서 호서대 시합을 관전하러 구장까지 오셨습니다. 결과는 10:0 대승이었습니다. 호서대 선수들은 기뻐서 울고, 상지대 선수들은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1:0으로 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국가대표 투수들로 포진되어있는 3명의 투수진으로부터 10점을 뽑아냈다는 것에 대해 상지대 측에서 이해가 안간다고 했습니다. 투수 한 명 왕종연이 호서대 전 선수들을 신바람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호서대 역사상 첫 우승입니다. **정말로 왕종연을 우연한 기회에 스카웃하여 호서대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승 이후 총장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총장님이 찾으니까 교무위원회실로 빨리 올라오라고 합니다. 왜지? 하고 올라갔더니 총

장님께서 모든 교무위원들 앞에서 “박정근 교수가 학교의 지원도 하나도 없이 혼자 팀을 우승시켜서 진정한 벤처인이다”고 박수를 받은 것입니다. **참 살다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나는 소프트볼팀을 창단해볼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우승이란 것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최선을 다하면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종연은 대학원 진학도 하고 야구 여자 대표팀 선수로 귀화해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한국 남자와 결혼 등 왕종연의 인생은 한 명의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왕종연 졸업 이후에 한국여자야구연맹에서 나에게 연락이 와서 한국여자야구가 세계대회에 출전해서 1승을 거둔 적이 없었고, 일본에게 50:0 대패할 정도로 약하니 왕종연을 귀화시켜서 세계대회 출전시키려고 하니 박정근 교수가 도와달라고 해서 귀화 추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결국은 왕종연이 한국 선수로 출전하여 첫 2승을 거두게 되고, 한국 사람이 된 거죠.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중국에서 살고 있겠죠.

3. 서울-우리-넥센-키움 히어로즈 탄생

하루는 박노준(야구 슈퍼스타) 박사과정 첫 학기 신입생이 지도교수인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사학위 디펜스 하는 것 구

경 좀 하러 가도 되겠냐” 고 해서 오라고 했죠. 지도학생 박사학위 발표 자리가 끝난 이후 식사 자리에서 박노준 원생이 나에게 “교수님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 혹시 주변에 프로야구단 창단할만한 아시는 분 없으세요? 곧 시즌이 시작되는데 7개팀 밖에 없다. 홀수 팀으로는 리그 전을 치루기가 어렵다. 창단 가능했던 KT, 농협, STX 모두 창단 안 하겠다고 하니 큰일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물어보아서 “내가 무슨 프로야구단을 창단할 수 있는 분을 아냐고” 했더니 내 옆자리에 있는 벤처전문대학원장이 “잠깐만요!” 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니 “우리 프로야구팀 하나 합시다” 라고 해서 어리둥절 쳐다보았다. 내가 “누구나?” 고 물어보니 대학원장하고 호서대에서 벤처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이장석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박노준(KBO 사업이사), 이상일(KBO 사무차장), 이장석(벤처기업 사장), 남궁종환(벤처기업 부사장), 정진도(벤처대학원장), 박정근(박노준 지도교수) 6명이 서초동 벤처전문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결론은 이장석은 창단에 뜻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박노준(고려대 경영학과 82학번)의 1년 후배(연세대 금속공학과 83학번)로 이전에 박노준의 팬이라고 해서 내가 이장석 사장에게 “야구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사람이 박노준 만한 사람 없으니 단장으로 추천하겠다. 그리고 나도 돕겠다” 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력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한달 만에 히어로즈 프로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세상일은 정말 웃기는 일이죠. 전화 한 통화에 히어로즈가 창단되게 된 거죠. 물론 창단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프로야구 야사에 이 창단 배경의 스토리에 내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박노준, 박정근, 정진도 3사람이 그날 한명이라**

도 그 모임에 없었다면 지금의 프로구단은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연한 일이 큰일을 만들어낸 것이죠.

4. 독립야구단 ISG(연천)미라클 창단

취미가 미래가치와 연결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야구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구학과를 설립해서 16년간 주임교수, 9년간 KBO 야구발전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독립야구단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서대 학점은행제를 통해 야구단을 운영해보려고 선수 모집을 하였는데 선수들이 학점은행제는 관심이 없고 모두 프로 진출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독립야구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이 연천군에서 지원을 받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결국은 년 2억 지원해주고 네이밍스폰으로 ‘ISG미라클’을 ‘연천미라클’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2년간 구단주 하면서 5명 프로에 진출시키는 보람된 일도 하였습니다. 유일한 독립야구단이었는데 제가 팀을 만드는 것을 보고 다음 해부터 줄줄이 독립야구단들이 창단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었다는 긍지도 생기고요.

5.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호서대 유소년스포츠연수원

호서대에 재직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루틴한 일보다는 저는 아무도 관심 없는 일들을 제가 일을 찾아서 성사시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원 유치도 제 혼자서 열심히 해서 유치했습니다. 충남, 대전, 세종, 충청권 지역 유치에 3 대학이 경쟁했지만 호서대가 유일하게 선정된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연수원입니다. 국가자격증을 따기 위해 매년 여

름마다 호서대에서 연수받는 지도자들을 보면 뿌듯하지요.

6. 최근에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

대한축구협회 용역을 맡게 된 것도 우연히 협회 관계자와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 제가 용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만평 부지에 축구장 12면을 짓는 대단위 프로젝트였습니다. 제(KCDC)가 용역을 맡아 심사위원들하고 몇 번에 걸친 토론 후 용역을 마친 이후에 지자체끼리 유치 경쟁을 했을 때 원래 내 계획은 호서대 10만평 부지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려고 학교 당국자와 논의를 했지만 학교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천안시 고위관계자를 만나서 함께 유치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24개 도시가 경쟁하여 천안시가 1등을 했습니다. 정말로 기뻐요. 첫 PPT 발표 때도 참석인원



은 5명으로 제한, 천안시 공무원 4명(국장, 과장, 실무진)과 유일하게 민간인 1명으로 내가 참석을 했죠. 현장실사도 잘 받고 모든 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퇴직 이후에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세계적인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선정 이후, 천안시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바뀌고, 담당자들도 모두 퇴직하고 등등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큼니다. 더군다나 저의 모든 아이디어를 넣은 대형 프로젝트인데 더더욱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7. 스포츠 ODA 프로젝트

최근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스포츠 ODA 관련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우연한 기회에 관련자를 만나서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KCDC도 이런 것 하면 특성화가 되겠네’ 라는 생각에 현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도 선정되어서 스포츠지도자들을 해외에 파견시키게 되면 이 또한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서 설명한 내 경험들로 비추어볼 때, **인생은 정말로 우연한 일들이 큰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연한 일 가운데 기회가 왔다는 것을 눈치 못 채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우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우연한 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승부 건성이 필요한 거죠. 절박감도 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항상 준비성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우연한 기회들이 많이 오고 또한 운과 함께 일을 추진하면, 즉, 기회를 살리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물론 실패가 온다고 하더라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면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의식(목표설정)이 뚜렷해야 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끈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자세, 열의, 인내, 지속성(꾸준히 하는 능력) 등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일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성공으로 갑니다(Success is a series of small steps toward improvement).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오늘(21.2.7) 오랜만에 교회에서 대면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말씀이 이런 이야기더군요. “우연한 일인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지요.

결론: 성공 = 준비성 + 우연(기회포착, 운) + 추진력(네트웍+Cowork) + 끈기

Q.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인생의 멘토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세 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분은 제가 박사과정 유학 시절 그 당시에 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장이신 임길진 학장님이셨습니다. 국제대학장에 지원하신 분들이 150여명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한국분이 학장에 임용되었다고 해서 유학생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길래 쟁쟁한 본토 사람들을 물리치고 한국 오리지날 유학생 출신 교수가 학장이 되었다고 해서 한국 유학생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임용되자마자 졸업식에 총장을 대신해서 연설을 하는데 발음은 완전히 한국식인데 스피치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많은 청중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연설을 듣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마침 제가 한국 유학생 회장 자격으로 자연스럽게 뵈는 시간들이 많아서 함께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에게 배운 것은 네트웍을 활용한 추진력이었습니다. 업무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의리도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를 동생처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교수가 안 돼서 한국에서 강사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국제전화로 학과사무실로 전화해서 저와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과사무실에 국제전화를 해서 통화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호서대 교수 지원했을 때 총장실에 직접 팩스로 본인 소개를 하면서 박정근 박사를 강력하게 추천하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호서대에서 이런 지원자를 놓치면 안됩니다’는 내용의 팩스를 2번이나 넣었다고 교수임용 후에 총장 비서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강하게 추천해 주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추천해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던 분이 안타깝게 학교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전화하실 때마다 ‘박 박사 잘 지내시요?’ 하시면서... KCDC 1주년 학술대회 때 직접 학술대회장을 찾아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부금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식년 기간에 함께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체육 분야는 항상 저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상담했을 때 과감히 출마하라고 추천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임길진 학장님과 함께

두 번째분은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님이십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천재이신 분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미시간주립대 동문이라는 인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호서대 교수로 임용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하고는 참으로 묘한 인연을 가졌는지 장관직을 그만두시자마자 호서대 총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제가 4년간 옆에서 모셨습니다. 격의 없이 총장실에 자주 불러주셔서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눴습니

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정근모 총장님(그 당시 명지대 총장님)께서는 사실은 기독교 원로 목사들이 추대형식으로 기독교를 대표해서 출마를 권유받아 어렵게 결심해서 출마했는데 나중에는 기독교 원로 목사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어렵게 대통령경선을 마친 경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 역시 그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지라 뒤에서 돕긴 했지만, 그 당시 대선출마는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세 번째는 강석규 총장님으로 제가 호서대 교수로 부임할 때 총장으로 계셨으며 호서대를 설립하신 분으로 항상 벤처, 창업을 강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대학교수 출



정근모 총장님께 호서대기를 받는 장면

신이라 나도 저분 따라 벤처, 창업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실제 벤처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창업과 벤처를 우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우연히도 이 세 분이 저를 호서대 교수로 만들어 주신 분들입니다. 인생에는 이런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멘토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뿌린 만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에는 공짜는 없죠.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생은 새옹지마인 것 같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익이 있으면 손실이 있는 법인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까불지 말고(점손하고) 못나갈 때 기죽지 말고, 언젠가는 좋은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정년퇴직 후의 나 (내 삶의 인생 2모작: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시기)

Q. 퇴직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실 생각인가요?

A. 대학교수 정년은 65세, 공무원 60세, 기업 50세, 요즘은 40대에도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하고 싶은 정년 연령은 78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답니다. 78세 이후가 실제 퇴직 연령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할 나이 때까지 현역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현재 KCDC+ISG를 맡아서 두 단체에 매진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일과 휴식을 발란스를 맞추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 후의 나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퇴직 후 **행복한 삶 실천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렸습시다만 내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최소 1시간 운동을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움직이고, 근력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퇴화로 근력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2.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연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는 목사님의 설교처럼 저도 우연한 일들이 모두 하늘의 섭리처럼 느껴집니다.

3.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되도록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집사람에게 더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막내딸이 올해 결혼을 했음하고요, 집사람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큰딸, 사위 모두 건강하고 회사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 집 복덩이 손녀딸도 건강하고 이쁜 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님, 동생들에게도 자주 연락하면서 가족 사랑의 중심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4. 현역처럼 일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퇴직 이후의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내가 설립하고 창업했던 KCDC+ISG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 보겠습니다. KCDC+ISG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KCDC+ISG 몰두를 통해 두 기관을 성장시켜서 성취감은 물론 꾸준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기존 연금 + 경제활동을 통한 꾸준한 수입원을 통해서 안정된 노후를 유지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 무게를 많이 두겠습니다.

5. 좋은 대인관계(인간관계)를 가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되도록 배려하고 베풀려고 합니다. 학교 동창, 호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친분을 나누었던 분들, 개인 친분 있는 분들과 자주 연락하고 친분을 가질 예정입니다.

6. 여행계획

가장 행복하기 위한 활동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행속에는 행복에 관련되는 activity(활동)가 많습니다. 되도록 시간 내어 국내 좋은 곳

여행, 해외여행을 다닐 생각입니다. 틈만 나면 가족 중심 여행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즐거운 여행을 많이 다닐 생각입니다.

7.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사무실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8. 삶의 발란스(균형)를 유지하겠습니다.

너무 한곳으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위 모든 것들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퇴직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9. 100세 시대 준비(죽음)

죽음에 대해 항상 긍정적 대비하려고 합니다. 항상 감사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저와 같은 퇴직자들을 위한 팁

연금을 받는 퇴직자이든 퇴직 이후 일을 하고 싶은 퇴직자이든 간에 퇴직 전에 미리 퇴직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꾸준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직업(일)을 가지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퇴직하자마자 이제는 좀 쉬자고 하면 나중에 다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휴식과 병행하는 전략으로 가야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2월 28일까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날 3월2일부터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하더라구요. 그분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물론 스케줄은 좀 편하게 조정하지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현역에 있을 때부터 교수직업과 ISG CEO+KCDC 원장직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일명 투잡 뽀너죠. 이제는 풀타임 ISG+KCDC일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전부터 이런저런 구상으로

퇴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퇴직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떤 퇴직 강사분이 퇴직자들이 가져야 할 직업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더라고요. 곰곰이 보니 제가 하는 직업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7가지의 직업은 투잡, 독립전문가, 프로틴 커리어, 포트폴리오 커리어, 무경계 경력, 커리어 모자이크, 깃 워커입니다. 나의 예를 들면서 7가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1. 투 잡: 두 가지 직업(KCDC+ISG)을 가지세요.
2. 독립전문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3. 프로틴 커리어: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자재로 경력유지를 해야합니다.(CEO, 초빙교수, 연수원 강사, 프로젝트 매니저 등)
4. 포트폴리오 커리어: 선수심리상담 컨설턴트, 기업 강사, 언론 칼럼리스트, 책 저자
5. 무경계 경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력에는 경계선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전문성을 찾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경력을 본인이 만들어야 합니다.(유학원상담사, 지적재산권자, 주식투자자).
6. 커리어 모자이크: 직업을 본인이 창출해야 합니다(예비창업자, 공동창업자).
7. 깃 워커(임시근로자, 펀치히터 개념): 기자, 강사, 다른사업 아이템 공동 CEO

가능 수입원

- 자격연수(17개)
- 지역센터.지부.지회 프랜차이즈(11개)
- 논문발행(등재지 년4회, 국제학술지 년2회, 지적재산권)
- 유학(중국선수 한국유학, 한국선수 미국유학 등)
- 선수 심리상담사
- 광고(보드, 단행본, 논문, 사이트)
- 국가 및 민간 프로젝트(인턴십, 학술지, 학술대회 지원 등)
- 창업(자회사)
- 에이전트(축구, 야구, MLB인턴사업 등)
- 강사(대학, 기업, 특강)
- 책 판매
- 스포츠ODA(개도국 지도자 파견 사업)
- 기타

*함께 동참하시고 싶은 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2306-4917)



퇴직 직전 손녀딸과 함께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막내아들(둥이)과 손녀(윤서)와 함께 즐거운 시간

이력서



성명: 박정근(朴定根)
 생년월일: 1955년 12월 26일(실제 5월 17일)
 홈페이지: www.ikcdc.net / www.isgkorea.com
 전화번호 : 02)3471-2469 / 010-2306-4917
 이메일: jkpark3838@naver.com
 주소
 -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101동 503호(요진와이씨티)
 -학교: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대학교 체육관 203호

학력

- 1981. 2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졸업
(B.A 취득: 체육교육학 전공)
- 1985. 6 Michigan State University 체육학과 졸업
(M.A 취득: 체육행정학 전공)
- 1992 12 Michigan State University 체육학과 졸업
(Ph.D 취득: 스포츠심리학 전공)

현재 주요경력

- 1998 - 현재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원장
- 1999 - 현재 코칭능력개발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발행인
Coach(한국코칭능력개발원 잡지) 발행인
- 2006 - 현재 국제스포츠지도자 프로그램(ISLP) 공동 디렉터
- 2007 - 현재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KCDC 공식국제학술지) 발행인/편집위원장.
- 2009 - 현재 (사)한국야구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대표이사

경력

- 1996.03. 세계청소년네트워크(GYN) 체육전문위원
개발연구협의체 이사
- 1996.09.-2021.02 호서대학교 예체능대학 스포츠과학부 체육학전공 교수
- 1996.11.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논문집 스포츠과학 심사위원
- 1996.11-1998 한국체육학회 편집위원
- 1997.01-2000.12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연구이사
- 1997.06 세계스포츠심리학회(ISSP) 회원
- 1997.07 세계체육학회 회원
- 1997.12-1998 세계스포츠교육학회(AIESEP) 회원
- 1998.03. 고려대학교 교무회 이사
미시간주립대 한국총동창회 이사
- 1998.11-2001.12 코칭능력개발센터(CDC) 공동대표
- 1999.03. 호서대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 2000.03 호서대 소프트볼팀 창단 및 지도교수
미시간주립대 한국총동창회 총무이사
아시아태평양지역 스포츠심리학회(ASPASP) 회원
피트니스 오리엔트 프로대회 심사위원
- 2000.09 호서대 후원회 추진위원회 위원
고려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회 이사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지지서명운동 주도
아원 주식회사 감사
- 2001.01-2001.12 대한소프트볼협회 이사(전무이사)
- 2001.01-2002.12.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연구이사
- 2001.02-10. 체육시민연대 공동추진위원장, 창립총회 임시의장
- 2001.08-2002.08 송도병원 자문교수
- 2002-2020.08 호서대 스포츠과학대학원 축구학과 주임교수
- 2002.01. 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 원장
- 2002.03-2005.08 호서대 코칭능력개발대학원장(현 스포츠과학대학원장)

- 2003.03 호서대 벤처동아리(스포츠클리닉) 지도교수
- 2003.03 호서대 평생교육원 체육학과(축구학 전공) 개설
- 2003. 호서대 신문사 자문논설위원
- 2003.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지도자교육위원회 위원장
- 2003-2005.08 호서대 스포츠과학부 학부장
- 2003.03-2016 호서대 축구부 창단 및 지도교수
- 2004. 한국학술진흥재단 심사위원
- 2004. 한국체육학회 논문 심사위원
- 2004. 국제스포츠심리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Sport Psychology) 회원
- 2004-2020.08 호서대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 주임교수
- 2004-2005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부회장
- 2005. 충남체육회 이사
- 2005. 충남체육회 가맹경기 단체 소프트볼 종목 후원위원
- 200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자문위원
- 2005.09-2006.08 미시간주립대 체육학과 방문교수
- 2006. 한국올림픽챔피언클럽 전문위원
- 2006. 노아테크놀로지 고문
- 2007. 세계민족궁대축전 자문위원
- 2008 교과부,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학원스포츠 활성화 TF팀 팀원
한화이글스 프로야구팀(국내 첫 프로 야구팀 전속계약)
스포츠 심리상담사
- 2008-2011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스포츠경영전공 전공주임
- 2009. 한국청소년학회 논문심사위원
- 2009. (사)대한축구협회 선정위원장
- 2009.03-2016 천안FC 자문위원
- 2009.09-10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자문위원
- 2009. 한국 스포츠클럽(국가대표 선수출신 모임) 회원
- 2009.03 호서대학교 유소년 스포츠클럽 원장
- 2009-2018 한국야구위원회 야구발전위원회 위원
- 2012.-2021.02 호서대 스포츠산업벤처연구소 소장

- 2016 - 현재 문체부지정 호서대학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원장
- 2017.9.1-2019.2.28 호서대 교수협의회 회장
- 2019.1.24-2019.5.16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실무위원회 위원
(유치기관 확정시까지)
- 2020.02.5-12.31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추진단 자문위원

교수임용 전 경력

- 1976.02-1978.07. 육군복무
- 1981.08-1982.02. East Stroudsburg University 강사
- 1981.08-1982.05. East Stroudsburg University 태권도 클럽 지도
- 1986.03-1987.02. 경상대학교, 연암공업전문대학 강사
- 1988.03-1992.03. Michigan State University 강사
- 1988-1991. 북미스포츠심리학회(NASPSA) 회원
- 1991.06-1992.06. Michigan State University 한국학생회장
MSU 한국학협의회 운영위원(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Council on Korean Studies at MSU)
- 1992.04.06-04.10. MSU “한국주간행사, 코리아나이트 1992” 조직위원장
- 1992.09 고려대, 세종대, 한림대, 용인대, 건국대, 중앙대, 한국체육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성균관대(임용 후) 강사
- 1993.02-1995.02.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편집위원
- 1993.03-1995.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강사
- 1994. 한국체육학회 평생회원
- 1994.05-1998. 고려대학교 교우회(총동문회) 이사
- 1995.02-1996.12 한국스포츠심리학회 감사

특강 이력

- 1995. 대한항공 탁구팀 심리상담지원
- 1997. 천안시청 볼링팀 심리상담지원
- 1997.03. LG 세이커스 프로 농구단 특강

- 1998.12.29 국군체육부대 전임감독들 대상으로 특강
- 1999.03. 호서대 실직자 강의
- 1999.04.13 충남체육회 지도자 강습회 특강
- 1999.07-09 천안시청 볼링팀 심리상담 지원
- 2001.09 충남체육회 지도자 강습회 특강
- 2002.04.02 한화이글스 프로야구팀 정신훈련 특강
- 2002.12.17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 대상 특강
- 2003.02.20 평택소프트볼연합회 선수들을 위한 연수특강
- 2004.04.17 KCDC 제6회 월례학술세미나 특강
- 2005.03.11 대한트라이애슬론협회 코치아카데미 지도자 대상 특강
- 2007 고덕호 프로아카데미 멘탈 클리닉 특강
- 2008 경남체육회 지도자 강습회
- 2009.07. 천안시청 축구팀, 천안축구센터, 축구선수들의 스포츠심리기법
- 2009.07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치매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운동과 건강
- 2013.05. 제주대 체육영재센터 특강(유능한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체육 영재의 자세)
- 2016-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국가연수 특강.
- 2018.08.08 상지대 스포츠관광 기획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특강(스포츠조직 및 운영전략)

수상

- 2003. 소프트볼 감독상
- 2003. 소프트볼 감독상
- 2003. 제 15회 종별전국여자소프트볼대회 우승
- 2009.01.22 축구인의 날 시상식, 공로패, 대한축구협회
- 2018.05.25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발전위원회(2009-2017) 공로패

자격증

- 1981.02 2급 정교사 자격증, 문교부
- 1988. 응급처치법, 적십자
- 2004.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 한국스포츠심리학회

- 2008.06.21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1급, 한국코칭능력개발원
- 2020.03.05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M급,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 2020.06.30 커리어코치 1급,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 2020.06.30 캠퍼스인증코치 1급,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 2020.07.01 유소년인성코치 1급,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 2020.07.20 진로학습코치 1급,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기사

- 학회보/ 잡지

- 1996 -슬럼프 탈출기. **Baseball(7월호)**. 제1권 4호. p.69.
- 우리도 이제 일낼줄 안다. **Win(10월호)**. p.291.
- 대학인사의 문제점(체육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체육학회보**, 67. p.3-7.
- 1998 -차범근 감독의 리더십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보**, 제10권 1호(통권 29호). p.2-5.
- 1999 -미시간주립대학 유스스포츠센터와 자매결연. **코칭능력개발센터 뉴스레터**. 제2호(6월호) p.26-27.
- 2001 -골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신훈련기술. **코칭능력개발센터 뉴스레터** 제11호(9월호) p.12-15.
- 2002 -최고의 승부사-명장 히딩크. **한국코칭능력개발원 뉴스레터**. 제14호(6월호). p.1-9.
- 국제코치교육학회 참석. **한국코칭능력개발원 뉴스레터**. 제14호(6월호). p.26.
- 코치는 보조자. **한국코칭능력개발원 뉴스레터**. 제16호(12월호).p.5-8.

-방송

- 1990.09. -호서대 소프트볼팀 관련 **KBS 방송**
- MBS 라디오 집중토론** 의견을 묻습니다. 토론자 방송
- 2000.03 -호서대 소프트볼팀 관련 **SBS 대전방송**
- 2008.11.25 -“캡틴 박지성 시대” **KBS 저녁 8시 뉴스**

- 2010.06.15. -허정무, 박지성 리더십 분석. **MBN뉴스광장**
- 2010.06.18. -한국 축구 사상 원정 첫 16강 진출의 원동력 분석. **MBN뉴스광장**.
- 2011.11.15. -스포츠 에이전트 직업탐방. **경기방송 "달려라 라디오스쿨"** 99.9MHz.
- 2015.02.26. -제2의 독립야구단 '미라클' 구단주 "'넥센 히어로즈'처럼 되고 싶다".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 2018.12.24. -천안시, 입장면에 '축구종합센터' 유치 추진. **T-Broad 지역채널**.
- 2019.05.24.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KBS 생생토론**
- 2019.05.27. -박정근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기획단장 인터뷰. **T-Broad 지역채널**.

-신문

- 1996
 - 스포츠세계를 보여주는 매체(<http://kidnet.chosun.com>). 인터넷 교육 매체 개발. **조선일보**
 - 스포츠심리학을 알아본다. 정신훈련을 통한 패배의식의 극복과 자신감의 향상. **호서대신문**. 제154호(11월 4일자). p.2
- 1998
 - 선수들의 경기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호서대신문** 제167호(2월). p.2.
 - 선수와 코치들이 주로 사용하는 심리훈련 프로그램. **호서대신문**. 제 168호(3월). p.2.
 - 스포츠 현장에서 심리적 기법의 중요성. **호서신문**
- 2003.04.08. -공부하는 학생선수, 과연 불가능한가? **Ohmy news**.
- 2003.11.20. -체계적 교육만이 좋은선수 발굴. **한겨레**.
- 2006.09.15. -국제감각 갖춘 스포츠 전문인력 키운다. **한겨레**.
- 2008.10.07. -국내 최초 야구아카데미 탄생 '패자부활전'의 무대. **스포츠서울**.
- 2009. -김인식 리더십 전화인터뷰. **코메디닷컴**
- 2010.05.09. -야구학과를 아시나요? **연합뉴스**.
- 2010.07.15. -한국의 스포츠인력을 스포츠선진국에 연수 또는 취업 인프라구축. **애틀란타 타임즈**.
- 2011.01.31. -ISG,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미국야구 취업연수 실시. **스포츠조선**.
- 2011.02.10. -미취업 야구선수들, 11일 마산에서 트리아아웃 '도전'. **OSEN**.
- 2012.05.26. -피부색과 혈통이 국가대표 조건이 될 수 없다. **중앙일보**.
- 2013.06.27.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전주방송과 제 2회 대한민국 야구박람회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뉴스와이어**.

- 2014.02.11. -박정근 호서대 교수,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 **Sports Q**.
- 2014.03.17. -황금알을 낳는 스포츠복합플렉스,레이크 포인트 타운센터를 가다. **Sports Q**.
- 2014.03.24. -팬들을 위한 혜택과 이벤트로 가득한 마이너구단. **Sports Q**.
- 2014.03.25. -본격적인 메이저리그 순회! 애리조나 스프링캠프를 찾다. **Sports Q**.
- 2014.03.26. -전설의 홈런왕 맥과이어와 '류현진의 베프' 유리베를 만나다. **Sports Q**.
- 2014.03.27. -눈 앞에서 펼쳐진 추신수의 플레이에 매료되다. **Sports Q**.
- 2014.12.08. -공부도 야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경북일보**.
- 2014.12.09. -호서대 학점은행제 독립야구단 만든다. **한국대학신문**.
- 2014.12.30. -호서대, 충청권 유일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선정. **금강일보 외 3건**.
- 2015.02.24. -전설의 키스톤 콤비, '낙오병들의 기적' 이끈다. **한국경제**.
- 2015.04.30.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마지막 보루, 기적을 꿈꾸다. **국민일보**.
- 2015.05.24. -MLB 뉴욕, 보스턴 구장과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가다. **Sports Q**.
- 2015.05.29.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 고려대 완파 '신용균 코치 과외 효과'. **Sports Q**.
- 2015.06.18. -연천 미라클 모델로 본 독립구단, 저비용 팀 창단 가능하다. **스포츠조선**.
- 2015.12.09.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 창단 첫 해 프로선수 3명 배출. **CBS 노컷뉴스**.
- 2019.05.16. -[스포츠타임 시선] '제2 NFC 우선협상' 천안시, "3년 내 프로구단 창단+관광특구 지정". **SPOTV News**.
- 2019.05.19. -NFC 천안유치 숨은공신 '민관실무유치팀'. **충청투데이**. **SPOTV News**.

-토론회/세미나/기타

- 2004. -대한축구협회 개혁 및 국구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축구행정과 축구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 2009.04.17. -한국야구발전연구원, 22일 ‘야구인프라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OSEN 외 1건.
- 2008.12.20. -아산시 건강도시 선포기념 세미나 발표.
- 2009.04.23. -야구발전토론회 야구로 번 돈 야구에 쓰자. 스포츠경향.
- 2009.12.09. -KBO, 리틀 야구 지도자 세미나 개최. 뉴시스.
- 2009.01.30 -초중고 주말리그제 공청회 토론자
- 2010.07.07. -(사)한국야구발전연구원 청소년 야구 저변확대와 시스템구축. 강진군청. 뉴시스
- 2011.12.08. -[스포츠 로그아웃] 경기도야구협, 지도자 세미나 열어. 경인일보.
- 2016.02.11. -연천군 홍보+독립구단 미라클 활약 ‘상생 홈런’ . 기호일보.
- 2018.11.05. -한국코칭능력개발원 출범 20주년 학술대회 9일부터 제주서 개최. SPOTV NEWS 외 1건.

저서

- 김상국, 김시덕, 김영수, 박정근, 윤성원, 이덕분, 이용수, 이명천(1995). **운동과 건강**, 서울: 대한미디어.
- 문익수, 박정근, 최만식, 서지영(1996). **스포츠심리검사지**, 서울: 대한미디어.
- 박정근(1994). **스포츠 행정 및 관리**, 서울: 21세기 교육사.
- 박정근(1996). **스포츠심리학**, 서울: 대한미디어.
- 박정근(1999). **코칭능력개발지(제1호-제72호)** 서울: 21세기교육사.
- 박정근(1999). **Coach(제1호-제37호)** 서울: 21세기 교육사.
- 박정근(2004). **응용 코칭론**. 서울: 21세기 교육사.
- 박정근(2005). **스포츠 심리학 핸드북**. 서울: 무지개사.
- 박정근(2016). **박정근 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서울: 아이새롬.
- 박정근, 문익수, 전진효(1999). **현대사회와 스포츠**. 서울: 21세기교육사.
- 박정근, 장남제, 김명화, 유생열, 김기진, 지영배, 임병정, 강성남(2001). **소프트볼 초,중등교원 연수지도서**. 서울: 21세기 교육사.
- 박정근, 조문주(1999). **농구**. 서울: 21세기교육사.
- 박정근, 전진효(2002). **테니스교본**. 서울: 테니스코리아.
- 박정근, 정지혜, 김명화, 김기진, 박노준, 최용수 외(2010). **청소년스포츠지도서(2급)**. 서

울: 21세기출판사.

박정근, 주종미, 정지혜, 김명화, 김기진, 정현재 외(2009). **청소년스포츠지도서(초급)**. 서울: 21세기교육사.

박정근, 최만식(2013). **스포츠와 운동심리학**. 서울: 대한미디어.

박정근 외 공저(1994). **스포츠심리학(리더십. p.259-278)** 한국스포츠심리학회편, 서울: 태근문화사.

박정근 외 공저(1997). **스포츠 심리학(리더십 측정 검사지에 관한 연구. p.115-150)** 한국스포츠심리학회편, 서울: 태근문화사.

박정근 외 공저(1998). **스포츠 심리학(스포츠상황에서 리더십 효율성의 이론적 연구. p.339-388)** 한국스포츠심리학회편, 서울: 태근문화사.

이용식, 박정근, 안민석, 이정호(1998). **선진국의 체육행정체계와 스포츠 정책**. 서울: 동원사.

박정근 외 공저(2011), 2011야구발전보고서, 야구발전위원회, KBO.

Park, J. K. (2007).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Vo.1 No.1-Vo.14 No.1)*. Asan: International Sport Group.

논문

- 김민, 박정근(2019). GX 지도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대인애착 및 이직의도의 인과적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21(1), 127-136.
- 김성은, 정주하, 김형준, 박종준, 이승현, 박준영, 박정근(2018). 심리적 요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스포츠심리지원이 근대 5종 선수의 스포츠수행전략에 미치는 효과: 사례연구. **코칭능력개발지**, 20(3), 42-49.
- 문영찬, 박정근(2007). 골프용품의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충성도. **코칭능력개발지**, 9(4) 369-382.
- 문익수, 박정근, 최만식, 서지영(1995). 코칭자신감(CCS-2) 척도 개발. **스포츠과학연구논총: 문화체육부**, 253-286.
- 박노준, 박정근(2010). 한국프로야구단의 구단 수익극대화를 위한 전략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 하권(42호), 1401-1415.
- 박정근(1992). 스포츠 자신감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 1-22.
- 박정근(1993). 스포츠 상황에서의 승자와 패자의 원인적 귀인. **고려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스포츠과학논총**, 제 4집, 47-59.
- 박정근(1994). 건강과 운동집착.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5(2), 19-36.
- 박정근(1994). 코칭자신감 척도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5(2), 89-106.
- 박정근(1996). 스포츠상황에서의 집단역동. **스포츠과학**, 제 56호, 48-57.
- 박정근(1996). 농구현장에서의 정신훈련기법. **농구의 길**, 제 21호, 120-128.
- 박정근(1999).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심리적 방해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0(1), 83-104.
- 박정근(2000). 성공적인 스포츠 지도자의 특성과 리더십 유형. **코칭능력개발지**, 2(1), 7-25.
- 박정근(2001). 우수 코치들의 리더십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79-107.
- 박정근(2001).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0(1), 147-163.
- 박정근(2001). 인간관계와 코칭리더십. **코칭능력개발지**, 3(1), 23-38.
- 박정근(2003). An Overview of Conceptual Frameworks in Coaching Confidence.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3), 305-314.
- 박정근(2003). 우수 농구 코치들의 리더십에 관한 질적연구. **체육과학연구**, 14(1), 59-77.
- 박정근(2003). 엘리트 골프선수들의 능력 발달을 위한 가족의 영향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2), 33-64.
- 박정근(2003). 팀 스포츠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및 심리기술 강화 훈련 프로그램 목록 개발. **코칭능력개발지**, 5(2), 145-167.
- 박정근(2004). 미국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5(1), 221-234.
- 박정근(2004). 스포츠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 측정 검사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1), 357-372.
- 박정근(2004). 골프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기술훈련.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4), 1-13.
- 박정근(2004). 선수와 지도자들을 위한 심리상담기법. **코칭능력개발지**, 6(1), 15-30.
- 박정근(2004). 학원 스포츠의 개혁을 위한 장기발전 전략. **코칭능력개발지**, 6(2), 1-27.
- 박정근(2004). 야구 선수들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심리기술 훈련. **코칭능력개발지**, 6(3), 99-111.
- 박정근(2009). 한국 유소년 야구 및 축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상(37), 593-606.
- 박정근(2009). 국내 야구지도자 자격인증제도에 관한 타당성 연구. **코칭능력개발지**, 11(4), 55-63.
- 박정근(2009). 코칭과학(Coaching Science)분야의 세계적인 경향. **코칭능력개발지**, 11(4), 15-24.
- 박정근(2010).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스포츠심리상담 효율성 조사. **코칭능력개발지**, 12(1), 111-123.
- 박정근(2011). 고등학교 우수 코치들이 지도하는 선수 생활(life)기술과 인성발달에 사용되는 전략분석 -한국코치와 미국코치들을 대상으로-. **코칭능력개발지**, 13(1), 3-12.
- 박정근(2011). 국내 스포츠 벤처창업기업의 사례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 46호 상권, 73-85.
- 박정근(2013). 학부모들의 스포츠클럽 선택과 중도포기의 원인 분석 : 리틀야구단 운영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코칭능력개발지**, 15(2), 43-54.
- 박정근, 김지영(2004). 우수 리듬체조 코치들의 리더십에 관한 질적 연구. **코칭능력개발지**, 6(1), 1-14.
- 박정근, 이근춘(2001). 한국프로골프 선수들의 경기력 방해요인에 대한 심리적 대처방안. **코칭능력개발지**, 3(2), 1-19.
- 박정근, 이석준, 김학신(1995). 선수들의 코치리더십 선호도조사. **한국체육학회지**, 34(1),

36-44.

박정근, 장남제(2003). 소프트볼 수비 훈련의 기초. *코칭능력개발지*, 5(2), 37-48.

박정근, 전진효(2002). 코치행동에 관한 엘리트 테니스 선수들의 심리적 불안요인과 대처방안. *코칭능력개발지*, 4(2), 1-12.

박정근, 전진효(2002). 한국테니스 선수들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전략: 호주 및 미국 테니스 코치들의 비교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3), 77-97.

박정근, 전진효(2003). 우수 테니스 선수들의 스트레스요인과 대처방안.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4), 81-112.

박정근, 최만식(1999). 코치 리더십 유형 조사: 충청남도 코치들을 대상으로. *코칭능력개발지*, 창간호, 60-79.

박정근, 최만식(2003). 선수들의 정서관리. *코칭능력개발지*, 5(2), 117-134.

박정근, 최만식, 김성문(2015). 스포츠심리상담이 운동선수들의 운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17(3), 03-16.

박정근, 최만식, 오원재, 최강운, 조정호, 박현석, 한덕수, 유진희, 김성기, 이성균, 윤성효, 오희천, 김석철, 김춘규(2004). 독일 축구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 수비와 공격에 관한 전술전략. *코칭능력개발지*, 6(3), 203-220.

이우만, 박정근(1999). 엘리트 골프선수들의 세부적인 방해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코칭능력개발지*, 창간호, 43-59.

이형권, 박정근(2013). 국내 스포츠 마케팅 기업의 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1(5), 245-256.

장연환, 박정근(2016). 한국 축구심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코칭능력개발지*, 18(2), 55-65.

전욱, 박정근, 주종미(2012). 리틀야구 활성화를 위한 현안 규명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 49호 상권, 297-310.

정경자, 박정근, 김성문(2014). 효과적인 노인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을 위한 질적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3(6), 151-166.

Park, J. K. (1992). Construction of the Coaching Confidence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160.

Park, J. K. (2000). Coping Strategies Used by Korean National Athletes. *The Sport Psychologist*, 14(1), 63-80.

Park, J. K. (2004). A Conceptual Model of Coaching Confidence: Development of a Reliable and Valid Coaching Confidence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5(1), 37-59.

Park, J. K. (2004). The perceived sources of competitive stress in Korean national athle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5(3), 207-231.

Park, J. K. (2007). Hoping to be a role model of coaching institutions in the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1(2), 63-70.

Park, J. K. (2020). Overview of the 22-year history of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14(2), 31-55.

Park, J. K., & Lyle, J (2013). A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s of Korean Coa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7(1), 76-90.

Park, Y. S., Choi, M. S., Bang, S. Y., & Park, J. K. (2016). Analysis of shots on target and goals scored in soccer matches: Implications for coaching and training goalkeepers. *South African Journal for Research in Sport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38(1), 123-137.

김세민, 박정근(2018). 중국스포츠시장 공략을 위한 야구관련 포털사이트 개발 방안. 2018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Abstracts & Proceedings. 제주특별자치도, 로베로호텔 크리스탈룸. 11월9일. p. 108-111.

박정근(1992). 스포츠상황에서의 리더십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성균관대학교 시청각실. 12월 5일.

박정근(1993). 스포츠 상황에서의 승자와 패자의 원인적 귀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추계 학술세미나 초록집. 13-21. 서울대학교 선경경영관 국제회의실. 5월 8일.

박정근(1993). 운동집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 '93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정기심포지움 발표. 13-21.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7 회의실. 11월 27일.

박정근(1994). 리더십. 한국스포츠심리학회편, 스포츠심리학(p. 259-278). 수안보상록호텔. 2월 22일.

박정근(1996). Leadership and Perception. 한국스포츠심리학회 '96 하계 심포지움 논문집. 53-86. 올림픽파크텔, 6월 22일.

박정근(1997). 리더십 측정 검사지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 '97 동계워크샵 논문집. 115-150. 남원시 효산콘도. 2월 22-24일.

박정근(1998). 스포츠 현장에서 심리적 기법의 중요성. '98 스포츠 과학 세미나 논문집 9-23. 국군체육부대. 5월

박정근(1999). 유소년 스포츠의 세계적 동향.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35-246.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 10월 8일.

박정근(1999). 성공적인 스포츠지도자의 특성과 리더십 유형. 코칭능력개발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움. 1-22.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11월 20일.

박정근(2001). 인간관계와 코칭리더십.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00 동계워크샵 논문집. 39-59.

대전광역시, 유성로얄호텔. 2월 22일.

박정근(2001). 코치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략. 충남체육회 체육지도자 워크샵. 13-40. 천안, 상록리조트. 8월 15일.

박정근(2002). 골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기법.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01 동계워크샵 논문집. 103-130. 대전광역시, 충남대. 2월 19일.

박정근(2003).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중구, 한국시민연대토론회. 한국프레스센터. 4월 8일.

박정근(2003). 스포츠심리학 강의 계획서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02 동계 워크샵 논문집. 55-86. 2월.

박정근(2004). 스포츠리더십, 2004 스포츠 건강과학 공동 학술대회. 제5회 운동사대회,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7월 4일.

박정근(2004). 코치들을 위한 상담기법: 코칭 리더십 향상 기법, 제1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연수. 한국스포츠심리학회,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 7월 24일.

박정근(2009). 코칭과학(Coaching Science) 분야에서 스포츠심리학의 역할, 2009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스포츠심리학 교육, 연구 및 실천의 성과와 전망. 충남, 금융투자교육원. 5월 29일.

박정근(2009). 제도운영분과 주요추진업무계획 발표, 야구발전실행위원회 워크샵. 한국야구위원회, 서울 힐튼 호텔. 11월 5일.

박정근(2009). 스포츠코칭 과학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정기 학술세미나. 서울, 올림픽파크텔(2층 서울호), 12월 1일.

박정근(2009). 스포츠 리더십, 2010 유소년 지도자 세미나. 한국야구위원회, 아산, 도고글로벌콘도. 12월 16일.

박정근(201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

대학 설립·운영에 따른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 11월 26일.

박정근(2012). 스포츠 창업, SM-PAIR 6회 컨퍼런스.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1월 19일.

박정근(2018). KCDC를 20년간 끌어오면서 : 스포츠 코칭의 과거와 미래. 2018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Abstracts & Proceedings. 제주특별자치도, 로베로호텔 크리스탈룸. 11월9일. p. 37-56.

박정근, 김기담, 최만식(2018). 야구선수 진로 탐색연구. 2018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Abstracts & Proceedings. 제주특별자치도, 로베로호텔 크리스탈룸. 11월10일. p. 174-175.

박정근, 김세곤, 양명환, 박창범, 조성진, 이갑숙, 김민, 박윤희, 정경자, 전욱(2018).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 민간자격연수의 발전방안. 2018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Abstracts & Proceedings. 제주특별자치도, 로베로호텔 크리스탈룸. 11월9일. p. 76-77.

박정근, 김학신, 박영민(1995). 엘리트 골프선수들의 최상수행에 관한 연구. 제 33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153-165.

박정근, 문익수, 최만식(1995). 국가대표선수들의 심리적 방해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95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115-128.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1월 18일.

박정근, 이건원(2018). KCDC가 축구국가대표 제2트레이닝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2018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Abstracts & Proceedings. 제주특별자치도, 로베로호텔 크리스탈룸. 11월9일. p. 85-92.

박정근, 황승현(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의 역사와 미래 발전방

안. 2018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Abstracts & Proceedings. 제주특별자치도, 로베로호텔 크리스탈룸. 11월9일. p. 60-61.

송신영, 최만식, 박정근(2018). 프로야구 유망주 투수들의 경기력 저하에 대한 제약요인 탐색. 2018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Abstracts & Proceedings. 제주특별자치도, 로베로호텔 크리스탈룸. 11월9일. p. 142-144.

임호균, 박정근(2018). 야구학과와 함께하는 야구시민구단 및 학점은행제 독립야구단 창단 사례 연구. 2018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Abstracts & Proceedings. 제주특별자치도, 로베로호텔 크리스탈룸. 11월9일. p. 97-100.

Meli, P., & Park, J. K (2008). Overview for the Global Coaches Social Network (GCSN). *KCDC 10th Anniversary Global Conference & ICCE Asian Regional Coach Conference*. Hoseo University, Asan, Korea. November 7-8, p. 47-52

Park, J. K. (1992). Construction of Coaching Confidence Scale. The '92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for the 4th Seoul Olympic Anniversary, *Proceeding of Korea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117-120. Olympic Parktel, Seoul, Korea, September 3-5.

Park, J. K. (1994). Some causes and recommendations of sport aggression/violence. The '94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for the 6th Seoul Olympic Anniversary, *Proceeding of Korea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758-770. Olympic Parktel, Seoul, Korea, September 8-10.

Park, J. K. (1997). Sources of Psychological Obstacles in Korean national Athletes: An Exploratory Study. *ICHPER.SD 40th World Congress Proceeding*. 339-343. Kyunghee Univ. Suwon, Korea, July 4-9.

Park, J. K. (1998). The Investigation of the coaching certification and education

programs around the world. 475-492. *THE 98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PROCEEDINGS I*. 475-492. Olympic Parktel, Seoul, Korea, August 20-22.

Park, J. K. (1999). A survey of youth soccer program features in Korea. Youth sports in the 21st century: Organized sport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elebrating 20 years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Youth Sports At MSU*. East Lansing, Michigan, U.S.A, May 23-26.

Park, J. K. (2001). Coaching leadership in archery. *THE 4th Asian Archery Coaching Seminar & Workshop by Asian Archery Federation*. 9-21. Hyundai Seongwoo Resort, Wonju, Kwangwondo, Korea, May 24.

Park, J. K. (2003). Coaching Development in Korea. Petro-Canada Sport Leadership sportif. *2003 ICCE Global Coach Conference*. Sheraton Vancouver Wall Centre, Vancouver, Canada, October 29-November 2

Park, J. K. (2005). Coaching Leadership of Successful Coaches in Korea. *2005 ICCE Global Coach Conference*, Sport House, Hong Kong. February 25-28.

Park, J. K. (2007). Categorization of Coaching Science Contents Based on International Coaching Journals and Papers, *2007 ICCE Global Coach Conference*. Beijing Sport University. Beijing, China, August 30-September 3

Park, J. K. (2008). Proposed International Coaching School (ICS) at Hoseo University. *KCDC 10th Anniversary Global Conference & ICCE Asian Regional Coach Conference*. Hoseo University, Asan, Korea. November 7-8, p. 158-163.

Park, J. K. (2009). A project on the revolution of school sport through the balance of athletics and academics in Korea, PETRO-CANADA SPORT LEADERSHIP SPORTIF VANCOUVER 2009. *7th ICCE Global Conference*, Sheraton Vancouver Wall Centre,

Vancouver, Canada, November 12-15.

Park, J. K. (2011). Coaching Leadership of Successful Coaches in Korea, *8th ICCE Global Conference*. Paris, France, INSEP, August 25-27.

Park, J. K. (2015). New National Sport Leader Training Institutes in Korea: focus on a youth sport leader program, *10th ICCE Global Coach Conference*. Vierumaki Sport Institute, Vierumaki, Finland, August 23-25.

Park, J. K. (2019). Global Coaching Programs in Korea in the Past and Future. *12th ICCE Global Coach Conference 2019*, Nippon Seinen-Kan Hall & TEPIA. Tokyo, Japan. October 30-November 1.

Park, J. K., & Kim, S. G. (2018). Case Study on The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for Entering KBO League for Independent Baseball Club Players. *The 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South Pacific Association of Sport Psychology 2018 ASPASP Global Conference*. Keimyung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June 29-July 3.

Park, J. K., & Han J. W. (1997). Comparison of Coaching Certification and Education Program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IESEP SINGAPORE 1997 ABSTRACT*. 95. Nanyang Technology Univ. Nanyang, Singapore, Dec. 3-5.

Park, J. K., & Woo, S. C. (2008). Role of the baseball academy in the Gangjin Baseball Park. *KCDC 10th Anniversary Global Conference & ICCE Asian Regional Coach Conference*. Hoseo University, Asan, Korea. November 7-8, p. 80-81.

연구비 수혜 실적

번호	연구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시작·종료일)	연구비 (천원)	참여형태
1	문화체육부 스포츠과학 전문분야 (연구 지원비)	코칭자신감(CCS-II) 척도 개발	1994.5- 1995.5	4,060	공동 연구자
2	조선일보사 지원	스포츠세계를 보여주는 매체(http://kidnet.chosun.com). 인터넷 교육매체 개발	1996.1-7	6,000	책임 연구자
3	호서대학교	선수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1996.11- 1997.07	2,700	책임 연구자
4	학술진흥재단 (국제학술회의)	Comparison of coaching certification and education programs between Korean and other countries	1996.12- 1997.12	2,000	책임 연구자
5	학술진흥재단 (신진)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심리적 방해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997.08- 1999.02	6,500	책임 연구자
6	문화관광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지 원)	선진국의 체육행정체계와 스포츠정책	1998.04- 1998.12	10,000	공동 연구자
7	학술진흥재단 (선도)	우수 코치들의 리더십에 관한 질적분석 연구	1999.11- 2000.10	6,500	책임 연구자
8	호서대학교	농구코치들의 농구 코칭 리더십에 관한 연구	2001.05- 2002.02	5,000	책임 연구자
9	학술진흥재단 (지방대)	엘리트 골프선수들의 능력 발달을 위한 가족의 영향력.	2001.12- 2002.11	6,500	책임 연구자

10	호서대학교	스포츠 클리닉을 통한 수익 창출 및 학교 홍보	2002.12- 2003.11	2,000	책임 연구자
11	호서대학교 (특별학술비)	코칭 자신감의 개념적 Framework에 대한 연구	2003.06- 2003.08	5,000	책임 연구자
12	학술진흥재단	학원스포츠의 개혁을 위한 장기발전 전략 : 충남·대전지역을 중심으로	2003.09- 2004.08	15,000	책임 연구자
13	호서대학교	스포츠 클리닉을 통한 수익 창출 및 학교 홍보	2003.12- 2004.11	2,000	책임 연구자
14	호서대학교	스포츠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 측정 검사지에 관한 조사연구	2004.01- 2004.12	5,000	책임 연구자
15	호서대학교 (특성화 사업연구비)	코칭능력개발센터	2004.02- 2005.01	14,000	책임 연구자
16	호서대학교	한국형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소년 축구 클럽을 중심으로	2004.08- 2005.02	3,000	책임 연구자
17	호서대학교	한국유소년 야구 및 축구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2007.01- 2007.12	5,000	책임 연구자
18	호서대학교 (교내연구비)	프로야구선수들을 위한 스포츠심리상담 효율성 조사	2009.02- 2010.01	5,000	책임 연구자
19	일반기초연구 과제 한국학술 진흥재단	고등학교 우수 코치들이 지도하는 선수 생활(life) 기술과 인성발달에 사용되는 전략분석 : 한국코치와 미국코치들을 대상으로	2009.11- 2010.10	28,750	책임 연구자

20	실험실창업 창업진흥원	국내 최고의 스포츠 전문사이트 구축을 통한 스포츠 교육 및 에이전트사업	2009-2010	39,000	책임 연구자
21	(주)인터내셔널 스포츠그룹	스포츠와 운동심리학 교재개발	2010.06- 2010.12	5,000	책임 연구자
22	호서대학교(교내연구비)	국내 스포츠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전략분석	2010.06- 2011.05	5,000	책임연구 자
23	호서대학교 (교내연구비)	유소년스포츠 지도자 코칭이 학부모들의 스포츠클럽 선택과 탈퇴에 미치는 영향 : 리틀야구단을 중심으로	2011.08.0 1- 2012.07.3 1	5,000	책임 연구자
24	호서대학교 (벤처연구비)	새로운 스포츠 벤처기업 사업모델 개발 및 현장적용	2011.10- 2013.09	120,00 0	책임 연구자
25	호서대학교 (기초학문연구비)	스포츠심리상담이 운동선수들의 운동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2013.03- 2014.02	5,000	책임 연구자
26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 스포츠트레이너 미국 취업 연수	2011.03.2 1- 2011.09.0 7	200,00 0	공동 연구자
27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 야구선수 미국 취업연수	2011.03.2 1- 2011.09.0 7	50,000	책임 연구자
28	대한축구협회 (용역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칭) 기본계획안	2018.05- 2018.06	30,000	책임 연구자



KCDC 22년 역사

박정근 원장은(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을 22년간 이끌어오면서 스포츠 코칭의 과거와 미래를 재조명하고 스포츠 코칭 학문을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 1998년 11월 7일 창립한 이래 2021년 현재까지 KCDC에서 실행해왔던 연혁별 프로젝트를 주제별로 소개하고 향후 미래 스포츠 코칭 학문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KCDC의 설립 목적은 코칭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스포츠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에 있는 코치 및 지도자들에게 현장감 있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 22년간 크게 12가지 주제별 실행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발간사업

- 코칭능력개발지(등재지)
-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국제학술지)
- Coach(잡지)
- 각종 서적발간(8종)
- 현대사회와 스포츠(1999.3.2)
- 농구(1999.3.2)
- 소프트볼 초.중등교원연수지도서(2001.7)
- 테니스교본(2002.1.10)
- 응용코칭론(2004.2.29)
- 유소년 스포츠지도서(초급)(2009.6.25)
- 유소년 스포츠지도서(2급)(2010.6.15)
- 스포츠와 운동심리학(2013.9.9)



한국연구재단등재지



국제학술지 IJCS



Coach 매거진



각종서적

2. KCDC 주최 및 주관 학술세미나

-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창립1주년기념 심포지움
- 월례 코칭 세미나
- KCDC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ICCE 아시아지역 국제학술대회 개최
-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3. 대학원설립

- 호서대 코칭능력개발대학원(현 스포츠과학대학원) 축구지도자학과.야구지도자학과(현 축구학과.야구학과) 설립

4. 민간자격연수

- 유소년스포츠지도자, 노인체육지도자,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레크리에이션, 캠퍼스인증코치, 각종댄스자격연수 등 17개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5. 연수

- 소프트볼 교사직무연수
- 스포츠와 운동전문가(Sports & Exercise Specialist: SES)
- 이충희 키 성장클럽 지도자연수

6.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 및 지부.지회 설립

- 호서대 및 서울사무국, 인천지부 설립 이후 현재 15개 지역센터.지부.지회 설립

7. CDC우수코치시상식

-1회 수상자(2000.9.1. 서울 올림픽파크텔 목련룸): 김철용(배구, LG 감독) 한명수(탁구, 천안중앙고 감독)



제 1 회 CDC우수코치 시상식(2001년)

-2회 수상자(2001.3.23. 서울 올림픽파크텔 진달래룸): 장영술(양궁, 상무 감독), 조관섭(축구, 풍생고 감독)

-3회 수상자(2002.12.7., 서울 송도병원 대강당): 우성구(육상, 영남대 감독)

8. 지도자 강습회

-서아람 프로 초청 골프クリニック

-국군체육부대 지도자 특강, 대한철인3종경기 협회 코치아카데미 강습

-충남체육회지도자, 경남체육지도자 강습회

-천안시청 볼링팀, 한화이글즈 프로야구단 심리상담

-평택여자소프트볼팀, KPGA 신인선수 강습



서아람프로 초청 골프 클리닉



충남체육회지도자 강습회

9. 국제교류

-미시간주립대(MSU) 유소년스포츠연구원 자매결연

-스탠포드대 긍정적코칭협의회(PCA)와 교류

-캐나다코칭협회(CAC) 협정

-국제스포츠지도자프로그램(International Sports Leader Program: 미시간주립대 연수 프로그램)

-독일 헤네프 축구학교 연수

-국제코칭탁월성협의회(ICCE) 가입(B 멤버)된 코칭 분야 한국대표기관으로 국제학술대회 참가(미국, 캐나다, 홍콩, 중국, 프랑스, 핀란드, 일본 등)

10. 국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학술지지원사업 선정

-인턴지원사업 선정

-축구국가대표 제2트레이닝센터(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선정

11. 산학연관 협동 프로젝트

-스포츠아로마, 스포츠닷컴, 한미양행, 클릭벨류, 스포츠아트, 이마라톤, 다트피시코리아, 기반테크놀로지, 노아테크놀로지, 강진베이스볼파크, 광주보건대, 한국체육대, 호서대

12.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ISG) 공동사업

- ISG설립 (2009)
- 호서대 리틀야구단
- 하이서울 온가족 연식야구 한마당 개최
- 박노준 야구클리닉
- 조문주 농구교실
- 김정남 축구 클리닉
- 국비지원 해외취업연수(미국현지) 트레이너과정
- 미국야구 취업연수
- 중기청 창업프로그램 선정
- 스포츠챔피언에게 배우는 성과창출전략 콘텐츠 제작
- 하재훈 축구아카데미
- 제2회 대한민국야구박람회 주관
- KING' S ENGLISH 영어캠프
- FIFA Players' s agent 자격시험대비반 운영
- 마해영 사회인야구
- 천송이 리듬체조 및 서하경 프로골프 선수 등 매니지먼트 계약
-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창단
- 호서대 하계.동계 단기현장실습
- 문체부지정 호서대 청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원 선정

KCDC와 ISG의 미래방향에 대한 목표는 융복합 글로벌시대에 맞는 글로벌 코칭 연구.교육.비즈니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스포츠 코칭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코칭 지도자를 육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ISG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스포츠산업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께 할 해외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아래와 같은 공동프로젝트를 실행한다.

- IJCS 투고
- 축구학과, 야구학과, 스포츠산업전공에 코치 및 지도자 입학
- 17가지 민간자격증 활용
- KCDC 해외코칭능력개발센터, 지부, 지회 설립
- 한국스포츠기관 연결 및 네트워크 공유
- 국제교류
- 해외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스포츠아카데미 운영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활용
- 코칭(스포츠과학 및 스포츠산업 포함) 관련 인터넷 원격교육 극대화
- 기타



2016년 서초동 사무실 화재



▲ 2016.11.30. 오후 12시경 화재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당시의 화재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며, 수많은 지식과 역사를 지닌 문서와 자료들을 함께 잃었다. 화재로 인해 연천미라클 야구단을 감독에게 넘기고 사무실마저 천안아산으로 옮기는 ISG의 터닝포인트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코칭능력개발지

1999년에 창간하여, 2004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2012년에 등재지(KCI)가 되었으며 년4회(3.6.9.12월말) 발간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교수 및 강사들이 투고하고 있으며 평균 15-25편 정도가 게재되고 있다. 분야는 코칭(인문.사회과학), 코칭(자연과학), 코칭(융합) 3분야이며 원고마감일은 해당논문 발간 두달 전이다.



코칭능력개발지 표지사진 변천사

코칭 논문관련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유소년 코칭
- 엘리트 코칭
- 노인들을 위한 코칭
- 일반 지도자들을 위한 코칭
- 장애인 코칭
- 경기력 향상(심리)
- 경기력 향상(트레이닝)

- 경기력 분석
- 기술훈련 및 전술전략
- 선수 재활
- 스포츠 코칭 정보기술
- 코치들을 위한 관리
- 스포츠 트레이닝을 위한 새로운 경향
- 코치 교육
- 스포츠 코칭 진로
- 코칭 윤리 및 철학
- 통계 사용법
- 스포츠 코칭에서의 사회적 측면
- 코칭과 영양
- 코칭과 여성
- 코칭과 환경
- 기타

논문 투고 및 운영관리 방안:

- 본부에서는 우수논문 투고자 다수 영입 및 관리 필요
- 질적,양적 논문 고려. 편중 투고 지양, 전국 센터에서 골고루 투고 권장.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질적 평가 강화 예상
- 각 지역센터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심사위원 다수 추천(이름, 소속, 학문전공, 실기전공, 전화번호, 이메일)
- 현 코칭 경영을 코칭 융합으로 소주제 제목 변경하여 융합(경영, 교육, 문화, 복지, 리더십, 융합 등) 관련 코칭 논문들도 많이 투고될 수 있도록 유도. 한국연구재단도 체육예술이 융합분야에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등재지 유지(논문편수, 년 몇 번 발행하는가 등)에도 도움이 된다.
- 타 학술지처럼 재정긴축(확충)을 위해서는 논문투고를 늘리고, 2021년부터 논문발간은 온라인발간(저자에게만 하드카피 제공)을 해야한다. 연구재단 평가이후 편집위원장과 논의 후 발간회수 늘림(담당직원 확보)
- 전국 관련 교수들에게 투고 권유 이메일 발송: 체육대학교수, KCDC 임원진, 자주 게재하는 연구자, 박정근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 등
- 학회지에 게재할 광고 확보
- 논문게재 교수들 투고회원 대신 정회원(이사) 수락 유도
- 22년간 투고했던 모든 투고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마케팅을 통해 년 투고 가능성 여부 확인 후 보고서 작성.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IJCS)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IJCS)를 발간한 배경과 역사, 14년간 발간한 논문 주제 및 게재수 등을 소개하고 유명 국제학술지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IJCS는(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에서 발간하는 공식 국제학술지이다. 현재 저자가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고 있으며, 2007년 1월에 첫 발간하여 지금까지 년 2회(1월,7월) 발간하고 있는 14년의 역사를 지닌 국제학술지이다. KCDC는 세계적인 코치교육단체인 국제코치교육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ach Education, 지금은 International Council for Coaching Excellence: ICCE 로 명칭 변경)와 공동으로 공식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2007년 첫 발간시에는 ICCE의 재정지원을 받아 KCDC와 ICCE와 공동발행을 하다가 2014년(8권1호)부터 KCDC에서 단독으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국내 체육 관련 학회 중에서 IJCS와 같은 국제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는 손꼽을 정도이고, 코칭 관련 국제학술지로는 국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는 IJCS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발간한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and Coaching(2006년 발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국제학술지이다.



발간배경을 설명하자면, 2004년 홍콩 ICCE 국제회의에서 박정근 KCDC 원장이 코칭 관련 국제학술지 발간 준비 중 ICCE와 공동 발간을 잔 베일 ICCE 회장에게 공식 제안한 후 두 단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학술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국내학자가 주도하여 국제학술지를 발간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각각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IJCS는 동료심사 저널이며, 코칭 영역과 주제로 APA유형에 따라 영어로만 발간한다. 게재 논문의 주제들로는 스포츠 코칭, 코치 교육, 코칭과 영양, 코칭과 여성, 코칭과 환경, 코칭 윤리 및 철학, 스포츠코칭 직업, 훈련, 재활, 경기력분석, 기술훈련 및 전술전략, 스포츠심리, 운동생리, 운동역학, 스포츠교육, 스포츠의학, 스포츠법, 스포츠매니지먼트, 스포츠IT, 유소년스포츠, 생활스포츠, 노인스포츠, 전문스포츠, 장애인스포츠, 건강과웰니스, 코칭의 사회적 측면, 통계의 효율적 사용 등이다. 초기에는 저자 및 회원들에게 논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2017년부터는 PDF 파일만을 제공해주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학자와 코칭 관련 기관장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초기 편집위원이 22명(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중국, 브라질)이었으나 현재는 40명(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중국, 남아공, 스위스, 이집트,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보스니아, 덴마크, 타이완, 홍콩, 뉴질랜드)으로 점점 확대하여 세계적인 코칭 전문 학술지로 발간되고 있다. 14년간 28회 발간하여 총 122편(각 권 평균 4.4편)의 논문이 게재 되고 있으나 좀 더 많은 논문이 게재되기 위해서는 Scopus 등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IJCS 단독 웹사이트 개발이 시급하다.

COACH

우수논문 투고 전략:

- 기존 투고자들에게 투고 권유 이메일 발송(기존 투고요령 파일 사용)
- 우수논문 투고 가능한 기관(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해서 발간. 예, 미시간주립대학교 유소년스포츠연구원, IJCS 편집위원, 대학, 스포츠협회 및 연맹, ICCE(국제코칭협회의) 연구자들, 국내대학 등
- 국가별(대륙별) 대표 편집위원 지명: 편집위원들에게 해당 국가에서 최소 논문 1-2편은 필히 투고하겠다는 승인요청서 보내고 각 국가별(대륙별) 대표 편집위원들 지명
- 광고: 전세계 대학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구독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광고 유치
- IJCS 이슈별료, 볼륨별료, 또는 전체 통으로 판매 전략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의 표지사진

'COACH'는 KCDC의 공식 잡지로서 현장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코칭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우수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녀야 할 특성 및 자질들에 관한 인터뷰 내용, 코칭 사이언스(트레이닝, 역학, 심리학 등), 여성스포츠 칼럼, 국내외 우수 코치들의 특별 칼럼, 선수들이 원하는 코치상에 관한 내용, 각 종목별 기술훈련 및 전술전략 등을 실어 현장 지도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99년 1월 8일 창간호부터 2008년 KCDC 10주년기념학술대회 스페셜호(총36권)까지 년4회 지속적으로 발행해 오다가 총36권 이후 발간 중단 하였다. 그러다 10년 후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스페셜호(총37권) 발간이후 앞으로는 최소 년 1-2회 발간 할 예정이다. 이번 38권부터는 Coach-Leader의 표지 타이틀로 발행한다.

지금까지 표지 화면으로 인터뷰해주신 지도자분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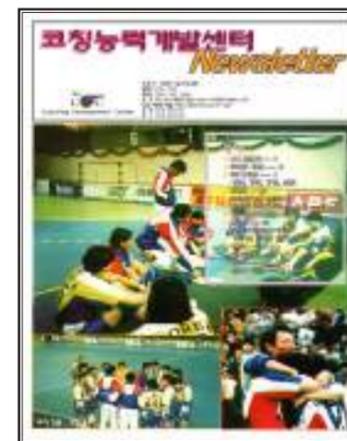
1. 밥 나이트(농구)



2. 이수옥(싱크로나이즈 수위밍)



3. 최희암(농구)



4. 정형균(핸드볼)



5. 오현주(소프트볼)



6. 박성화(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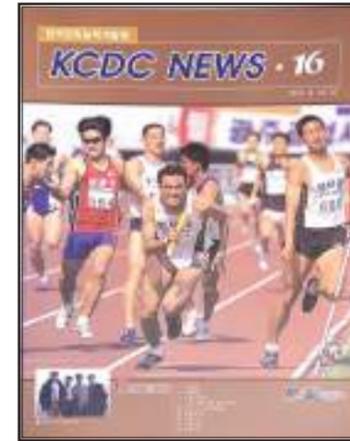
7. 김철용(배구)



8. 한명수(탁구)



9. 장영술(양궁)



16. 강성구(육상)



17. 김상열(필드하키)



18. 현정화(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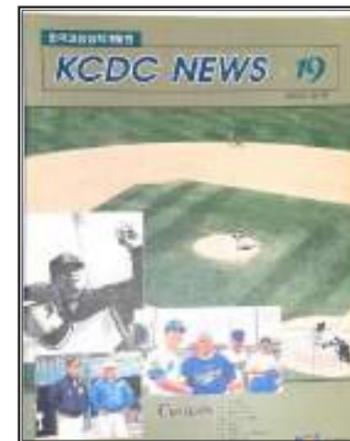
10. 김태환(농구)



11. 서아람(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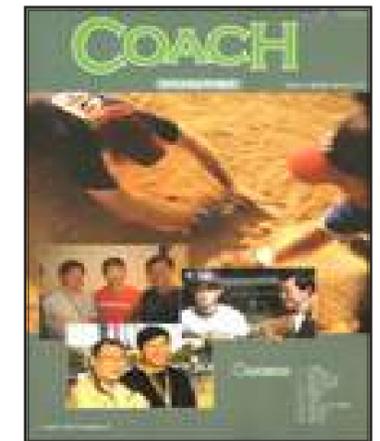
12. 주원홍(테니스)



19. 김성근(야구)



20. 김기훈(쇼트트랙)



21. 허구연(야구)



13. 김진(농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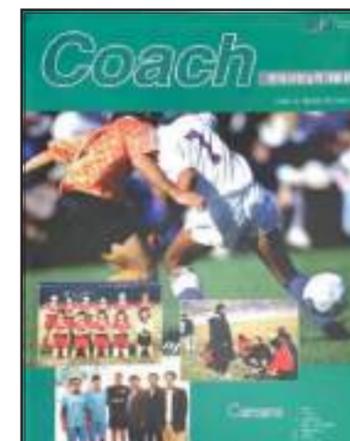
14. 거스 히딩크(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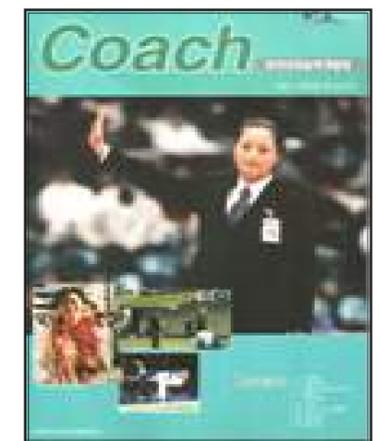
15. 황규훈(마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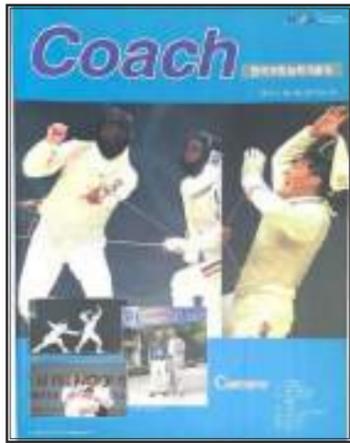
22. 김지희(리듬체조)



23. 오희천(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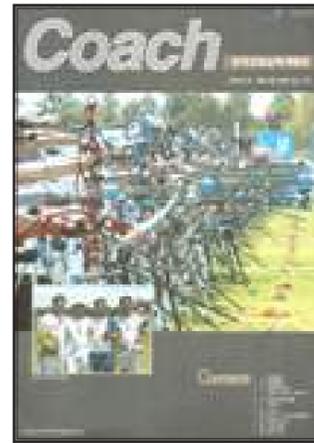
24. 김미정(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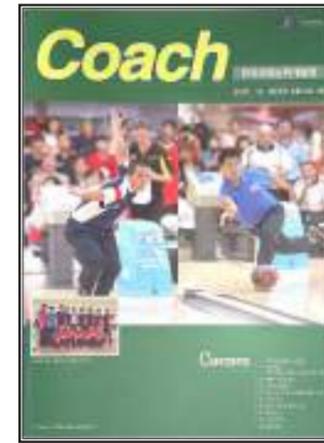
25. 김성렬(펜싱)



26. 박선미(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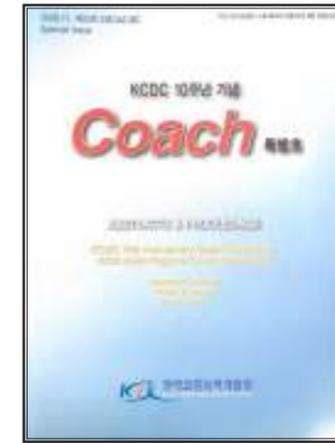
27. 박성수(양궁)



34. 남상철(볼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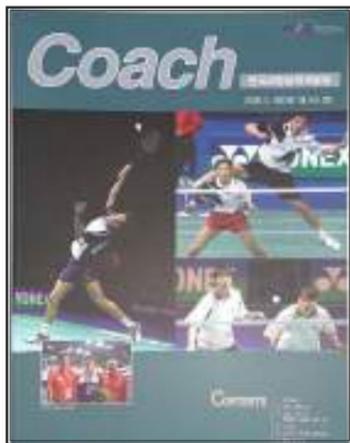
35. 하숙례(농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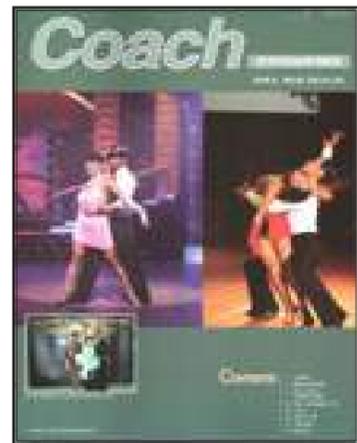
36. KCDC 1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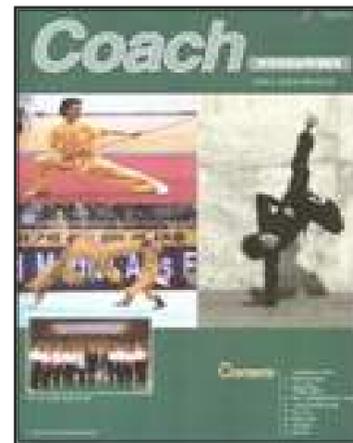
37. KCDC 2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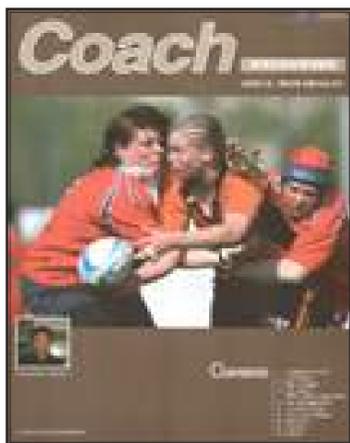
28. 성한국(배드민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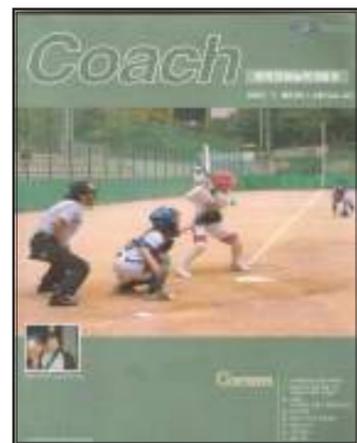
29. 김미현(댄스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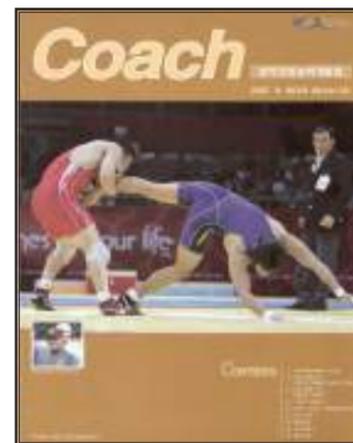
30. 박덕수(유수)



31. 안덕균(러비)



32. 이후정(소프트볼)



33. 김인섭(레슬링)

2021. 3. 2 제26권 1호 (Vol.38)

KCDC 한국고정능력개발원 (KCDC)

Coach

-Leader

KCDC 원장 박정근교수 정년퇴직기념







Contents

- 박정근 교수의 리더십 인터뷰
- KCDC의 22년 역사 - 12가지 주제별 프로젝트 - ISG와 공동 프로젝트
- 박정근 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 박정근 교수의 연봉기사
- KCDC 소식 및 회원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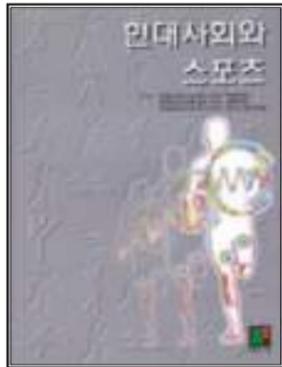
※ Coach는 KCDC 공식잡지입니다.

38. 박정근(코칭 리더십): Vol. 38 Coch-Leader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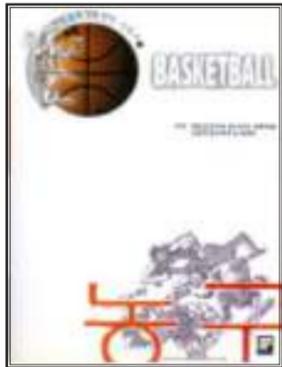
각종 서적

지금까지 KCDC에서 발간된 서적으로는 8권임

1. 현대사회와 스포츠(1999.3.2)
2. 농구(1999.3.2)
3. 소프트볼 초.중등교원연수지도서(2001.7)
4. 테니스교본(2002.1.10)
5. 응용코칭론(2004.2.29)
6. 유소년 스포츠지도서(초급)(2009.6.25)
7. 유소년 스포츠지도서(2급)(2010.6.15)
8. 스포츠와 운동심리학(201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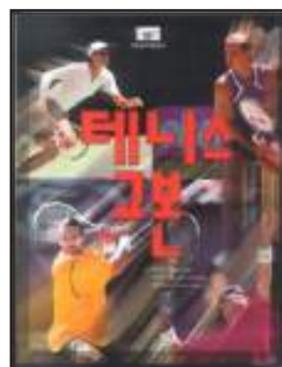
현대사회와 스포츠



농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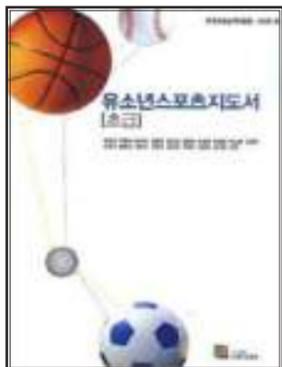
소프트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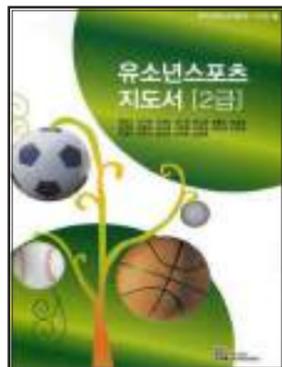
테니스 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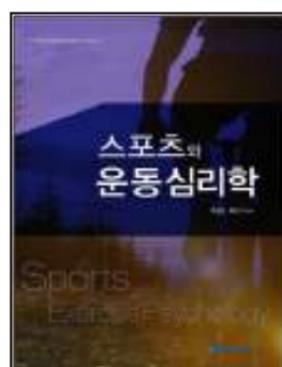
응용 코칭론



유소년스포츠지도서[초급]



유소년스포츠지도서[2급]



스포츠와 운동심리학

KCDC 주최 및 주관 학술세미나

1)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1999.2.25, 장소: 호서대 신공학관)

- “코칭능력개발을 위한 정신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 세 분을 초청하여 강연을 가짐. 초청 인사는 스칸디나비아 국제대학 Lars-Eric Unestahl 박사, 빅토리아대학의 Mark Andersen 박사, 일본 기후현 스포츠센터 멘탈트레이너 Riho Tonoue 박사였다.



2)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9.1.20, 장소: 고려대 4.18 기념관)

- “성공적인 스포츠 수행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 새 천년의 코치상”이라는 주제로 체육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발표자는 박정근, 박명기, 김기진, 토론자는 허구연, 조문주, 정재용, 정형균, 이용식, 주원홍, 이용우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KBS 스포츠뉴스에 방영되었다.



3) 월례학술세미나(월례 코칭 세미나) 실시

(1) 제1회 월례학술세미나 실시(2002.6.15 서울 송도병원)

-코칭 사이언스(유소년 코칭, 엘리트 코칭, 노인 코칭)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길환, 최용수, 지용석 선생님들의 발표와 40여명의 현장지도자,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2) 제2회 월례학술세미나 실시(2002.7.20 서울 송도병원)

-이수옥, 최요섭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다.

(3) 제3회 월례학술세미나 실시(2002.10.5 고려대학교)

- '마라톤'에 관련된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명화, 김기진, 이의수, 주유진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다.

(4) 제4회 월례학술세미나 실시(2002.12.7 서울 송도병원)

-우성구, 류호상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다.

(5) 제5회 월례학술세미나 실시(2003.4.26-27 충남 도고 토비스콘도)

-20여 명이 참석하여 결산보고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6) 제6회 월례학술세미나 실시(2004.4.17 호서대학교)

-박정근, 지용석, 한필수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다.

4) KCDC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ICCE 아시아지역 국제학술대회 개최 (2008.11.7.-8 호서대학교)

-국제학술대회는 KCDC가 주최하고 호서대학교와 ICCE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였다. "Research and Practice in Coaching and Coach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30여명의 외국학자와 100여명의 국내학자 및 스포츠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외 발표자로는 Dawn Penney, Andrew Dawson, Steven Rynne(호주), Tania Cassidy(뉴질랜드), Andy Abraham(영국), Julia Walsh(아일랜드), Alan Lynn(스코틀랜드), Ladislav Petrovic(헝가리), Myrian Nunomura(브라질), Teruya Watanabe(일본), Xue Shaoduo(중국) 등 유명학자들도 많이 참석하였고, 국내 발표자로는 박정근, 김기진, 김명화, 정청희, 이명천, 이종하, 이광환, 권오상, 박근만, 조문주 등이 참석하였다. 28편의 논문, 9편 포스터, 전체 37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ICCE 아시아지역국제 학술대회사진



5)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스포츠코칭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KCDC, 제주코칭능력개발센터, 제주대학교(체육학과, 해양스포츠센터), ISG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학술대회로 2018년 11월9일-10일 1박2일간 열렸다.

- 150여명의 국내학자 및 스포츠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주요 발표자로는 박정근(호서대), 김기진(계명대), 황승현(경북대), 양명환(제주대), 조성진(중부대), 김민(GX100), 연기영(동국대), 박영수(AFC), 임호균(호서대), 이창열(호서대), 김미선(숙명여대), 박윤희(숭실대), 추종호(남서울대), 박미정(상지대), 오윤경(창원대), 박광진(PKJ스포츠심리연구소), 최만식(가톨릭관동대), 박창범(상지대), 정원정(상지대) 등이 발표하였다. 23편의 논문, 12편 포스터, 전체 35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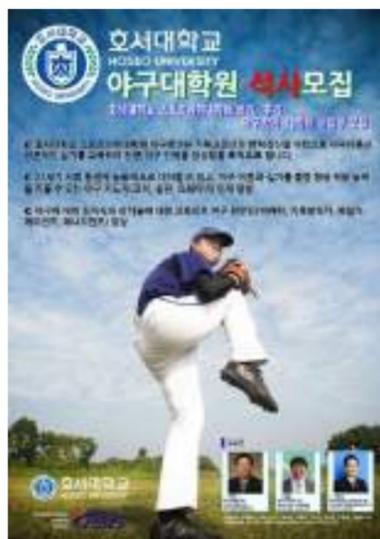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설립 당시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나은 코치(better coach)를 통해 더 나은 스포츠(better sport)”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KCDC를 설립하였다. 지난 20년간 현직 교수로 있으면서, 한 기관을 20년간 끌어온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큰 과오 없이 이끌어온 것 같다. 앞으로는 KCDC를 코칭 전문화, 지역센터·지부·지회 활성화, 국제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또한 사업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동안 원장으로서 KCDC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과 함께 WORKING TOGETHER 하면서 KCDC를 운영해왔다. 특히, 코칭능력개발지 발간(김기진교수), IJCS 발간(황승현교수), 자격연수(지역센터 및 지부 회장: 양명환, 박창범, 조성진, 김민, 김세곤, 이갑숙, 박윤희교수), 야구단 창단 및 야구관련 프로젝트(호서대 야구학과 지회), 그리고 지역센터·지부·지회 설립을 통한 다양한 코칭 교육 관련 프로젝트와(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와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함께 만들어왔다. 앞으로 KCDC가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 속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에 의하여 관련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사장 저녁 만찬을 제공해주셨던 제주대학교 송석연 총장님과, 제주도체육회 부평국 상임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직위원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제주대 양명환 교수님, 행사를 위해 현금 기부를 해주신 동국대 오현옥 교수님, 김민 GX100피트니스지도자협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호서대학교와 연계한 코칭 프로그램 실시: 국내 첫 코칭대학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설립



1) 축구지도자학과(현재는 스포츠과학대학원 축구학과로 변경)

-호서대학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축구지도자학과 석사과정은 2001년 8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2002년 3월에 첫 신입생 20명을 선발하였다. ① 등록금은 2004학년도 기준으로 2,043,000원, 첫 학기에만 입학금 62만원 추가 납입 ② 학기는 5학기 ③ 학위는 체육학 석사 ④ 졸업학점은 24학점+논문. 논문대신 해외연수 또는 개인연구(individual study)로 대체가능, 매학기 3과목 6학점 수강하면 4학기에 마칩 ⑤ 수업방식은 호서대 아산캠퍼스에서 이론과 실기수업 ⑥ 강사는 대학교수들과 유명 지도자들이 특강형식으로 수업 ⑦ 수업일자와 수업시간은 매주 월요일 야간(16주 수업), 18시-23시(1과목 2학점은 1시간 반 강의로 하루에 3과목 수업, 중간 10분 휴식) ⑧ 수업내용은 코칭심리학, 트레이닝론, 코칭론, 실전코칭, 코칭영어, 세미나, 기술훈련 및 전술전략, 해외연수 ⑨ 해외연수는 축구학교연수, 국제코치교육협의회(ICCE) 연수, 또는 기타 관련 해외연수(미국, 캐나다 등)는 지속적으로 참여가능 ⑩ 필요서류는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사진, 전형료. 특징은 ① 멘토(mentor) 제도: 대학원생들을 위해 전담교수 및 전담지도자가 개인적으로 항시 조언 ② 결석시 인터넷 수업보강 ③ 졸업 후에도 코칭능력개발대학원에서 개설하는 모든 과목 무료 수강 ④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킹 유지 ⑤ 지도자들이 한국 스포츠 문화와 시스템 개선 주도 ⑥ 외국 기관과의 자매결연으로 지속적인 정보 공유 ⑦ 평생교육 시스템 유지(학술연구사업, 교육사업, 간행사업, 학술교류, 코치의 권익보호, 국제코칭스쿨 설립 주도) ⑧ 석사학위 프로그램은 축구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수정 가능, 축구지도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특성화 대학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시합 때문에 수업 빠진 대학원생들도 많이 있었지만 부산, 울산, 춘천, 김포 등지에서 몇시간씩 운전하고 와서 5시간 동안 졸지도 않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서 한국축구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된다. 수업내용은 코칭심리학, 트레이닝론, 코

칭론, 실전코칭, 코칭영어, 세미나, 기술훈련 및 전술전략, 해외연수, 개인연구

2) 야구지도자학과(현재는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로 변경)

-축구지도자학과 다음으로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야구지도자학과 석사과정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2004년 3월에 첫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대한야구협회 상임이사회(2005년 1월7일)와 이사회(1월18일)에서 호서대학교 야구지도자학과를 졸업하면 대한야구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증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당시 야구감독이 되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감독을 할 수 있었다. 호서대 야구지도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과 동등한 자격을 인증해준다는 것이다. 즉,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없이도 호서대에서 야구지도자학과 석사학위를 받으면 야구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야구 자격증 제도가 국가자격증 제도로 변경되면서 이런 혜택이 없어졌다.

3) 벤처전문대학원 스포츠경영전공 개설

-벤처전문대학원 경영학과에 스포츠경영전공을 개설하여 석.박사 학위수여로 인재를 배출했다. 현재 안양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야구 슈퍼스타 출신인 박노준 총장이 박정근 교수의 제1호 박사제자이면서 스포츠경영전공 1호 박사학위자이다. 그 이외 박사학위자는 장연환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김민 GX100피트니스지도자협회장, 이형권 대표, 문영찬 대표, 그리고 전욱 석사학위자 등이 있다.

4) 일반대학원 미래산업융복합학과 스포츠레저산업전공 개설

-일반대학원 미래산업융복합학과에 스포츠레저산업전공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 민간자격증 취득 안내

“자격증 따고 능력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KCDC 원장 박정근 교수입니다. KCDC는 코칭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KCDC 민간자격증 취득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CDC에서 발급하는 17개 자격증들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이고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KCDC 자격 취득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식 연수(30명 이상)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연수 총비용 20만원 입니다. 물론 상황(연수시간, 종목, 등급)에 따라 총비용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KCDC와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각 대학 취업전담팀에서 학생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서 대학본부와 논의하면 학생들은 무료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강사님)들께서 대학 교과 수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 교과 수업을 KCDC 정식 연수로 인정하고 KCDC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이때는 연수 총비용 10만원입니다. 보통 15주간 이루어지며 B or C학점(70점, 담당교수가 결정) 이상자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현재 KCDC와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수생을 최소 20명 이상 모집 가능한 단체(대학, 협회, 휘트니스센터 등)나 개인(교수, 현장 지도자)들이 KCDC와 공동으로 연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연수시간, 종목, 등급 및 비용을 KCDC와 논의해서 결정합니다. 연수생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KCDC와 논의해서 소규모 맞춤형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방식으로 연수 진행을 원하시는 교수님(강사님) 및 관계자분들은 언제든지 KCDC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등록 민간자격증도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는 국가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 있어도 강사 자격이 되기 때문에 민간자격증 취득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KCDC 자격 정보(17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KCDC 민간자격증(17개) 정보입니다.>

자격명칭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	주무부처
유소년인성코칭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3-1976	문화체육관광부
GX 휘트니스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3-1977	문화체육관광부
GX 실용댄스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3-197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마케팅전문가	등록 민간자격	2013-1979	문화체육관광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3-1980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체육라인댄스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3-1981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체육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3-1982	문화체육관광부
레크리에이션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4-0302	문화체육관광부
요가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4-0303	문화체육관광부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4-3817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와운동재활	등록 민간자격	2014-5165	문화체육관광부
축구기술자격증	등록 민간자격	2019-004862	문화체육관광부
시니어리더코치	등록 민간자격	2014-3543	교육부
캠퍼스인증코치	등록 민간자격	2014-3545	교육부
진로학습코치	등록 민간자격	2014-3557	교육부
커리어코치	등록 민간자격	2014-3562	교육부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4-3971	해양수산부

자격 급수

유소년인성코칭지도사	3급, 2급, 1급
GX 휘트니스지도사	3급, 2급, 1급
GX 실용댄스지도사	3급, 2급, 1급
스포츠마케팅전문가	3급, 2급, 1급, M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3급, 2급, 1급
노인체육라인댄스지도사	3급, 2급, 1급
노인체육지도사	3급, 2급, 1급
레크리에이션지도사	등급없음
요가지도사	등급없음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사	2급, 1급
스포츠와운동재활및트레이너	Basic급, Advanced급, Professional급
축구기술자격증	3급, 2급, 1급, M급, GM급
시니어리더코치	2급, 1급
캠퍼스인증코치	3급, 2급, 1급
진로학습코치	2급, 1급
커리어코치	3급, 2급, 1급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3급, 2급, 1급

교과 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방법(2번째 방법) 세부내용 (자격증 내용과 유사한 대학 교과 수업 연계)

- 자격증 내용과 유사한 대학 교과 수업 연계를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
- 대대학 교과 수업을 관련 자격증과 연계하여 KCDC 정식 연수로 인정하고 KCDC 자격증을 취득
- 연수비용은 10만원(담당 교수님에게 KCDC 다양한 혜택 지원)
- 수업은 보통 15주간 이루어지며 B or C학점(담당교수가 결정) 이상자에게만 자격증 부여(정규연수 평가시험 대신)
- 관련 전공으로는 스포츠 및 체육 관련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유아교육과, 노인복지학과, 경영학과, 디지털기술경영학과, 글로벌창업학과, 물리치료학과 등이 해당됩니다.
- 수업명이 다를 시 KCDC에 문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우수 연수생은 본인이 원하면 중기청 창업프로그램 지원

스포츠마케팅, 스포츠경영학, 스포츠이벤트,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스포츠마케팅전문가 자격증 발급
레크리에이션,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자격증 발급
리더십,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커리어, 진로학습, 캠퍼스인증코치 자격증 발급
노인체육,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노인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재활, 트레이너,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스포츠와운동재활 및 트레이너 자격증 발급
유소년스포츠, 심리 및 상담,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발급
유소년스포츠, 심리 및 상담,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유소년인성코칭지도자 자격증 발급
수상스포츠,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해양스포츠코칭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공 축구,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축구기술자격증 발급
요가,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요가지도자 자격증 발급
GX 휘트니스 및 실용댄스,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GX 휘트니스지도자, 실용댄스지도자 자격증 발급
노인체육라인댄스,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노인체육라인댄스지도자 자격증 발급
실버레크리에이션,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자 자격증 발급
시니어리더코치, 유사과목 학점이수 시	시니어리더코치 자격증 발급

자격 시간
 3급 30시간
 2급 60시간
 1급 120시간
 M급 240시간
 GM급 480시간
 M=Master, GM=Grand Master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연수

자격관리기관
 기관명: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대표자: 박 정 근
 연락처: 010-2306-4917
 이메일: jkpark3838@naver.com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9-179
 홈페이지: www.ikcdc.net

총 비용(20만원, 30시간 기준)
 응시료: 3만원
 교재비: 2만원
 교육비: 10만원
 자격발급비: 5만원

환불규정
 접수마감 전: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20% 공제 후 환불

-담당자: 정경자 사무국장(010-4879-1203, kjc89280@naver.com)



유소년인성코칭지도자 연수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연수(서울숙명여대)

감사합니다.

KCDC 원장 박정근

KCDC 자격증 중국 진출(관계자분은 워장에게 직접 컨택)

1. 한국내 중국유학생(체육전공자 및 관련전공자)들에게 자격증 발급

- 1) 각 대학 및 대학원 체육관련학과 중국유학생
- 이전에 수강한 대학 및 대학원 관련과목 학점인정, 중국 학부 및 대학원 관련과목 학점인정. 단 KCDC에서 제공하는 관련 강의 동영상 또는 PPT 자료 필수 수강 후 보고서 제출
- 관련과목 성적표 제출
- 유사 관련과목이 많으면 과목 묶어서 자격증 발급. 2학점 1과목 이수시 = 3급(30시간) 인정, 2학점 2과목 이수시 = 2급(60시간) 인정, 3학점 2과목, 2학점 1과목 이수시 = 1급(120시간) 인정, M급 및 GM급도 같은 방식으로 인정.(급수에 따라 금액 차등, 예, 3급=10만원, 2급=20만원, 1급=40만원)

2. 중국 전 지역(또는 성지역, 기타 지역 및 단체) 자격증을 담당할 센터, 지부, 지회 회장 모집

- 지역(성, 도시)별로 선정해서 조직을 꾸려나가는 방법
- 성 단위로 지역(성)코칭능력개발센터 조직(회장은 교수)을 만들어서 센터별로 맡기는 방법
- 성 단위로 지부 조직(회장은 직업 무관)을 만들어서 지부에 맡기는 방법
- 도시, 학교, 클럽, 체육관, 스포츠센터 등 단위로 지회 조직(회장은 직업 무관) 조직을 만들어서 지회에 맡기는 방법

3. 연수할 중국대학과 파트너쉽 구축

- 중국대학 찾기
- 중국대학 찾았으면 직접 연수(1번) 또는 수업연계(2번) 자격증 발급 결정
- 수익 배분(본부:중국담당자 = 50:50 원칙) 논의

4. 중국 스포츠체육관/스포츠센터와 파트너쉽

- 체육관 직접 컨택트

5. 중국 스포츠클럽 파트너쉽

- 축구스킬자격증 전 중국 축구클럽에 발급
- 유소년스포츠지도자(축구, 야구, 농구 등 50여개 전 종목)

6. KCDC 워장 중국 설명회 및 특별연수

- KCDC 박정근 워장이 직접 중국 설명회
- 특별강의(연수) 혜택: 예, 6시간 박정근 강의 + 4시간 평가 + 20시간 현장실습/보고서 제출

7. 여름, 겨울방학 때 연수 실시

- 방학이전에 미리 연수실시 대학을 정해서 정규 연수하고 평가 후 자격증 발급

8. 중국에서 성별 시험장소를 물색해서 시험

- 미리 중국 교재를 주고 공부하게 한 후 시험장을 세팅해서 전국 시험 실시
- 하루에 몇 개 자격증 딸 수 있도록 토.일 시험
- 교재 판매

9. 온라인 수업

- 한국교수들 수업한 교재들 중에서 번역해서 사용
- 중국교수들 수업한 것들 중에서 좋은 교재 사용
- 추후 온라인수업 구체화

10. 졸업시험에 포함

- 중국대학 졸업시험 요건에 KCDC 자격증 넣을 것
- 중국대학 교과목에 자격증 선택과목으로 포함

11. Korean Chinese 학생회

- 학생회를 통해서 자격증 소개

12. 한국 유명코치(자격소지자)가 중국에서 강의

- 종목별 유명 한국코치가 중국에 가서 직접 기술 티칭

13. 중국대학과 함께 공동연구 프로젝트

- 번역
- IJCS, 코칭능력개발지 투고
- 국가프로젝트
- 유학생 프로그램(국내대학 유학 보냄, 중국대학 유학 보냄, 중국선수들 KCDC+ISG팀에 보냄: 독립야구단 등)

14. 여름방학 캠프

- 특별 프로그램 기획: 야구 등

15. 자격연수 교재 중국어로 번역 발간

- 강사요원들이 번역



중국북경 국제학술대회 참석

16. 자격연수 강사요원으로 중국 우수교수 선발

-중국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및 임원진을 강사요원으로

17. 단기 교환교수

-박정근교수 단기 교환교수

-직접 중국전역지역 특강(리더십, 관련 내용)

**중국인을 위한 자격증 프로그램은 중국코칭능력개발센터(CCDC)를 통해서 추진 하겠지만, CCDC와 관계없이 중국인을 위한 자격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원장에게 직접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격증 발급 담당자:

- 강원센터: 레크리에이션, 유소년
- 제주센터: 해양스포츠
- 충남센터: 캠퍼스인증, 진로학습코치
- 광주센터: 유소년인성코칭지도사
- 경기지부: 이전에는 GX실용댄스지도자, 노인체육라인댄스지도자, GX휘트니스지도자, 요가지도자를 했지만 지금은 GX100피트니스지도자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연수함. 공동자격증 발급 논의 필요
- 충남지부: 유소년스포츠, 스포츠마케팅, 노인체육 등
- 야구학과지회: 유소년스포츠(야구)
- 이사: 요가, 스포츠마케팅 등
- 충신대: 실버, 노인체육, 요가
- 용인대: 스포츠운동 및 재활트레이너
- 김병지축구센터: 축구스킬

연수방법:

- 관련 대학 수업 수강하고 자격증 취득: 강원센터, 충남지부, 이사, 용인대
- 학기 정식 연수: 충신대
- 방학 및 학기 중(주말) 정식 연수만 하는 방법: 제주센터, 충남센터
- 스포츠클럽에서 훈련과 연계: 야구학과지회, 김병지축구센터
- 인턴 및 현장실습생 스포츠마케팅전문가 자격증 무료 제공

활성화 전략(업무내용)

- 각 센터.지부.지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격연수 유치(학기중 토.일/여름방학기간)
- 체육, 창업, 복지, 경영 관련 대학/전문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과장에게 공식 공문(사무국 이름으로 공문 발송)
- 자격증 관련교수에게 직접 연락(샘플 이메일 확인)
- 사단법인 GX100 피트니스지도자협회와 조인트 프로그램: 발급 가능한 자격증 4-5개
- 승실대: 커리어코치, 진로학습코치
- 호서대: 시니어리더코치
- 송원대: 유소년인성코칭지도사
- 박정근 교수: 캠퍼스인증코치(리더십 스쿨 개설), 유학생 진로코칭(career coaching)
- 구병두 교수: 교육부 주무부처 자격증
- 재활 및 트레이너 관련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와운동재활 및 트레이너
- 부천대 재활스포츠과
- 청소년상담학과: 레크레이션지도자
- 노인복지전공,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실버레크레이션지도자
-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스포츠마케팅전문가, 스포츠와운동재활 및 트레이너
- 학점은행제 대학: KBS 스포츠칼리지 자격증(재활, 유소년, 마케팅 등)
- 헬스센터 및 각종 스포츠센터(아카데미)에서 자격증과 연계: 헬스(스포츠)센터 및 스포츠아카데미 3개월 이상 수강자에게는 자격증 발급 등(각 센터와 협의 필요)
- 각 센터 임원진들 중에서 자격증 관심있는 분들은 원장에게 직접 연락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학 수업 수강하고 자격증 받는 방법입니다. 각 대학 취업지원팀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됨
- KCDC 17가지 자격증 중에서 현재 발급(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자격증은 노인체육라인댄스지도자, GX실용댄스지도자, GX휘트니스지도자 자격증 3가지입니다. 발급 가능하신 분 신청 받습니다. 주변에 자격증 발급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계시는 현장지도자분이나 강사님들에게 KCDC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도록(강사, KCDC 배분) 설명하면 수강생도 좋아함.

KCDC 조직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은 코칭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본 원은 전국에 있는 코치 및 체육교사들에게 현장감 있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함으로써 더 나은 코치(Better Coach) 더 나은 스포츠(Better Sport)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1998년 11월 7일 호서대학교 박정근교수 연구실(체육관 210호)에서 코칭능력개발센터(Coaching Development Center: CDC)가 설립되었다. 호서대학교 박성희, 박진규, 김정석, 김형수, 안창식, 임계규, 강현구, 민병헌 교수들, 서아람, 전현지 프로골퍼, 성신여대 대학원생들, 그리고 호서대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본 센터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박정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호서대학교 기획실장께서 기도를 해주셨고, 본 센터의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생명과학과의 염행철 교수님이 CDC팀을 위해 저녁식사를 후하게 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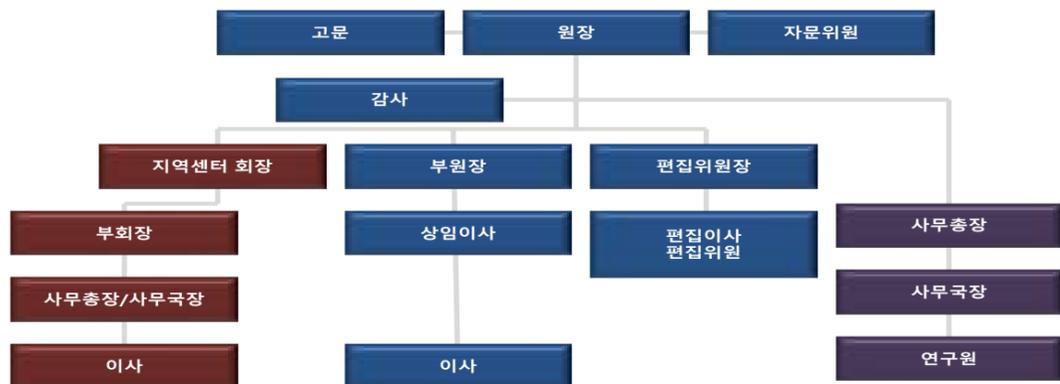


'99년 CDC서울사무소 개소식 당시의 모습

코칭능력개발센터(Coaching Development Center: CDC) 본부가 설립된 이후로 1999년 고려대학교에 CDC 서울 사무소, 2001년 인천교육대학교에 CDC 인천지부 사무소로 개설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지금의 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으로 명칭변경을 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7개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지역센터), 1개 해외 중국코칭능력개발센터, 1개 지부, 4개 지회가 설립되었다. 앞으로 KCDC는 각 17개의 지역 센터와 지부, 그리고 가능한 많은 지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 바란다.



'01년 CDC인천사무소 개소식 당시의 모습



KCDC의 조직도

KCDC 지역센터, 지부, 지회 모집

사단법인 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에서는 체육(스포츠코칭)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함에 함께 할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지역센터), 지부 및 지회를 모집합니다. 본원에서는 각 지역에서 KCDC를 대표하는 지역센터, 지부 및 지회와 함께 다양한 사업 프로젝트와 연구, 교육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명실상부 최고의 코칭전문기관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지역센터, 지부, 지회는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 제 목 : (사) 한국코칭능력개발원 지역센터, 지부, 지회 모집
- 회장 자격 : 지역센터(교수), 지부(스포츠관련전문가) 및 지회(제한없음)
- 지역센터 및 지부: 전국 17개 광역시.도
- 지 회 : 제한없음

-지역센터(센터)와 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각 한 개씩만을 두며 지회는 제한이 없다. 센터, 지회, 지부는 자체 조직(회장, 부회장, 사무국(총)장, 이사 등 10명)을 결성해야 하며 센터회비 년100만원(1인당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10명 이상이라도 무방함(단 1인당 연회비는 10만원)

현재 센터/지부/지회 회장 명단(설립 순서):

- 이강현(경남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창원대 교수): 논문, 지도자연수
- 김기진(대구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계명대 교수): 논문
- 박창범(강원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상지대 교수): 논문, 수업연계 자격연수(레크리에이션, 유소년)
- 양명환(제주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제주대 교수): 논문, 방학기간 자격연수(해양스포츠)
- 신정훈(광주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송원대 교수): 논문, 수업연계 자격연수(인성, 유소년, 노인체육, 트레이닝 등)
- 박성률(경북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트레이닝과학연구소장): 논문, 수업연계 연수(트레이닝)
- 박정근(서울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KCDC 원장 겸직): 현재 박정근 원장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스포츠 & 웰니스/문화)을 본원+서울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라마다 옹기그룹 및 이사진들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자격증 발급 및 특강: 인성/멘탈/성공교육/신체교육/유튜브 제작 및 기타 프로그램 등)
- 웨이샤(중국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중국 서안과학기술대학 교수, 서안시 요가협회 부회장, 섬서성(산시성) 체능협회 회장, 섬서성학생체육협회 요가운동위원회 부비서장): 중국 34개 행정구역(23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2개 특별행정구)에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 및 다양한 지회 설립 추진, KCDC 17개 민간자격증 중국 보급.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박정근원장을 초청해서 34개 행정구역에 코칭능력개발센터 및 다양한 지회 설립 추진 박차

- 송재호(전북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원광대 교수): 논문, 중국관련 프로젝트
- (충남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현재 섭외 중
- (경기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현재 섭외 중
- (충북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현재 섭외 중
- (전남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현재 섭외 중
- (울산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현재 섭외 중
- (세종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현재 섭외 중
- (대전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현재 섭외 중
- (부산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현재 섭외 중
- (인천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현재 섭외 중
- 김민(KCDC 경기지부 회장, GX100피트니스지도자협회장): 협회와 자격증 발급 공유
- 나머지 16개 지역 KCDC 지부 계속 추진 중(좋은 분들 추천 바람)
- 이창열(호서대야구학과지회 회장): 야구관련 프로젝트
- 이두철(호서대축구학과지회 회장): 축구관련 프로젝트
- KCDC 지회 활성화: 지회 형태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지회(동아리 지회, 교육센터 지회, 아카데미 지회, 시도 지회 등)설립 추진(아래 지회 활성화 전략 참조)



13년 4월 12일 지역센터모임

활성화 전략:

- 센터.지부.지회 확충: KCDC 멤버 각자 1개소 소개(2021년 목표 20-30개 새로운 조직 추천). 대학생, 대학원생, 스포츠관계자,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및 시니어 모두에게 의뢰(KCDC+ISG에 조금이라도 관계되고 관심 있는 자들에게 회장 영입: 사업아이템 공유해서 수익창출)
- 해외 센터.지부.지회 활성화: 중국코칭능력개발센터 회장 웨하이샤를 통해 중국 활성화. ICCE 소속 교수들(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지역)을 통해 해외 활성화
- 좋은 분들 소개
-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교육 및 연구는 물론 각종 프로젝트(국가, 민간, 자체)를 통한 수익사업 다각화

지회 활성화 전략:

- 현재 스포츠센터(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운영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서 홍보하고 도와주면서 각 스포츠교육센터가 활성화되기를 목적으로 함.
- 자격: 지회 가입은 선결조건이며 상황에 따라 수익발생 시 순수익의 일정부분 KCDC 기부 또는 수익 배분(논의 필요)
- KCDC+ISG에서는 광고: 홈페이지, 코칭능력개발지, IJCS, COACH, SNS 홍보
- 지회: (KCDC) 영어프리토킹센터, 야구트레이닝센터 또는 야구교육센터, 축구교육센터, 펜싱교육센터, 수상스포츠교육센터, 스키교육센터, 필라테스교육센터, 쇼트트랙교육센터 등 센터 및 지회를 아래와 같이 계속 만들 것. 예,
- 명칭1: KCDC 야구교육센터 지회
- 명칭2: KCDC 아산시 지회
- 명칭3: KCDC 호서대축구부 지회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가능)인 지회

- "KCDC 호서대야구학과 지회" 처럼 앞부분에 모두 KCDC를 붙이고 뒷부분에 지회를 붙인다
- 호서대야구학과
- 호서대축구학과
- 야구교육센터
- 축구교육센터
- 펜싱교육센터
- 스포츠심리상담센터
- 트레이닝센터
- 스포츠ODA센터
- 영어프리토킹센터
- 글로벌스포츠아카데미(외국인대상)
- 필라테스교육센터
- 쇼트트랙교육센터
- 수상스포츠교육센터
- 스키교육센터
- 뇌과학마케팅센터
- 빛소리명상센터
- 피트니스-필라테스센터
- 통증재활교육센터
- 아산시(각시도)
- 중국스포츠교육센터
- 시니어스포츠복지교육센터
- ICCE
- 순천향대 야구동아리
- 순천향대 축구여자동아리

조직 혜택:

- 본부와 센터, 지부, 지회가 공동프로젝트 실시
- 매년 최우수 센터, 지부, 지회 선정하여 상장 수여
- 봉사업적 점수 확보(KCDC 임원으로 참여하면 각 대학 봉사점수 부여)
- 코칭능력개발지(KCI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IJCS) 공동연구로 논문게재(영어투고가 어려우면 영문 지원가능 또는 영어 원어민 학자와 공동연구 가능), Coach-Leader 잡지에 글 기고 및 홍보
- KCDC 발간물 회원들에게 발송: 코칭능력개발지 년4회 발간, IJCS 년2회 발간, Coach-Leader(수시),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자료검색(새 홈페이지 구축예정)
- 국가프로젝트, 지자체 프로그램 공동 수행
- 대규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학술교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년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참석)

-KCDC 프로젝트(자격증, 스포츠유학, 각종 스포츠프로그램 및 아카데미, 스포츠교육센터(지회) 운영,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및 국가/민간 프로젝트를 책임 맡아서 잘 수행했을 때 인센티브 및 연구비 지원. 추후 KCDC+ISG 일자리 제공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의 이익에 중점:

-이런식으로 점조적으로 지회를 최대한 많이 설립한다. 기본개념은 연회비 10만원 내고 10만원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주면 성공가능성(최대한 많은 지회 설립) 높음. 서로 협동하면서 흥미있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취업처(정규직, 임시직, 프리에이전시 등)를 제공해주도록 한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도 친분 있는자들 결성해서 KCDC 지회로 가입하는 전략 구상(수익창출 또는 취업연계로 도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혜택:

-유명 감독 및 관계자(예, 야구 임호균 감독, 주민재 코치, KCDC 야구교육센터 지회 지도자 등) 1 day 코칭

-단체 유니폼 및 용품 공동구매 및 협찬. 기업 MOU 체결 추진을 통해 협찬

-경기 녹화 및 분석 지원

-전문가 스포츠심리상담 지원(경기력 향상, 진로문제: 대학원 진학, 현장실습-인턴-정규직 기회제공, MLB 인턴 우선 신청 등)

-KCDC배 아마추어 야구(스포츠)리그 참가(호서대 야구학과 출신들과 함께)

-타 지회 및 선수단과 친선경기 및 독립야구단(엘리트 축구단)들과의 친선연습경기

-호서대학교 야구학과, 야구학회, 대한야구협회, 대한축구협회 세미나 참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KCDC 민간자격증 무료 발급)

-다른 종목(축구, 농구, 펜싱 등)도 유사한 지회 프로그램으로 진행

사무국 연락처: E-mail : kjc89280@naver.com, 전화번호 : 02-3471-2469

원장: jkpark3838@naver.com, 010-2306-4917

첨부:(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소개(PDF파일) 및 가입신청서

연수

1) 중등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소프트볼 연수 프로그램 실시 (2000.7.24.-8.4 호서대학교 운동장 및 강의실)

-CDC는 호서대학교 부설 중등교육연수원과 공동으로 소프트볼 연수 프로그램을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연수를 받은 20명의 체육교사 및 현장지도자들에게 실기시험과 이론시험을 거쳐 CDC에서 Advanced Level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2) 유소년스포츠지도자 1급 연수 프로그램 실시(2008년 6월 21일, 토)

대상: 유소년스포츠지도자 3급과 2급 자격연수프로그램에서 강의하실 교수님 및 현장 지도자

일시: 2008년 6월 21일(토)

장소: 호서대학교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2008년 6월 21일 KCDC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연수회 및 회의 내용

저녁식사: 오후 6시 30분- 8시

참석자(27명):

박정근, 유생열, 황종선, 이명천, 연기영, 오현옥, 정지혜, 장덕선, 강신우, 정상익, 임용택, 최용수, 신윤호, 이철근, 김진우, 전문숙, 김은영, 오원재, 엄남균, 전욱, 축구지도자, 진원심(전 국가대표 필드하키선수), 현직 체육교사, 동국대 대학원생 2명, 국민대 대학원생 2명

발표자:

-박정근(호서대): KCDC 소개, 역할모델로서의 코치, 자기관리법(리더십), 팀 응집력 향상, 운동집착, 자신감증진

-아래 *는 파워포인트 제출하고 미참석자(원장이 간단히 발표)

*정현채(군산대): 유소년성장 및 운동발달의 특성

*이강현(창원대): 경기력극대화, 커뮤니케이션 기술

*양춘호(한서대): 운동발달

*송우엽(성균관대): 스포츠활동의 혜택과 스포츠맨십, 패배 및 일탈에의 대처

-유생열(인천교대): 자신감 증진, 시즌준비 및 게임계획, 운동참여, 지속, 중단의 동기요인

및 동기유발

- 임용택(남서울대): 유소년트레이닝 프로그램
- 장덕선(한체대): 상담이론 및 기법
- 연기영(동국대): 법적책임
- 이명천(동국대): 영양
- 김진우(다트피시): 기술분석과 전략
- 정상익(교육부):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현황과 미래
- 신윤호(유소년클럽 대표이사): 유소년 스포츠 클럽의 현황과 미래, 현장이야기(클럽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
- 이철근(유소년클럽 대표이사): 스포츠클럽 경영론, 프로그램 작성법 및 실습
- 강신우(MBC 축구해설위원): 유소년 축구 지도법
- 엄남균(호서대): 유소년 야구 지도법
- 김은영(여자야구연맹): 유소년 야구 지도법
- 정지혜(숙명여대): 유소년 농구 지도법
- 최용수(골프지도자 및 사업가): 유소년 골프 지도법

발표 못한 내용:

- 코칭의 효율적인 지도법
- 정신기술훈련
- 장비 및 시설관리
- 유소년육상지도법 및 체력지도법
- 유소년 레저스포츠 지도법
- 스포츠부상 및 응급처치

논의내용:

- 3급, 2급 프로그램(60시간) 수정보완 할 것. 강의내용은 이론과 현장중심으로 구성.
- 프로그램 3급, 2급은 이론중심이며 1급, M, GM급은 이론과 종목별 실기 혼합 중심으로 (학습자 욕구 및 상황에 맞게끔 결정)
- 예, 1급은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보수교육(실기 및 이론) 60시간으로 대처
- 예, 2급은 3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보수교육(실기 및 이론) 30시간으로 대처
-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 일정, 금액, 자격증fee 등 자격검증위원회(원장, 유생열 부원장, 사무총장, 이철근 등)에서 결정
- 당일 참가자 8시간 수강한 박사학위소지자 1급, 나머지 2급(자격증 fee 5만원)
- 당일 발표한 파워포인트 내용(추후 수정보완 파일도 발송예정)은 참가자 모두에게 발송할 예정
- 수강생 모집 방안(이철근 상임이사가 책임)
- 당일 모임에서 상임이사 내정: 정지혜, 장덕선, 임용택, 이철근이사님은 이전에 수락했음
- 상임이사 의뢰 예정: 최용수, 강신우, 정상익
- 당일 모임에서 등기이사내정: 오현욱
- 최종 등기이사: 박정근, 유생열, 송우엽, 황종선, 이철근, 오현욱
- KCDC의 모든 재정적인 사항은 등기이사들이 결정한다.

유소년스포츠 프로그램의 성공조건:

- KCDC의 수준 높은 브랜드가치

-KCDC 자격증 취득 후 인턴십 및 취업 가능해야 한다.

-KCDC가 혼자서 창업(사업)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실체적)인 도움(수익보장)을 주어야 한다.

-KCDC 교수들이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KCDC 조직화하면 가능하다

-교육부나 문체부에서의 인증

전략:

-재원확보: 문체부, 교육청 장학사들에게 강좌를 주어서 KCDC를 알린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KCDC를 소개하면 지원가능(예, 새천년건강체조)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참여시킬 것

-각 경기연맹단체 53개 사무국장 연수프로그램에 문광부, 교육부, KCDC 함께 할 것

3) 스포츠와 운동전문가(Sports & Exercise Specialist: SES) 집중자격연수 실시

(2011.10.29.-2012.2.7. 매주 토.일, 호서대학교, 서울하늘스포츠의학클리닉)

-2011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2월 7일 매주 토.일요일에 SES에 관심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KCDC 주최, ISG와 서울하늘스포츠의학클리닉 공동주관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장소는 호서대 체육관, 실습장소는 서울하늘스포츠의학클리닉과 대전 우송대학교에서 실시하였다.

-교과과정은 전체 264시간으로 기초과정(Basic Course)는 57시간(1강좌 3시간, 18강좌 + 필기시험 3시간), 고급과정(Advanced Course)는 72시간(이론 39시간, 실습 30시간, 23강좌 + 필기시험 3시간), 최상위 과정 전문과정(Professional Course)는 135시간(이론 39시간, 실습 90시간, 43강좌 + 필기 및 실습시험 6시간) 이었다.



4) 이충희 키 성장클럽 지도자연수 (2013.3.24. 호서대학교 체육관)

2013년 3월 24일 호서대학교 체육관에서 KCDC와 공동으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루종일 이충희 키성장클럽 지도자연수를 실시하였다. 약60여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1970-80년대 농구 강도와 슈퍼스타 이충희의 농구 강의와 키성장 관련 이론 강의를 수강하였다. 이수자들에게는 KCDC 유소년체육 지도자 3급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야구(스포츠)관련 지회 모집 홍보(안)

“우린 좀 달라, KCDC 에서 전문적으로 지원받자!”

사단법인 한국코칭능력개발원(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은 코칭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민체육진흥에 이바지하는 22년의 역사를 지닌 비영리단체입니다. 현재 150여명의 대학교수, 현장지도자들이 이사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KCDC 야구 분야 지회 모집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은 운동 취미 동호회나 동아리, 스포츠 관련 진로 희망자 등 스포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KCDC 지회를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이 지회를 구성(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5명 이상의 인원부터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동아리 지회, 교육센터 지회, 아카데미 지회, 시도 지회 등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단체이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KCDC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본부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KCDC가 여러분의 특별한 커리어를 지원합니다.



KCDC야구 지회 홍보 포스터



KCDC축구/야구 지회 홍보 포스터

2. 조직 혜택

- 기본 혜택: 국내외 논문집, Coach 잡지 무료 구독 및 투고, 년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참석, 국가프로젝트 참가 등
- 유명 감독 및 야구관계자(임호균 감독, 주민재 코치, KCDC 야구교육센터 지회 지도자 등) 1 day 코칭
- 단체 유니폼 및 용품 공동구매 및 협찬. 기업 MOU 체결 추진을 통해 협찬
- 경기 녹화 및 분석 지원
- 전문가 스포츠심리상담 지원(경기력 향상, 진로문제: 대학원 진학, 현장실습-인턴-정규직 기회제공, MLB 인턴 우선 신청 등)
- KCDC배 아마추어 야구리그 참가(호서대 야구학과 출신들과 함께)
- 타 지회 및 선수단과 친선경기 및 독립야구단들과의 친선연습경기
- 호서대학교 야구학과, 야구학회, 대한야구협회 세미나 참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KCDC 민간자격증 무료 발급)
- 다른 종목(축구, 농구, 펜싱 등)도 유사한 지회 프로그램으로 진행

3. KCDC 지회 예시

KCDC 00대 야구동아리 지회	KCDC 00대 여자축구동아리 지회	KCDC 00시(각 시도)
KCDC 00대 피트니스-필라테스 지회	KCDC 00대 스포츠마케팅 지회	KCDC 축구교육센터 지회

담당/문의 : (사) 한국코칭능력개발원

원장 전화 010-2306-4917, 이메일 jkpark3838@naver.com

사무국장 전화 010-4879-1203, 이메일 kjc89280@naver.com



4D균형면역 건강법 홍보 포스터



KCDC 영어 프리토킹 지회 홍보 포스터

CDC 우수코치시상식

이 시상식은 스포츠닷컴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써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우수 코치,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방식을 도입하여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힘쓴 일선 지도자를 시상하는 행사이다. 제1회 CDC 우수코치 시상식은 2000년 9월 1일 저녁 6시 30분 올림픽파크텔 목련화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약 80여 명의 임원진과 회원들이 참가하여 LG정유 배구팀의 김철용 감독과 천안중앙고등학교의 한명수 탁구코치에게 수여했다. 제2회는 2001년 3월 23일 올림픽파크텔 진달래홀에서 장영술 상무감독과 조관섭 풍생고 축구감독에게 수여했다. 제3회는 2002년 12월 7일 송도병원 대강당에서 우성구 영남대학교 육상부 감독에게 수여했다. 그 이후 스폰서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상식을 갖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CDC 우수코치시상식 수상자
한명수(천안 중앙고 탁구코치)
김철용(LG정유 배구팀 감독)



CDC 우수코치시상식 수상자
육상 우성구(영남대 육상부 감독)



제1회 CDC우수코치시상식에서 연설하는 박정근교수

지도자 강습회

1) 서아람 프로 초청 골프 클리닉 개최(1998.1.7 장소: 호서대 골프장)
- “골프의 대중화와 경기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클리닉 개최

2) 국군체육부대 특강(1998.12.29 장소: 국군체육부대)
-40여 명의 국군체육부대 전임 감독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치들의 리더십 향상 기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주제 강연 : 박정근 교수)

3) 충남체육회 지도자 강습회(1999.4.13 장소: 공주시 문예회관)
-150명의 충청남도 현직 코치들이 모인 가운데 박정근, 김명화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4) 천안시청 볼링 팀 심리상담 지원(1999.7월-9월, 장소: CDC 호서대 사무국)
-전국체전을 위한 천안시청 볼링 팀 선수들에게 몇 개월간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하였다. 창단 10여년 만에 전국체전 첫 우승을 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5) 아시아양궁대회 겸 학술대회(2001.5.24 현대성우 리조트)
-2001년 5월 24일 강원도 현대성우 리조트에서 아시아양궁대회 겸 학술대회에서 양궁 지도자들을 위한 박정근, 유생열 교수의 초청 발표가 있었다.

6) 프로야구팀 정신훈련 특강(2002.4.2 대전 리베라호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팀 선수 및 코칭 스템을 대상으로 박정근 원장의 정신훈련 특강을 실시하였다.

7) 평택 소프트볼 주부를 위한 특강(2003.2.20, 장소: 호서대 운동장)
-50명의 평택 소프트볼연합회 소속의 소프트볼 팀원들을 위한 소프트볼 연수(5시간)가 있었다.

8) KPGA 정회원대상 특강 실시(2003.12.17 용인 프라자콘도)
-KPGA 정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3시간에 걸친 “골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훈련기법”에 관한 박정근 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9) 대한트라이에슬론협회(대한철인3종경기협회) 코치아카데미 특강 실시(2005.3.1 올림픽파크텔)
-대한트라이에슬론협회 코치아카데미에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박정근 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10) 경남체육회 지도자 강습회
-200여명의 경상남도 현직 코치들이 모인 가운데 박정근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서아람 프로초청 골프클리닉

‘98 서아람 프로 초청 GOLF클리닉이 1998년 11월 7일에 코칭능력 개발센터와 호서대학교 체육학 전공 주체로 호서대학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의 대중화와 경기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GOLF 클리닉에서는 서아람 프로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립에서부터 어드레스의 기초적인 기술과 스윙의 전반적인 기술 등이 수강생들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라운딩 중 어렵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를 끝난 후 서아람 프로와 전현지 프로가 수강생들을 위해 2시간 정도 개인 레슨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국제교류

1) 미시간주립대학교 유소년스포츠연구원 자매결연 (1999.5.23)

두 센터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코치에 관해 연구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프로젝트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자매결연을 맺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유소년스포츠연구원 자매결연

2) 스탠포드대학의 긍정적코칭협의회 (Positive Coaching Alliance: PCA)와의 교류

PCA를 통해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KCDC와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편지를 받았고 지금도 PCA 소식지를 이메일로 계속 보내고 있다.

3) 국제코치교육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Coach Education: ICCE)에 B Member로 가입 (2002.5.4)

ICCE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미국, 캐나다, 홍콩)에 KCDC는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각종 코칭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있다.



국제코치교육협의회(ICCE)에 B Member로 가입

4) 미국 ICCE 학술대회

2002년 5월 1일-4일 ICCE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의 올림픽트레이닝센터(USOC)에 모인 세계 각국의 코치와 코칭 정보를 교환하였고 세계적인 코칭 흐름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다. 박정근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미국 USOC에서

5) 캐나다 밴쿠버 대회

2003년 10월 29일-11월 2일 캐나다 밴쿠버 Sheraton Wal Centre에서 CAC와 ICCE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600여명의 코치교육자, 코칭프로그램 개발자, 코치, 스포츠지도자, 심판, 행정가,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였다. 내용으로는 캐나다 스포츠 프로그램 시찰, 저녁 만찬, 주제발표 및 오프닝 리셉션 "Sport as a Development Tol", "International Excellence in Coach Education", "Leadership and Advocacy in Sport", 워크샵, 관광 및 National Coaching Institute(NCI) 견학 등이 있었다. 현재 KCDC는 체육과학연구원과 함께 ICCE의 멤버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코칭연구기관이다. 박정근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6) 캐나다코칭협회(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CAC) 자매결연 협정서

2003년 3월 12일 John Bales CAC 회장이 내한하여 KCDC와 CAC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호서대 사무국에서 가졌다. 앞으로 학술교류, 코치교환, 정보교환 등 코칭에 관련되는 일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John Bales 회장은 3월 1일 태능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캐나다 코칭에 관한 특강을 했다.



KCDC와 캐나다코칭협회(CAC) 자매결연 협정서

7) 홍콩 ICCE 학술대회

2004년 2월 25-27일 홍콩 Sports House에서 홍콩 코칭위원회(Hong Kong Coaching Commite: HKCC)와 ICCE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박정근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8) 북경 ICCE 학술대회

2007년 8월 31-9월3일 북경체육대학교(Beijing Sport University)에서 실시한 2007 ICCE Global Coach Conference에 참가했다. 박정근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9) 한국 아산 호서대 ICCE 학술대회

2004년 2월 25-27일 홍콩 Sports House에서 홍콩 코칭위원회(Hong Kong Coaching Commite: HKCC)와 ICCE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박정근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10) 프랑스 파리 ICCE 학술대회

2004년 2월 25-27일 파리 Sports House에서 홍콩 코칭위원회(Hong Kong Coaching Commite: HKCC)와 ICCE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11) 핀란드 비에루마키 ICCE 학술대회

2004년 2월 25-27일 비에루마키 Sports House에서 홍콩 코칭위원회(Hong Kong

Coaching Commite: HKCC)와 ICCE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박정근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12) 일본 동경 ICCE 학술대회

-2019.10.30.-11.1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2회 ICCE 국제코치학술대회(Global Coach Conference)에 KCDC 임원진 8명이 참석했다. 박정근, 유생열, 정원정, 강형숙, 이지연님은 구두발표 및 포스트발표가 있었다. 다음 2021년 컨퍼런스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었다.



구두발표장면(박정근)

-참가자: 박정근(호서대, KCDC 원장), 유생열(경인교대, 국제이사), 정원정(상지대, 국제이사), 강형숙(동아대, 이사), 이지연(동아대, 이사), 황승현(경북대, 경북센터 부회장), 강호석(스쿼시 국가대표 코치), 유도국가대표코치

국제코칭교육학회(ICCE) (<http://www.icce.ws>) 소개

ICCE는 1997년 9월 24일 15개국이 참가한 제 2차 국제코치교육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설립되었으며, ICCE는 비영리국제단체로서 다음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 전문가로서의 스포츠 코치 증진
2. 코치 교육에 참여하는 회원들 간의 국제 사회, 문화적 관계 증진
3. 스포츠의 가치 증진
4. 트레이닝과 경기에 대한 연구물의 스포츠 현장에서의 활용
5. 현장에서의 코칭에 대한 지식 교류
6. ICCE 회원 간의 코치 교육 프로그램, 자격 기준 등에 대한 정보 교류
7. 회원국 간의 코치 교육 코스와 정보의 협조 체제 구축
8. 코칭에 대한 윤리적 측면 강조
9. 코치 - 행정 임원 - 선수 간의 유기적 관계 증진
10. 현장에 접목되는 코칭 교육에 관한 전문 서적 출판
11. 코치 교육에 관심있는 나라의 사기 진작 및 보조



발표장 입구에서 KCDC 임원진

2004년 독일 헤네프 축구학교 연수 프로그램

호서대학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축구지도자학과 대학원생 13명이 2004.2.1 - 2.14(2주 프로그램) 독일 헤네프 축구학교 연수에 참가했다. 수업내용은 이론 및 실기로 유소년 및 엘리트 축구 지도자를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체력, 훈련프로그램, 포메이션 응용, 공격 및 수비 전술전략, 골키퍼 훈련, 재활훈련 견학, Bayer 04 Leverkusen팀 훈련관전, 경기 관전, 관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일): 인천공항 출발(15시 05분 출발 LH독일항공),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19시 도착)

-2.2(월): 어린이를 위한 조정력 훈련, 독일축구협회의 훈련개념, 연령별 훈련과 플레이 형태

-2.3(화): 기본훈련 내용 및 예) 최고경기력 훈련내용, 체력향상훈련

-2.4(수): 최고경기력 훈련 내용 및 예) 슛패싱 플레이를 위한 연습 및 플레이 형태, Bayer 04 Leverkusen 시설 견학, 연습 및 플레이 형태, 친선게임

-2.5(목): 독일축구협회의 능력향상프로그램, 독일 축구협회 훈련기초캠프의 예) 유소년 훈련을 위한 훈련 스케줄, 슛팅 연습 및 플레이 형태, 친선게임

-2.6(금): 유소년 훈련을 위한 전략의 기술원리, 공격-수비에 대한 개인전술, 시스템 훈련방법



-2.7(토): 게임관전 및 관광

-2.8(일): 게임관전 및 관광

-2.9(월): 훈련단위 구조, 공격 플레이를 위한 연습과 플레이 형태, 시스템 훈련 방법

-2.10(화): 유소년 시스템, 팀 공격/수비 전술, 체력훈련 (지구력, 스피드)

-2.11(수): 체력훈련(과워, 조정력), 4:4 게임

-2.12(목): 시스템 훈련방법, 골키퍼훈련

-2.13(금): 수업 종료, 수료증 배부, 독일 공항 출발(17시 50분 출발)

-2.14(토): 한국도착(12시 25분 인천공항 도착)

*비용:300만원(회원), 330만원(비회원)

국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1) 학술지지원사업 선정

-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의 간행물 중 하나인 코칭능력개발지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후보지에 선정, 2012년 등재지(KCI)에 선정되어 현재까지도 국내 유일의 코칭영역의 주요 학술지로서 발행되고 있다. 코칭능력개발지는 거의 매년(공단지원이 없었던 기간도 있었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학술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오랫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코칭능력개발지 표지

2) 인턴지원사업 선정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인턴지원사업에 KCDC가 선정되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6개월간 인턴에게 최저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다.

3) 축구국가대표 제2트레이닝센터(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선정

- KCDC 원장인 박정근교수는 2018년 대한축구협회에서 계획한 축구국가대표 제 2트레이닝센터 용역(사단법인 한국코칭능력개발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을 처음에는(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에서 단독으로 맡았지만 설계 및 건축부분의 중요성 때문에(사)한국도시설계학회에 의뢰에서 공동으로 용역에 참여하였으며 박정근 원장의 리더십하에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2트레이닝센터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기본계획 보고서의 표지

- 또한 24개 도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박정근 원장은 천안시 유치를 위해 천안시추진위원회 유치기획단장으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 실무진들과 함께 주민설명회, 10여차례의 회의, 심사발표, 현장실사, 각종 언론기고 및 방송출연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였으며, 2019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천안시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1등 공신이였다.

산학협동 제휴

KCDC는 그동안 다양한 산학연관협동(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제휴를 맺어서 KCDC의 자랑인 인적 네트워크(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현장지도자, 연구자, 기업인 등)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앞으로도 글로벌시대에 국제무대의 활발한 진출을 위해서 지속적인 산학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래는 현재까지 KCDC와 산학협동제휴를 맺은 기관들이다.

- 스포츠아로마(1998.12.30.)
- 스포츠닷컴(2000.05.31)
- 한미양행(2001.03.23)
- 클릭벨유(2001.03.23)
- 스포츠아트(2001.06.30)
- E-마라톤(2001.10.05)
- 다트피쉬(2002.03.)
- 기반테크놀로지(2002.03.)
- 노아테크놀로지(2007)
-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2009)



노아테크놀로지의 홈페이지 화면

- 경동대학교 스포츠마케팅학과
- 안동대학교 체육학과
- 호서대학교 체육학과
- 국제코칭탁월성협의체(ICCE)
- 미시간주립대학교(MSU) 체육학과
- 스탠포드대학교 긍정적코칭협의체(Positive Coaching Alliance: PCA)
- 캐나다코칭협회(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CAC)
- 기타



KCDC와 캐나다코칭협회(CAC) 자매결연 당시 모습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 공동사업

(사) 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와(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는 가족기업으로 2009년 MOU를 맺은 후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의 내용에서 다루어진다.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의 홈페이지 화면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2-1.

ISG

International Sports Group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 2009년 설립)

- CEO : 중기청 실험실창업 선정 → 기술보증(1억원) → 투자(호서대 동료교수)(6500만원) → 호서대 벤처연구비(1.2억원)

INTERNATIONAL SPORTS GROUP **회사개요**

2009년 09월 11일 설립된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
www.isgkorea.com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4대
핵심사업

- 스포츠아카데미(Sports Academy Business)
- 스포츠마케팅&컨설팅(Sports Marketing & Consulting)
- 스포츠매니지먼트(Sports Management Business)
- 스포츠 온라인 포털(Sports On-line Portal)

(주)인터내셔널 스포츠그룹(ISG, 2009년 설립), KCDC와 MOU 체결

- CEO : 중기청 실험실창업 선정 → 기술보증 → 투자(호서대 동료교수) → 호서대 벤처연구비

Website screenshot showing ISG logo, navigation menu (HOME, ABOUT US, BUSINESS, PROJECT, COMMUNITY), and main content area with a photo of a man in a suit.

ISG와 KCDC의 공동사업

KCDC는 2009년 새로운 스포츠 벤처기업 모델 개발을 통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전문 비즈니스 회사를 목표로 설립된 ISG와 융복합 글로벌시대에 맞는 글로벌 코칭 연구, 교육, 비즈니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스포츠코칭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코칭 지도자를 육성하기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어 스포츠산업에 기여하고있다.

아래는 지금까지 KCDC와 ISG가 함께 진행한 사업들이다.



호서대학교 리틀야구단 창단(2009년)



하이서울 온가족 연식야구 한다망 개최(2010년)



박노준 야구클리닉 (2010)



조문주 농구교실 (2010)



국비지원 해외취업연수(미국현지) 트레이너과정 (2011)



김정남 전 국가대표 감독 축구 클리닉 (2010)



하재훈 축구 아카데미 (2012)



E-러닝 전문기업 '크레듀'와 함께 "스포츠챔피언에게 배우는 성과창출 전략" 콘텐츠제작 (2011)



제2회 대한민국 야구박람회 주관 (2013)

다양한 스포츠 클래스 개설 및 운영

King's English 미국 생활영어 교육
겨울방학 공부하는 영어캠프
영어캠프 2013

대상	활동 기간	장소
중, 고, 대학생	2013. 1. 10 ~ 2. 7까지	안양시 2YM
중, 고, 대학생	2013. 1. 10 ~ 2. 7까지	안양시 2YM

방사열 isgagent@isgkorea.com
김현석 kimhyunseok.korea@gmail.com
김경용 kimjy0313@hanmail.net
김청일 (Jin Qingyi) philipkim17@hotmail.com

King's English 여름방학영어캠프학생모집 (애틀랜타 초중고 영어캠프)(2013)

FIFA 2013년도 (주)엔디네셔널스포츠그룹 주최
FIFA Players' Agent
자격시험 대비반

FIFA Players' Agent
시험에 합격을 축하합니다.

방사열 isgagent@isgkorea.com
김현석 kimhyunseok.korea@gmail.com
김경용 kimjy0313@hanmail.net
김청일 (Jin Qingyi) philipkim17@hotmail.com

FIFA Players' Agent 자격시험합격자 5명배출 (ISG주최)(2013)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 창단 (2015)

Baseball Lesson
마해영

개인 레슨비 안내

왕키지 지휘	30분 (1시간 10분 이상)	컨텐츠 제공 시 1시간 20분 추가
개인사범	40분 (1시간 이상)	시범과 함께 연습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높고,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제공 및 레슨비	20만원 (1시간 10분 이상)	
왕키지 지휘 레슨비	30만원 이상	레슨비 30만원 이상이면, 레슨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마해영 사회인야구 및 리틀야구교실 (2013)



매니지먼트 계약
프로 골프선수 김초희, 변현민, 서하경
리듬체조 선수 천송이



대학 LINC 사업단 동계 및 하계방학 단기현장실습생 학부생 (호서대, 순천향대, 한남대, 연세대, 한체대, 제주대, 상지대 등) 프로젝트 참여

대학생 대상 하계/동계 단기 현장실습 (2013-2020)



2014년 체육분야 전문직 운영기관(협회) 선정공고

체육산업육성재단이 추진하는 '2014년 체육분야 전문직 운영기관'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 선정공고하는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정의견은 불합격자를 선정하지는 않을 것임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관(Candidates) 및 체육관명

순	구분/구명	분야	관명	사무소소재지	관장명
1	대한체육회(대한체육회)	체육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	이정호
2	한국야구위원회	야구	한국야구위원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3	대한탁구협회	탁구	대한탁구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4	대한배드민턴협회	배드민턴	대한배드민턴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5	대한농구협회	농구	대한농구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6	대한수구협회	수구	대한수구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7	대한조정협회	조정	대한조정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8	대한체조협회	체조	대한체조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9	대한승마협회	승마	대한승마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10	대한사격협회	사격	대한사격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11	대한체력협회	체력	대한체력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12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산업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13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산업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14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산업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15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산업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16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산업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17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산업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18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산업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19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산업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20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산업	대한스포츠산업협회	서울특별시	김기태

체육인재육성재단 인턴 지원
 기타 스포츠산업 인재 육성사업

독립야구단 '연천미래클'

- 프로선수를 포함한 엘리트 선수들의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심층 분석 등으로 심리적 방해요인 해소
- 불안, 자신감 부재, 슬럼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스포츠심리 컨설팅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지속적인 교육자 역할



울산현대호랑이 임동천 선수 ▶

ISG-스포츠 심리 컨설팅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연천 미라클' 창단 (2015)



창단 및 운영지원
산학연관 협동 프로그램으로 창단



창단 두해, 연천미라클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 (2016)



여러 기업으로부터의
다양한 후원

기적의 사나이

Man of Miracle **M**



이케빈

삼성라이온즈 입단(2015년 08월)

2016 신인 지명회의에서 삼성 라이온즈는 2라운드 1순위로 이케빈을 지명했다. 이케빈은 연천미라클 출신으로 첫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강혁

NC다이노스 입단(2015년 12월)

삼성과 고양 원더스를 거쳐 입단한 이강혁은 어려서부터 타격의 소질이 있었으나, 프로에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마침내 그 소질을 인정받아 NC의 선택을 받았다.



김원석

한화이글스 입단(2015년 12월)

2012년 한화에 지명되었다가 방출되었던 김원석은 군복무 후, 미라클에 입단하여 한화와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다시 친정 팀의 부름을 받고 한화 이글스에 재 입단 했다.



조용성

삼성라이온즈 입단(2016년 05월)

어려운 환경에서도 프로 꿈을 놓지 않았다. 시즌 중에는 연천미라클에서 운동을 하다가, 비 시즌 때는 리틀 야구단 코치로 어린 선수들을 지도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5년 만에 다시 프로 유니폼을 입었다.



윤국영

NC다이노스 입단(2016년 11월)

윤국영은 장타력과 빠른 발을 가진 내야수이다. 16년 2월 열린 트라이아웃을 통해 연천미라클에 입단하여 주로 2루수로 뛰었지만, 3루수, 유격수가 가능하다. 16 시즌 프로팀과의 교류전에서 만루홈런 1개를 포함 5개의 홈런을 때릴 정도로 파워가 있고, 루상에서는 공격적인 주루플레이로 연천미라클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다.



'기적'을 만들어낸 '연천미라클'선수들

KCDC의 22년 역사

- 1998.11 코칭능력개발센터 (Coaching Development Center: CDC) 개소식(장소: 호서대)
서아람 프로 초청 골프 클리닉 개최(장소: 호서대)
- 1998.12 스포츠 아로마와 공식후원업체 조인식(장소: CDC 호서대)
- 1999.02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1999.02.25., 장소 : 호서대)
- 1999.03 교재발간(현대사회와 스포츠, 1999.3.2 농구, 1999.3.2 소프트볼. 초.중등교원연수지도서, 2001.7 테니스 교본, 2002.1.10.), 뉴스레터 발간(계간지), 논문집 발간(년 4회, ISSN 1229-6597)
- 1999.04 충남체육회 지도자 강습회(1999.4.13, 장소: 공주시 문예회관)
- 1999.05 KCDC 서울 사무국 현판식(1999.5.15, 장소: 고려대 사무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유소년스포츠연구원 자매결연(장소: 미시간주립대 유소년스포츠연구원)
- 1999.07 전국체전을 위한 천안시청 볼링 팀 심리상담 지원(장소: CDC 호서대)
- 1999.11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움(고려대 4.18 기념관: KBS 밤9시45분 스포츠뉴스 방영)
- 2000.03 스포츠닷컴과 산학협동제휴(2000.3.1, 장소: 호서대 CDC 사무국)
- 2000.07 소프트볼 연수 프로그램 실시-중등체육교사 대상(2000.7.24-8.4, 호서대)
- 2000.08 CDC 자격증(Advanced 레벨) 발급(2000년 8월 4일, 소프트볼 62시간 연수)
- 2000.09 제1회 CDC 우수코치 시상식(2000.9.1: 올림픽파크텔)
- 2001.03 멘탈 골프 클리닉 개설(호서대 체육관)
CDC 인천지부 설립(인천교대)
제2회 CDC 우수코치 시상식(올림픽파크텔)
한미양행, 클릭밸류와 산학협동제휴(올림픽파크텔)
- 2001.06 스포츠아트와 산학협동제휴(호서대 사무국)
- 2001.08 호서대학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축구지도자학과 석사과정 교육부 인가
- 2001.10 e-마라톤과 산학협동제휴(고려대 경영대 신관)
- 2002.01 코칭능력개발센터를한국코칭능력개발원(Korea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으로 명칭변경
- 2002.03 호서대학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축구지도자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20명 선발
- 2002.05 KCDC가 세계코치교육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Coach Education) B member로 가입
- 2002.06 KCDC 월례학술세미나 실시(서울 송도병원)
- 2002.07 KCDC 월례학술세미나 실시(서울 송도병원)
- 2002.10 홈페이지 개설-http://ikcdc.net
KCDC 마라톤학술세미나 실시(고려대 경영대 강당)
- 2002.12 KCDC 홈페이지 공식 오픈
KPGA 정회원 특강 실시(용인프라자콘도)
- 2003.02 평택 소프트볼 주부 특강(호서대)
- 2003.03 캐나다 코칭-John Bales(한국체육과학연구원)
- 2003.04 KCDC 월례학술세미나 실시(충남 도고 토비스콘도)
- 2004.02 KCDC 월례학술세미나 실시(호서대)
- 2004.04 ICCE 홍콩 학술대회 참가(홍콩 sport house)
- 2005.05 대한트라이애슬론협회 코치아카데미 특강(올림픽파크텔)
- 2006.08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스포츠지도자프로그램(ISLP) 협약체결
- 2006.12 스포츠 포털 사이트 오픈
- 2007.08 ICCE 북경 국제학술대회 참가(2007.08.30~09.03 북경체육대학교)
- 2007.10 경남코칭능력개발센터 제1회 세미나 개최(2007.10.20 창원대학교)
- 2008.01 KCDC 임원회의 (2008.01.07 서초동 평화빌딩 KCDC 사무국)

KCDC의 22년 역사

- MSU 스포츠 영어캠프 모집
- 2008.02 국제 스포츠 지도자 프로그램(ISLP) 모집
- 2008.03 ICCE 홈페이지에 IJCS등록
KCDC 스포츠 아카데미 개설(호서대학교, 서울 송도병원)
- 2008.06 제 1회 노인운동처방사 2급 자격 연수프로그램(서울 노블레스타워 그랜드홀)
1급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연수프로그램(호서대학교)
국제스포츠지도자프로그램(ISLP)(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체육학과)
- 2008.10 2009년도 야구 아카데미 모집
- 2008.11 KCDC 사단법인 설립인가
KCDC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 야구지도학과와 한국코칭능력개발원이 함께 하는 야구캠프(호서대학교, 목동 야구장)
- 2009.02 호서대학교 유소년스포츠클럽(호서대학교)
- 2009.04 KCDC 청기총회(서초동 KCDC 사무국)
- 2009.06 유소년스포츠지도사 1-3급 연수(숙명여자대학교, 남서울대학교)
- 2009.08 2010 ISLP 모집
- 2009.10 [경북지역]유소년 스포츠지도사 3급 연수(경북 안동대학교)
- 2009.11 ICCE 국제코치컨퍼런스 참가(캐나다 밴쿠버)
- 2009.12 코칭능력개발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 2010.03 KCDC 상임이사회 개최(대전역 혜화실)
- 2010.06 임시상임이사회 개최
유소년스포츠지도사 2급, 3급 연수(숙명여자대학교)
- 2010.10 제1회 연식야구지도자연수
- 2010.11 국비지원 해외취업연수(스포츠) (ISG)
- 2011.02 2011년 KCDC 정회원 및 이사 모집
- 2011.06 노인체육지도사 3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3급 자격연수(숙명여자대학교)
- 2011.07 ISLP(국제스포츠리더십프로그램) 7기 모집
- 2011.10 Sports&Exercise Specialist(SES) 집중자격연수
- 2011.11 2기 스포츠트레이너 집중자격연수
- 2012.04 ICCE 국제학술대회 참가(중국 북경)
3기 스포츠트레이너 집중자격연수
KCDC 사무국 본부 이전
- 2012.06 유소년스포츠지도사 3급 자격연수
노인체육지도사 2급, 3급, GX휘트니스지도사 2급, 3급, 라인댄스지도사 2급, 3급, 실용댄스 2급, 3급 자격연수 실시
- 2012.07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체육지도사 자격연수
- 2012.09 노인체육지도사 자격연수
- 2012.11 KCDC 이사회 (서초동 KCDC 본원 사무실)
- 2012.12 KCDC 정기총회
코칭능력개발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등재지 선정
- 2013.03 이충희 키 성장연수(KCDC 유소년체육지도사 3급)
- 2013.04 KCDC 센터/지부/지회 회장단모임 및 회의
- 2013.05 노인체육지도사 2급, 3급, GX휘트니스지도사 2급, 3급, 라인댄스지도사 2급, 3급, 실용댄스 2급, 3급 자격연수 실시

KCDC의 22년 역사

- 2013.06 유소년스포츠지도자 3급 자격연수
- 2013.09 해양스포츠 코칭 지도사 3급 자격연수(제주대학교)
- 2013.12 13년 KCDC 이사회/정기총회
- 2014.01 ISLP(국제스포츠지도자프로그램) MSU(미시간 주립대) 동계 어학연수
- 2014.05 유소년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연수
- 2014.08 커리어코칭 전문가 자격증 교육(한경아카데미 강의장)
- 2014.09 해양스포츠 코칭 지도사 3급 자격연수(제주대학교)
- 2014.12 14년 KCDC 이사회/정기총회
- 2015.08 15년 체육분야 인턴지원 사업 시행기관 선정
- 2015.09 해양스포츠 코칭 지도사 3급 자격연수(제주대학교)
- 2015.10 제10회 ICCE 국제학술대회 참가(핀란드 비에루마키)
- 2017.07 2017 유소년스포츠지도자(축구) 3급 자격연수(수원시)
- 2017.09 해양스포츠 코칭 지도사 3급 자격연수(제주대학교)
- 2017.12 17년 KCDC 이사회/정기총회(천안아산역 아로실)
- 2018.08 대한축구협회 축구국가대표 제2트레이닝센터 용역 수주
- 2018.09 해양스포츠 코칭 지도사 3급 자격연수(제주대학교)
- 2018.10 코칭능력개발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등재지 선정
- 2018.11 KCDC 20주년 학술세미나(제주 로베로 호텔)
- 2019.01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유치 제안서 서명부 제출
- 2019.02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유치 주민설명회 개최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유치 2차 심사 통과
- 2019.04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현장실사
유소년스포츠지도자(야구) 3급 자격연수
- 2019.05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1순위 선정
[t-broad] 박정근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기획단장 인터뷰
충청투데이 NFC 천안유치 숨은공신 “민관실무유치팀” 박정근원장 보도
“KBS뉴스대전, 생생토론 축구종합센터 천안시대 열렸나?” 박정근원장 토론자로 참가
- 2019.08 KCDC 임시총회(천안아산역 회의실)
2019년도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3급 자격 연수(9.21-29, 토.일)
- 2019.12 KCDC 정기총회(천안아산역 회의실)
ICCE 국제학술대회 참가(일본 도쿄, 10.30-11.1))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 2020.02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추진단 자문위원 위촉
- 2020.07 제이스포츠 베이스볼 아카데미 협업
- 2020.09 2020년도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3급 자격 연수(9.19-27, 토.일)
- 2020.12 KCDC 이사회 및 총회(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줌 화상회의 진행)
- 2021.01 KCDC 전국 축구/야구 지회 모집
영어프리토킹 클럽 회원 모집

KCDC와 함께한 ISG의 역사

- 2009.05.15 중기청산하(사)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실험실 창업공모 선정
- 09.09.11 사업자등록: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사업자등록번호 214-88-47539
- 09.12.03 스포츠 벤처기업 창업모임(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09.12.18 FIFA 선수에이전트 영입/선수 매니지먼트 사업 개시
- 09.12.20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 MOU 체결
- 09.12.28 경영진 및 자문위원 구성 완료
- 2010.01.14 ISG Sports Celebrity Management, Sports Academy 사업개시
- 10.01.20 강원FC 이재훈 선수 에이전시 계약 체결
- 10.01.28 서울 세계 비치발리볼 월드컵 홍보, 마케팅 업무 대행
- 10.01.30 고양시 사회인 야구동호회 야구클리닉(박노준 부사장)
- 10.02.24 이병훈 배팅스쿨(사회인 야구 클리닉)개최
- 10.03.20 호서대 스포츠클럽, 강신우 축구교실 운영대행
- 10.05.11 온라인 스포츠심리 기술인증(KIBO 기술보증기금)
- 10.05.20 호서대학교 스포츠산업 벤처연구소 MOU 체결
- 10.06.15 박정근 대표 MBC뉴스광장 방송출연(허정무, 박지성 리더십 인터뷰)
- 10.06.23 박정근 대표 MBC뉴스광장 방송출연(월드컵 16강 진출의 원동력 분석)
- 10.06.25 대우증권 VIP 골프대회 운영대행
- 10.06.28 유소년 스포츠지도자 연수 개최
- 10.07.03 뉴욕핫도그 판매 운영대행(하계 광명수영장 스포츠이벤트)
- 10.07.15 산업인력공단 국정과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 및 국내인력의 성공적 인 해외취업 지원사업’ 을 위해 미국 애틀란타 방문(애틀란타 타임즈 보도)
- 10.08.10 스포츠저널/인터내셔널 온라인 판매 서비스 실시
- 10.09.25 해외취업연수(스포츠직종)교육,취업연계MOU체결(ISG-길인력개발원)
- 10.10.10 말레이시아 골프관광상품 판매
- 10.10.13 "2010 하이서울 온가족 연식야구"한마당 개최
- 10.11.06 박노준 야구클리닉 개최
- 10.11.14 호서대학교 리틀야구단 트라이아웃실시
- 10.11.01 세비야FC 유소년 축구캠프 개최
- 10.11.20 세계 유일의 스포츠산업 특성화대학 American Sports University 입시설명회 개최
- 10.12.11 조문주농구교실 운영(남양주시 본점-평내호평동)
- 2011.02.11 해외취업연수 야구 트라이아웃 실시(마산 용마고)
- 11.02.14 본사 사무실 이전(서초동 1599-11 리더스빌딩 1303호)
- 11.03.21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국야구 취업연수 실시
- 11.06.22 제1기 스포츠 객원마케터 과정 시행
- 11.08.11 (사)한국야구위원회 KBO와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전략적 제휴관계 업무협약 체결
- 11.09.15 국내최고 E-Learning 전문기업 크레듀(Credu)와 "스포츠 챔피언에게 배우는 성과 창출전략" 콘텐츠 제작
- 11.09.19 ISG 스포츠 Product(의류) 사업 시작(ISG 브랜드 런칭)
- 11.09.22 리듬제조 천송이 선수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과 매니지먼트 계약
- 11.09.24 축구선수 문규현 선수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과 에이전시 계약
- 11.10.01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벤처창업사업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지원 및 협약(과제명: 새로운 스포츠 벤처기업 사업 모델 개발 및 현장적용, 사업기간: 2011년 10월 1일~2013년 9월 30일)
- 11.10.07 Edward Young's Sports English Class(에드워드영의 스포츠 영어교실)개강
- 11.10.29 Sports & Exercise Specialist(SES) 집중자격연수 1기 실시(스포츠트레이너)

KCDC와 함께한 ISG의 역사

- 11.11.01 호서대학교 창업동아리 외주제작 업체 선정
- 11.12.08 화명한솔병원(김해한솔병원)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과 MOU 체결
- 2012.01.03 프로야구 야구장 팬스광고 스폰서십 대행 업무 시작(히어로즈 홈구장 목동야구장)
스포츠심리 상담 컨설팅 업무 시작
- 12.01.11 리듬체조 국가대표 천송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홍보영상 출연
- 12.01.19 제6회 SM-PAIR "스포츠 국가를 뛰게하다!"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박정근 대표이사 스포츠창업 주제로 강연
- 12.03.07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스마터'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과 스포츠 객원마케터 실무과정 활동 시작
- 12.03.16 리듬체조 천송이 환태평양 체조대회 주니어대표 출전
- 12.03.21 천송이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
- 12.03.30 스포츠산업 JOB FAIR 2012 참가(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 인턴사원 채용)
- 12.04.07 리듬체조 천송이, 서울소년체전 중등부 우승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스마터' 리듬체조 천송이 선수 써포터 창단
- 12.04.08 하재훈 축구아카데미 운영
- 12.04.13 리듬체조 국가대표 천송이, FIG(국제체조연맹) 폐자로 월드컵 출전
- 12.04.20 명지전문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 12.04.25 프리스티지 & 로빈슨(Prestige&Robinson) 한국지사과 스포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시작
- 12.04.27 본사 사무실 이전(서초동 1422-7 호서빌딩 608호) (구)코리아나빌딩
- 12.05.12 리듬체조 천송이, 국가대표 선발전 주니어 대표로 선발
- 12.05.29 리듬체조 천송이 제41회 소년체전 개인종합우승
- 12.05.30 중기청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선정(스포츠스타 애장품 판매를 위한 스포츠 콘텐츠 개발,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자회사)-스타기프트 www.istargift.com
- 12.06.03 조문주농구교실 제1회 중등부 농구대회 개최
- 12.06.11 호서대학교 LINC 사업단 재학생 장, 단기 현장실습 협약(체육인재육성 project)
- 12.07.02 리듬체조 천송이 제25회 회장배 전국리듬체조 개인종합우승
- 12.07.22 리듬체조 천송이 제28회 회장배 전국중,고 리듬체조 개인종합우승
- 12.07.24 중기청 맞춤형기술창업육성사업 선정(시니어 뉴스포츠 장비개발 및 노인체육지도자 전문인력양성,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자회사)-시니어레포츠
- 12.08.22 리듬체조 천송이,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대표로 선발
- 12.08.24 제주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 12.09.03 리듬체조 천송이 KBS2 “굿모닝 대한민국” 3주연속 (월요일 AM07:00) 출연
- 12.09.11 리듬체조 천송이, 제37회 KBS배 리듬체조 개인종합 우승포함 2관왕
- 12.11.02 King's English 겨울방학 스포츠랭귀지 영어캠프 12-1기 실시(미국애틀란타 초중고영어캠프)
- 12.12.01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 협약(체육인재육성 project)
- 12.12.05 코칭능력개발지(한국코칭능력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등재지 선정
- 12.12.06 호서대학교 공학혁신교육센터 재학생 장, 단기 현장실습 협약(체육인재육성 project)
한국체육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산학협력 협약(체육인재육성 project)
- 2013.01.03 스타기프트 홈페이지 개발완료 www.istargift.com
- 13.01.23 2013 교육박람회 Education Fair 2013 참가
- 13.04.12 2013년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사업 인턴운영기관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선정
- 13.05.04 제주대 체육영재센터 개강식 (박정근교수 특강)

KCDC와 함께한 ISG의 역사

- 13.06.07 2013 유소년스포츠지도자 3급 자격연수(상지대학교)
- 13.06.24 유소년인성코칭지도사 3급(전남 보성 농어촌 인성학교)
- 13.06.27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전주방송과 제2회 대한민국야구박람회 상호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
- 13.07.03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 스포츠 객원 마케터 5기 과정 실시
- 13.07.19 Coex Holl C 2013년 제2회 대한민국야구박람회 주관
- 13.08.06 2013 FIFA PLAYER'S AGENT 자격시험대비 특강/연수
- 13.08.14 '13스포츠토토 스포츠캠프 마해영 유소년 야구클리닉
- 13.09.29 2013-1회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3급 자격연수(제주대학교)
- 13.12.23 스포츠 객원 마케터 6기 과정 실시(호서대 LINC, 한국체육대 종합인재, 상지대LINC 재학생 장, 단기 현장실습 체육인재육성 project)
- 13.12.30 호서대학교 축구부 팀 유니폼 기획 및 제작(아디다스 홈&어웨이)
- 2014.01.13 국제스포츠지도자프로그램(ISLP) 동계 연수(6주) 실시
- 14.03.17 YK미디어-스포츠Q(ISG 산학협력기관)에 '박정근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기사 연재
- 14.05.01 해외유학생대상 하계 인턴쉽(3개월) 실시
- 14.05.10 2014 유소년스포츠지도자2급 자격연수(상지대학교)
- 14.05.28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ISG 산학협력기관)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 지원학회 선정
- 14.06.01 2014년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사업 인턴운영기관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선정
- 14.06.16 스포츠 객원 마케터 7기 과정 실시(호서대 LINC 사업단, 상지대LINC 사업단 하계 재학생 장, 단기 현장실습 체육인재육성 project)
- 14.09.20 2014-2회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3급자격연수(제주대학교)
- 14.11.21 호서대학교 체육학과(ISG 산학협력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선정(충청권 단독)
- 14.12.05 독립야구단 야구선수 모집 1차 설명회
- 14.12.10 KLPGA투어 서하경(세종대)프로 골프선수 매니지먼트 계약
- 14.12.11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중부대와 산학협력체결
- 14.12.23 호서대학교 LINC사업단 재학생 동계 단기 현장실습(2개월) 실시, 체육인재육성 project
- 14.12.30 호서대학교 축구부 팀 유니폼 기획 및 제작(나이키 홈&어웨이)
- 2015.01.01 호서대학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충청권 유일 연수기관 선정
- 15.01.02 임중석 본부장(FIBA 에이전트 자격 소지) 농구 매니지먼트 사업 개시
미국축구 3부 리그 USL 축구선수 진출 에이전트 사업 개시
- KLPGA투어 서하경(세종대)프로 (주)보그 인터내셔널(DFD패션그룹)과 골프의류, 용품 후원계약 체결
- 15.01.06 KLPGA 서하경과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 15.01.13 독립야구단 야구선수 모집 2차 설명회
- 15.02.09 KLPGA투어 김초희 프로 골프선수 매니지먼트 계약
- 15.02.23 KLPGA투어 변현민 프로 골프선수 매니지먼트 계약
- 15.03.17 연천군-미라클 독립야구단 타이틀스폰서계약 조인식, '연천미라클구단' 명칭확정
- 15.03.20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야구단' 창단식, 장소:고대산연천베이스볼파크
- 15.03.26 도드람양돈농협 본래순대, 연천미라클 공식 후원
- 15.04.01 KLPGA투어 서하경(세종대) (주)엠에프에스코리아(MFS)와 용품 후원계약 체결
- KLPGA투어 서하경(세종대) (주)대방건설과 메인스폰서 계약 체결
- 15.04.03 서울스포츠(주) 각종대회 및 행사 업무제휴(MOU)
- KLPG투어 김초희 (주)케이와이제이 로드(김영주골프) 의류후원계약 체결
- 15.04.20 '연천미라클야구단' 공식경기 첫승, 對고양다이노스(NC다이노스 산하)

KCDC와 함께한 ISG의 역사

- 15.06.26 호텔 아벤트리 연천미라클선수단 전원에게 식사 후원 및 후원회 개최
- 15.07.05 ㈜엠에프에스코리아(MFS)와 골프클럽 피팅프로그램 업무 양해각서 체결
- 15.07.09 KLPGA투어 서하경(세종대) ‘BMW Ladies Championship 2015’ 최종라운드 12번홀 홀인원 기록으로 2억원 상당 BMW스포츠카 i8획득
- 15.08.12 스포츠객원마케터 11기 과정 모집(1개월, 2개월, 3개월 과정)
- 15.08.24 재미교포 2세 이케빈, 신인2차 드래프트(2R 1차) 삼성 라이온즈 입단
- 15.09.17 연천미라클의 입단 테스트
- 15.09.19 연천미라클, 16년도 선수 공개모집(19일 26일 양일간)
- 15.10.06 NC 다이노스 팬들, 원종현 이름으로 연천미라클에 후원금 전달
- 15.10.14 대전 중구야구연합회 회장, 독립 리그 연천미라클 야구단 후원
- 15.12.03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소속 김원석 선수, 한화이글스 입단
- 15.12.17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소속 이강혁 선수, NC 다이노스 입단
- 2016.01.12 원더스 OB 모임, 연천미라클에 훈련 지원금 전달
- 16.02.18 연천미라클, 2월 18일~19일 선수 공개 선발 진행
- 16.05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소속 조용성 선수, 삼성 라이온즈 입단
- 16.06 스포츠객원마케터 12기 과정 모집
- 16.11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소속 윤국영 선수, NC 다이노스 입단
- 16.11.30 ISG, KCDC 사무실 화재
- 2017.09.16 2017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3급 자격 연수(9.16-24, 토.일)
- 17.12.26 스포츠 객원 마케터 13기 과정 실시(호서대 LINC 재학생 단기 8주) 현장실습
- 2018.05.18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축구협회간 축구국가대표 제2 트레이닝센터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 18.06.25 스포츠 객원 마케터 14기 과정 실시(호서대 LINC 재학생 단기 8주) 현장실습
- 18.08.24 2018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3급 자격 연수(9.8-16, 토.일)
- 18.11.09 2018 KCDC 20주년 기념학술대회 개최
- 2019.01.11 천안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 제안서 제출
- 19.02.12 천안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 주민설명회 개최
- 19.04.02 2019 유소년스포츠지도자(야구) 3급 자격 연수
- 19.04.23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현장실사
- 19.05.16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시 1순위 선정
- 19.05.24 KBS뉴스대전, 생생토론 축구종합센터 천안시대 열렸나? 박정근교수 토론자로 참가
- 19.09.21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3급 자격 연수(9.21-29, 토.일)
- 19.10.30 KCDC 임원진 ICCE Global Coach Conference 참석(10.30-11.1)
- 19.12.27 KCDC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 2020.01.02 스포츠 객원 마케터 15기 과정 실시(순천향대 LINC 재학생 단기 8주) 현장실습
- 20.07.27 스포츠 객원 마케터 16기 과정 실시(순천향대 재학생)
- 20.07.29 제이스포츠 베이스볼 아카데미 협업
- 20.09.19 2020년도 해양스포츠코칭지도사 3급 자격 연수(9.19-27, 토.일)
- 20.12.04 2020년 KCDC 이사회 및 총회(코로나 때문 비대면 줌 화상회의 진행)
- 20.12.21 스포츠 객원 마케터 17기 과정 실시(순천향대, 한남대, 연세대 LINC 재학생 단기4주-8주 현장실습)
- 2021.01.15 전국야구지회 모집
- 21.01.15 전국축구.야구지회 모집
영어프리토킹클럽 회원 모집

Overview of the 22-year history of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

Jeong-Keun Park *
Hoseo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bstract

A coach is a very important person who influences players' performance in sports situations. Coaching is also a major factor in improving players' performance. In this sense, the author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aches and coaching in advance and made efforts to create coaching-related organizations, which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current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history of KCDC and 12 thematic projects and activities that KCDC has been working on since its founding on November 7, 1998 and re-examine the past and future of sports coaching and make a new leap forward in the field of sports coaching. Based on the existing four research and oral presentation papers (Park, 2007, 2008, 2018, and 2019) related to KCDC history,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se papers. KCDC websites (www.ikcdc.net, www.isgkorea.com),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and related data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for 22 years. Details of the measuring tools are below. Data were analyzed by categorizing many activities into similar activities or projects for 22 years. The KCDC had worked a lot of projects and activities for 22 years so that 12 extensive projects and activities were categorized. The highlights of the Center's projects and activities include: publications, academic seminar, Graduate School, private qualifications training, training programs, Regional Coaching Development Center, CDC Successful Coach Awards, coaching clinic & academy, international exchange, financial support, industry-academic-research center-government cooperation,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Sports Group (ISG). The KCDC plans to continue its strong work in order to fulfill its objectives.

*Corresponding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Jeong-Keun Park, Ph.D., Professor, Dept. of Sport & Exercise Science, College of Art & Sport, Hoseo University, Asan City, Chungnam 31499, Republic of Korea, Phone: 82-41-540-5872, Cell Phone 82-10-2306-4917, Fax: 82-41-540-5199, e-mail: jkpark@hoseo.edu, jkpark3838@naver.com

Therefore, KCDC and ISG aim to be a global coaching research/education/business institute, to contribute to the globalization of sports coaching by global human networks, to nurture global coaching leaders for the era of fusion and convergence, and to contribute to global sport industry by forming strategic alliances with KCDC and ISG.

Keywords: Coaching, KCDC, Dept. of Soccer, Dept. of Baseball, IJCS, ISG, ISG Miracle

Received June 05, 2020

Revised July 28, 2020

Accepted July 29, 2020

Introduction

A coach is a very important person who influences players' performance in sports situations. Coaching is also a major factor in improving players' performance. In this sense, the author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aches and coaching in advance and made efforts to create coaching-related organizations, which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current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history of KCDC and 12 thematic projects and activities that KCDC has been working on since its founding on November 7, 1998 and re-examine the past and future of sports coaching and make a new leap forward in the field of sports coaching.

The Formation of the KCDC

The Coaching Development Center (CDC) was established by Dr. Jeong-Keun Park (Founder/President for 22 years) on November 7, 1998. Dr. Park officially opened the CDC at the Gymnasium 210, which is his office at Hoseo University. The CDC wa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through scientific research and education on coaching as well a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sports in Korea. The mission of the CDC was to improve the quality of elite, youth, and elderly-sports coaching in Korea. In January 2002 the official name was changed to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 The KCDC is neither a school nor college, but is the only institute research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for coaches in Korea.

Many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aches, and sport administrators are associated with the KCDC. Over 100 Korean university professors connect with this institution and over 1,000

coache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nd other members of the sporting community are members. The demographics of the KCDC body are as follows (as the KCDC is currently comprised): 1 President, 10 Vice Presidents, 1 Secretary General, 141 Directorial Board Members, 40 Editorial Board Members for the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38 Editorial Board Members f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and 11 branch offices (the KCDC will extend to 17 regional centers and branches, and as many branches as possible in the future).

The KCDC Objectives

The KCDC was founded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 to enhance the quality of coaching at every level of sport
- to apply, promote, and utilize sport research in the field of training and competition, especially coaching
- to promote sport coaching as a profession
- to support the critical role of the coach
- to put in place effective coaching education systems
- to promote networking academically and socially among members
- to exchange knowledge, expertise, and information in the field of coaching
-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coaches and athletes
- to promote sport and sport values, and a moral code in coaching
- to publish professional publications in the field of coaching education

The KCDC has worked hard to fulfill these objectives. The center has held seminars and

workshop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udiences in a variety of sports. The center also contributes articles in the newsletter of the Korea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KPGA) and Korea Football Association (KFA), and has published a journal, an international journal, and several texts on sport and coaching theory.

The KCDC has four categories of members

- “Regular” members are professors, coaches, sport leaders, and graduate students who pay \$ 100 annual fee
- “Student” members are undergraduate students who pay \$50 annual fee
- “Institutional” members are institutions who pay \$200-500 annual fee
- “Life-long” members are individuals who pay \$1,000 life-long membership fee

Method

Subje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all subjects and contents related to KCDC activities for 22 years from 1998 to 2020.

Procedure

Based on the existing four research and oral presentation papers (Park, 2007, 2008, 2018, and 2019) related to KCDC history,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a more complementary form.

Measuring Tools

KCDC websites (www.ikcdc.net, www.isgkorea.com),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and related data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for 22

years. Details of the measuring tools are below.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categorizing many activities into similar activities or projects for 22 years.

Results

The KCDC had worked on a lot of projects and activities for 22 years so that 12 extensive projects and activities were categorized. The highlights of the Center’s projects and activities include:

1. Publications
2. Academic Seminars
3. Graduate School
4. Private Qualifications Training
5. Training Program
6. Local Coaching Development Center
7. CDC Successful Coach Awards
8. Coaching Clinic & Academy
9. International Exchange
10. Financial Support
11. Industry-Academic-Research Center-Government Cooperation
12. Co-Work with ISG

1. Publications

The KCDC publishes a quarterly coach magazine, academic journal, a biannual international journal, and books that relate to coaching. The Coach and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are published quarterly every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is published every January and July.

COACH

The COACH is the official report or newsletter of the KCDC and provides much information for coaches in the sporting fields. The first issue of the COACH was published in 1998. The contents include columns on the following: coach interviews, coaching science (training, biomechanics, psychology etc.), women in sports, special features on successful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aches, athletes' preferred coaches, and skill training and strategies in each specific sport. The COACH has been evaluated as an excellent magazine for providing practical information for coache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JCD)

Sports science journals are at times very difficult for coaches to read and understand. Because of the gap between coaching and sports science, coaches do not often receive beneficial inform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modify journals to better meet the needs of coaches. The aim of JCD is to bridge the gap between coaching and sports science. This journal was made accessible to coaches by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in sports science and translating knowledge into working practice. The first issue of the journal was published in 1999. The journal then started publishing biannually and has been published quarterly since 2005.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selected

the journal as a registered candidate journal in September 2004. Upon its registration, the KCDC published the JCD quarterly every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The journal has been a registered journal in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since January 2012. This journal is categorized as a coaching specified review journal. The journal represents field research, skill training and strategies in sports, a variety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case studies of work between sports scientists and coaches. The journal also encourages the submission of papers, which may have been presented in a forum or conference.

Interested areas of the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are as follows:

- | | |
|--|---|
| -Coaching young athletes | -Management for coaches |
| -Coaching elite athletes | -New trends in sports training |
| -Coaching for elderly people | -Coaching education |
| -Coaching for leaders | -Careers in sports coaching |
| -Coaching athletes with disabilities | -Coaching ethics & philosophy |
| -High performance coaching: psychology | -Effective use of statistics |
| -High performance coaching: training | -Social perspectives in sports coaching |
| -Performance analysis | -Coaching and nutrition |
| -Skill training and strategies/tactics | -Coaching and women |
| -Rehabilitation for athletes | -Coaching and laws |
| -IT in sports coaching | -Coaching and environment |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IJ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is a joint project of the ICCE (co-publisher: John Bales) and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co-publisher: Jeong-Keun Park), under

the direction of co-editors Dr. Phil Sullivan from Brock University in Canada and Dr. Jeong-Keun Park from Hoseo University in Korea. The IJCS is a scholarly journal presenting rigorous, peer-reviewed research on the science of coaching. The journal began publication in 2007 with two issues (January and July), and will soon be published quarterly. The studies include a variety of scientific fields focusing on coaching, including psychology, pedagogy, training, biomechanics, and management.

History

The author, Jeong-Keun Park, is now the president of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 During his leadership with the KCDC, Dr. Park has strived to expand the center into one of global research and an academic society of the future. With this goal in mind, it was clear early on that the KCDC needed to publish a high-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Dr. Park met with John Bale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ICCE at the ICCE Global Conference. Park expressed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journal publication on coaching and requested the collaboration of the ICCE with the KCDC. After Bales returned to his country, Canada, he sent Park an e-mail concerning Dr. Sullivan who was interested in publishing on coaching science.

Drs. Park and Sullivan met at MSU in the summer of 2005 to initiate the publication work. During that time Park was a visiting professor at MSU. These three individuals worked to create and initiate the new journal for a year and a half. Now the KCDC and the ICCE publish a bi-annual international journal name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IJCS). The IJCS will be registered in the SSCI in the near future.

Researchers interested in investigating the realities facing coaches have not had a specific scientific journal dedicated to coaching and coach education where they can publish their resul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provides such a vehicle, where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can share their perspectives to advance the field of coach education (Bales, 2007).

Sport Books (1998-Present)

The KCDC began publication of books in 2007 including books such as Modern Society & Sport, Tennis, Basketball, Softball, Tennis, Applied Coaching, Youth Sport Manual (Beginner, Intermediate), Sport & Exercise Psychology.

2. Academic Seminar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Seminar)

The KCDC he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participated in by 100 coaches and scholars with the topic "Mental training program for coaching development" at Hoseo University on Feb. 25, 1999. The speakers included Dr. Lars-Eric Unestahl from Scandinavia International University, Dr. Mark Andersen from Victoria University in Australia, and Dr. Riho Tonoue, a mental trainer from Kihuhwun Sport Center in Japan.

The KCDC 1st Anniversary Symposium

The KCDC first year anniversary symposium was held at the Korea University in Seoul on Nov. 20, 1999. Three hundred sport-related leaders participated in the symposium with the topic "The role of leaders for successful sport performance: New millennium coaches". Presenters were Dr. Jeong-Keun Park, Dr. Myung Ki Park, and Dr. Ki Jin Kim. Discussion panels were led by Ku Yeun Heo, Moon Joo Cho, Jae Yong Chung, Dr. Yong Sik Lee, Dr. Hyung Kyun Chung, Won Hong Chu, and Yong Woo Lee.

The Global Conference for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This is also the ICCE Continental Conference for Asia (ICCE Asian Regional Coach Conferenc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The Conference was held at Hoseo University in Korea on Nov. 7-8, 2008. One hundred sport-related leaders (international sport and exercise science experts, key note speakers, coaches, and sport administrator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nd Practice in Coaching and Coach Education". 37 abstracts were presented. The conference was critical in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improving skills of coaches and athletes. Enhancing the quality of coaching and applying, promoting, and utilizing sports research are just a few of our organization's fundamental goals.

The Conference for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The Conference for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CDC was held at the Hotel Roboro in Jeju, Korea on Nov. 9-10, 2018. Two hundred sport-related leaders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with the topic "Research and Practice in Sport Coaching". 23 abstracts and 12 posters were presented.

3. Graduate School of Coaching Development at Hoseo University

The KCDC have cooperated with the Graduate School of Coaching Development at Hoseo University.

Department of Soccer Coaching

The first Master's Degree program for soccer coaches in Korea was sanctio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on August 2001, and on March 2002 twenty graduate students were selected. It is classified as a special graduate school and serves club,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semi-pro, and professional coaches. Curriculum includes a two-week

international training session in either Germany or the USA.

The program provides over 420 hours instruction in the total two and a half years. Certifications provided are Grand Master Level certified by the KCDC and a Master's Degree certifi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Master and Grand Master Level Certifications were issued to 9 soccer coaches who received their master degree (420 hours) at Hoseo University based on the GPA.

Department of Baseball Coaching

The first Master's Degree program for baseball coaches in Korea was established on March 2004. This is also sanctio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The Korea Baseball Association Executive Committee officially decided that graduates from the Department of Baseball Coaching at Hoseo University will have a coach position directly without a Level 2 coach certification certified by the Seoul Olympic Sports Promotion Foundation.

4. Accredited Certification (Training for private qualifications: 17 certificates)

17 certificates are registered in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 2013 (with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Oceans & Fisheries).

- Youth Sports Coach
- Youth Character Coaching Leader
- Sport & Exercise Leader for the Elderly
- Line Dance Leader for the Elderly

- Sports & Exercise Rehabilitation and Trainer
- Sport Marketing Specialist
- Recreation Leader
- Yoga Leader
- Silver Recreation Leader
- GX Practical Dance Leader
- GX Fitness Leader
- Marine Sports Coaching Leader
- Campus Certification Coach
- Career Coach
- Career Learning Coach
- Senior Leader Coach
- Football Skill

Currently, the KCDC accredits Beginning (Level 3, 30 hours), Intermediate (Level 2, 60 hours), Advanced (Level 1, 120 hours), Master (Level M, 240 hours), and Grand Master (Level GM, 480 hours) Certification. From 2009 (from 2013 for training programs for private qualifications) certificates programs were began such as Youth Sports Coach (Level 3) at Sook Myung Women University, Seoul, Namseoul University, Chungnam , Andong National University, Kyungbook (2009), Sport & Exercise Leader for the Elderly (2011), Youth Character Coaching Leader (Level 3) (2013), Marine Sports Coaching Leader (Level 3) (2013) etc.

5. Training

Softball Training Program for School Teachers

43

The first KCDC certification was an Advanced Level Certification (62 hours) for softball coaches on August 4, 2000. The softball certification program for middle/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coaches was held at the Athletic Field of Hoseo University for 10 days from July 24 to August 4, 2000. The KCDC gave the Advanced Level Certifications to 20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coaches after pass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tests.

Training for Sports & Exercise Specialist (SES)

The training program for sports & exercise specialist was held at Hoseo University (training place) and Haneol Sport Medical Clinic (practice place) from Oct. 29, 2011 to Feb. 7, 2012 every Saturday. and Sunday. The KCDC gave the Basic (expense \$380), Advanced (\$580), Professional (\$1,200) level certifications, and total 3 programs certifications (\$ 1,990) to 7 physical education students.

For trainees who have obtained a Professional certificate, various internships and employment sites will be provided, including Haneol Sport Medical Clinic, Hwamyung Hansol Hospital, Kimhae Hansol Hospital, and links to overseas employment training in the U.S by national funding.

1st Leader Qualification Training for Lee Choong Hee's Height Growth Club

This certification program was held at Gymnasium of Hoseo University for 1 day, 2013. The KCDC gave the Level III Certifications to 50 students, P.E teachers, and coaches after pass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tests.

6. KCDC Organization: KCDC Headquarter, 17 Regional Coaching Development Centers, KCDC 17 Regional Branches, and Branches (3,000 members)

44

KCDC's history is as follows: CDC headquarter was opened at Hoseo University in 1998, CDC Seoul office was opened at Korea University in 1999, CDC Incheon branch office was opened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1, and currently 11 branch offices (7 Regional Coaching Development Center or 1 KCDC Regional Branch and 3 KCDC Branches) were established and the KCDC will extend to 17 regional centers and branches, and as many branches as possible in the future.

Regional Coaching Development Center (RCDC)

The center plays an education-oriented role, so current professors usually take charge of the center. It is formed in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the center has to comprise 1 president, vice president(s), directors, and 1 secretary general. The annual membership fee of the center is \$1,000 (1 million won). The Kyungnam Coaching Development Center was established and held the 1st seminar in 2007.

The names and universities of presidents are as follows:

Kyungnam CDC President: Dr. Lee Kang Heu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aegoo CDC President: Dr. Kim Ki Jin (Kyemyung University)

Jeju CDC President: Dr. Yang Myung Hwan (Jeju National University)

Kangwon CDC President: Dr. Park Chang Beum (Sanji University)

Kwangju CDC President: Dr. Shin Jeong Hoon (Songwon University)

Kyungbook CDC President: Dr. Park Seong Ryul (Institute for Training Science)

Chungnam CED President: Dr. Lee Seok Jun (Dankook University)

KCDC Regional Branch and Branch

The regional branch and branches play a business-oriented role, so anyone can take charge as the branch president/head of the branch. The regional branches are formed in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and the branches may be formed regardless of place, and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a branch office has to comprise of president, vice-president, director, or secretary general. The annual membership fee of the branch is the same as regional center and branch (\$1,000 = 1 million won).

The names and institutions of presidents are as follows:

KCDC Kyunggi Branch President: Dr. Kim Min

KCDC Branch (Department of Baseball, Hoseo University) President: Lee Chang Leol

KCDC Branch (Department of Soccer, Hoseo University) President: Lee Doo Chul

KCDC Branch (GX 100 Aerobic Leader Association) Branch President: Dr. Kim Min

Benefits

- Co-Work: Headquarter, centers, and branches conduct joint national & local government projects
- Award to the best regional centers and branches every year
- Obtain service achievement score of each university
- Submit manuscripts to the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 Socialization & information exchange with global network

7. Successful Coach Awards

The KCDC presents successful Coach Awards. The award ceremony host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KCDC and s4ts.com is a ceremony for coaches who contribute to Korean sport development and coaches who improve performance enhancement of athletes by systematic and scientific training methods.

The 1st KCDC successful coach award was held at the Room Mokryun, Olympic Parktel, Seoul on September 1, 2000. 80 members of the KCDC participated in the ceremony. Award recipients were Cheol Yong Kim, a coach of the LG Volleyball Team and Myung Soo Han, a table tennis coach at Chungang High School in Cheonan, Chungnam. The 2nd Award recipients were Young Sul Chang, coach of the Korean Military Archery Team and Kwan Seop Cho, a coach of Pungsaeng High School Soccer Team, and the ceremony was held at the Room Jindalae, Olympic Parktel, Seoul on March 23, 2001. The 3rd recipient was Seong Koo Woo who is a coach of the Track and Field Team at Yeungnam University, awarded at the Great Hall of Songdo Hospital on December 7, 2002.

8. Coaching Clinic & Academy

There are many clinic and academy activities that have been operated by KCDC. These are as follows:

- Seo A Ram Pro Invitation Golf Clinic (Hoseo University) (1998)
- Chungnam Sports Council Coaching Conference (1999)
- Lectures for Coaches of Asia Archery Game, Kyungnam Sport Council, Korea Triathlon Association, etc.
- Lectures for Players of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Pyungtaek Women Softball Teams, KPGA, etc.

-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Cheonan City Bowling Team and Hanwha Eagles Professional Baseball Team
- Monthly Coaching Seminar

9.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The KCDC has a sisterhood relationship, an exchange program or a membership with the following coaching institutes.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Youth Sports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YSI)

The KCDC had a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the YSI on May 23, 1999 to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institutes, share research on coaches and exchange research findings.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Coach Education (ICCE)

The KCDC joined as a B member in the ICCE on May 4, 2002. "B" members are private institutions that deliver coaching education. "A" members are national institutions. The KCDC is the Korean representative organization for coaching because Korea does not have an "A" member. The KCDC has participated in eight Global Coach Conferences held by the ICCE: USA (USOC), Canada (Vancouver), Hong Kong, China (Beijing), Korea (Hoseo University: KCDC), Canada (Vancouver), France (Paris), Finland (Vierumaki), and Japan (Tokyo).

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CAC)

The KCDC had a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the CAC. John Bales, president of the CAC, visited the KCDC on March 12, 2003. Joint programs include academic exchange, coach exchange, and information exchange.

The Positive Coaching Alliance at Stanford University (PCA)

The KCDC and PCA are currently involved in the open exchange of ideas and information for and about coaches.

The KCDC provides overseas programs for coaches. The coaching related institutes include the International Sports Leader Program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and Hennef Soccer School in Germany, etc.

The International Sports Leader Program (ISLP)

Before the ISLP was established, 5 soccer coaches from Hoseo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MSU Soccer Camp made especially for Korean coaches from December 5 to 16, 2006 for 2 weeks. The program contents included basic and applied skill for youth soccer coaches, physical training programs, application of formation, strategies for offense and defense, and goal keeper training.

The International Sport Leader Program (ISLP) is an outreach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Kinesiology at MSU. The ISLP is a unique, non-degree certificate (or degree) program for international sport leaders and is designed to meet the growing worldwide demand for educational training an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deas among real-world professionals. The program partner with the ISLP is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 in Korea, and Hoseo University is affiliated with this program.

The ISLP is designed for coaches and sports instructors in order to enhance their 1) professional knowledge, especially regarding competence in practical knowledge and skills, focusing on sports education, 2) English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and 3) understanding of U.S. and global affairs, including in relations to developments in the sports

education field.

The Department of Kinesiology at MSU offers both semester-long overseas study opportunities and shorter study tours for Korean sport leaders, including for coaches, P.E. undergraduate/graduate students, and sports-related persons (government officials, sport reporters, administrators, P.E teachers, Olympic medalists, sport business managers) in Korea. The ISLP will host sport leaders from Korea first, and then extend this program to the other countries.

The Hennef Soccer School

Fourteen soccer coaches from Hoseo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Hennef Soccer School Camp from November 28 to December 11, 2004 for 2 weeks. The program contents included basic and applied skill for youth and elite soccer coaches, physical training program, application of formation, strategies for offense and defense, goal keeper training, and a tour of the rehabilitation training center.

10.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Supported KCDC

-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JCD) was selected as the Journal Financial Support Business Project by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2010)
- JCD was selected as a KCI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2012, 2018)
- KCDC & ISG were selected as the Internship Support Project
- The KCDC was selected as a Co-Consulting Institution for the Basic Planning of Korea National Football Training Center (2018)

11. Industry-Academic-Research Center-Government Cooperation Alliance

The KCDC have cooperated with many business companies, which support the Center financially as sponsors. The companies are Sport Aroma (Dec. 30, 1998), s4ts.com (May 31, 2000), Korea and America Yanghaeng (March 23, 2001), Click Value (March 23, 2001), Sport Art (June 30, 2001), E-Marathon (October, 5, 2001). Dart fish Korea (March, 2002), and Kiban Technology (March, 2002). The KCDC had many Signing Ceremonies for other institutions,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International Sports Group, Kangjin Baseball Park, KwangJu Health Colleg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and Hoseo University.

The KCDC is supported by several university professors, coaches, and other members of the sporting community. The KCDC is financially supported by its membership fees, donations, and some business programs.

Technology and Sports Portal

In order to develop coach education systems that support open learning and distance education for coaching, the Center created an education and business plan for SPOTAL (www.spotal.net, www.noasports.co.kr, currently not operating). SPOTAL was a sports portal website operated by both the KCDC (www.ikcdc.net) and the Noa Technology Company. It provided all sports-related contents for Korean coaches.

The main sports the SPOTAL dealt with at that time are soccer, baseball, and golf. Each sport had e-learning, a focus column, UCC, team ranking, news, free board, community, records, stories, and rules.

The SPOTAL had joint programs with a variety of sport groups,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ncluding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the Graduate School of Coaching Development

and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specializing in sport marketing at Hoseo University.

12. Co-Work with International Sports Group (ISG)

ISG was selected as a Laboratory Start-Up program by the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and established as a corporation (2009). As a CEO, ISG was given a loan by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nd investment group (most of whose members were professors) participated in the investment (\$60,000) and the ISG was supported by Venture Fund of Hoseo Univ. (\$120,000).

The highlights of the ISG project and activity include:

- Established Hoseo Little League Baseball Team (2009)
- Hosted the Hi-Seoul Family Baseball Festival (2010)
- Held Baseball Clinic coached by Park No Jun (2010)
- Held Basketball School coached by Jo Moon Ju (2010)
- Held Soccer Clinic coached by Kim Jeong Nam (2010)
- Held Soccer Academy coached by Ha Jae Hoon (2012)
- Overseas (U.S.A) Career Training Program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Government: Trainer Class (2011)
- Contents Production (2011): Contents Production of E-Learning Professional Company, with Credu, an education platform “Strategy for Creation of Outcome Learning from Sports Champions”
- Hosted the 2nd Korea Baseball Fair (Coex Hall, 3 Days (2013)

- Held Atlanta King's English Camp (2013)
- FIFA Agent Class Open (2013): Qualification Exam Class for FIFA Players' agent (4 Members Passed)
- Held Baseball Lesson coached by Ma Hae Young (2013)
- Agent Management Contracts: Chun Song E, Rhythmic Gymnast (2011)
- Management Contract: Seo Ha Kyung, Pro Golfer (2014)
- Started Independent Baseball Team (2015): Yeoncheon (ISG) Miracle (5 players entered the KBO league during 2015-2016): Founding & Operation: Founded as an Industry (ISG)
 - Academic (Hoseo University) - Research Center (KCDC) - Government (Yeoncheon) cooperation program
- Signing Ceremony for the 2016 Title Sponsorship of the Yeoncheon (ISG) Miracle (2016)
- 8 weeks Field Placement (Internship) during summer/winter breaks for Hoseo University Students (2013-2018)
- KCDC project for the Korea National Soccer Complex Center (2018-2019)

Discussion

Future Directions for the KCDC

The KCDC plans to continue its strong work in order to fulfill its objectives. Therefore, KCDC and ISG want

- to be a global coaching research/education/business institute
- to contribute to the globalization of sports coaching by activating global human networks
- to nurture global coaching leaders for the era of fusion and convergence

- to contribute to global sport industry by forming strategic alliances with KCDC + ISG

Immediate plans include seeking global partners for strong work. The plans are as follows:

- Submit manuscripts to the IJCS (make SSCI & SCOPUS)
- Send coaches & sports leaders to the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Soccer, Department of Baseball, Department of Sport Industry, Department of Sport Science)
- Use 17 certifications for private qualifications
- Establish the KCDC international branches. Each country has to organize members (president, vice president, directors, secretary general) and offices (headquarter, branches)
- MOU with companies/institutions/organizations. Any company, institution, and sport organization which desires to have strong relationships with Korean ones, please contact the author.
- International exchange
- Sport academy. Soccer academy (Agent, goalkeeper), Baseball academy, Taekwondo academy, etc.
- Utilizing the Korea National Soccer Complex Center
- Optimizing distance education for coaches via the internet. This would require establishing a data base for all coaches of all sports and have membership of all coaches in Korea.

Further, the KCDC hope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aching School for a few specialized sports and would like to showcase Korea in the international sports community. In order to achieve the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nd support facilities, certification, and financial resources by cooperation with the KCDC which can be the Coaching Association of Korea as a

national coaching institute like the 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in the future.

In order to achieve these and other objectives, the KCDC faces several challenges. Efforts must be made to maximize membership, finances,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Those interested in joining the KCDC may go to the KCDC web-site (www.ikcdc.net) and the ISG (www.isgkorea.com) web site for details and after reviewing the English version, join as an e-learning teacher and other related supporter for the KCDC and ISG.

References

- Park, J. K. (2007).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 Hoping to be a role model of coaching institutions in the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1(2), 63-70.
- Park, J. K. (2008). Leading the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whi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as coaching education institute. In J.K. Park (Ed.), *Coach: Vol. 36. Abstracts & Proceedings, KCDC 10th Anniversary Global Conference & ICCE Asian Regional Coach Conference* (pp. 1-9). Hoseo University, Asan, Korea. November 7-8.
- Park, J. K. (2018). Leading the KCDC for 20 years: the past and future of sports coaching. In J.K. Park (Ed.), *Coach: Vol. 37. Abstracts & Proceedings, KCDC 20th Anniversary Conference* (pp. 37-56). Crystal Room, Lovero Hote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ovember 9.
- Park, J. K. (2019). Global coaching programs in Korea in the past and future. *12th ICCE Global Coach Conference 2019*, Nippon Seinen-Kan Hall & TEPIA. Tokyo, Japan. October 30-Novemb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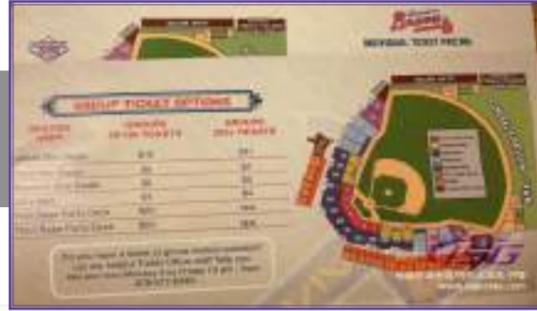
3. 박정근 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애틀랜타



박정근 교수가 레이크 포인트 스포팅 커뮤니티 & 타운센터 CFO로부터 공사 평면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1. 황금알을 낳는 스포츠 콤플렉스 레이크 포인트 타운센터를 가다

애틀랜타



그윈네트 브레이브스 구단은 다양한 시즌권을 개발해 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팬들을 위한 혜택과 이벤트로 가득한 마이너 구단

애틀랜타



조지아텍 모비 도드 스타디움.
3. 조지아텍, 캠퍼스 레크레이션 센터와 모비 도드 스타디움에 가다

글렌데일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카멜백 런치 구장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4. 본격적인 메이저리그 순회! 애리조나 스프링캠프를 찾다

글렌데일



허구연 해설위원과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8. 허구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수" <하>

글렌데일



지난달 11일 허구연 해설위원과 카멜백 런치 구장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7. 허구연 "존경받는 해설자로 은퇴하고 싶다" <상>

서프라이즈



시범경기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추신수. 박정근 교수는 추신수에 관한 리얼 스토리를 영문판으로 출간하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6. 눈 앞에서 펼쳐진 추신수의 플레이에 매료되다

글렌데일



류현진의 절친으로 국내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유리베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세 친해질 만큼 쾌활했다.
5. 전설의 홈런왕 맥과이어와 '류현진의 베프' 유리베를 만나다

투손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경기를 마치고 나온 마운트마티 대학 선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소속팀은 7-6으로 패배했다고 말했다.
9. '훈련 메카' 투손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를 가다

휴스턴



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 미닛메이드 그라운드에서 서서 기념촬영을 했다. 내 뒤에 보이는 전광판 위쪽에 영구 결번된 번호가 적힌 야구공이 보인다.
10.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 '미닛메이드 파크'에 서다

갤버스턴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현직 변호사 코치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11. 야구가 생활화 된 갤버스턴 운동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오스틴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 전시되어 있는 2013년 여자 운동부 팀 신입 감독 사진들.
12. 텍사스 최고 스포츠 명문대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댈러스



추신수는 9회말 호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 내며 한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13. '추신수의 날' 텍사스 글로버 라이프파크, 1000명 교민과 함께 하다

댈러스



'추신수의 날' 을 맞아 추신수 유니폼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14. 다채로운 이벤트로 풍성했던 추신수 데이

휴스턴



윤찬 씨와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다.

15. 'LG트윈스 출신' 휴스턴 야구협회장 윤찬 씨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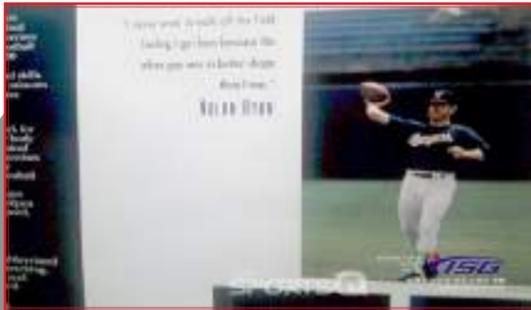
오스틴



대럴 로얄 텍사스 기념 스타디움 앞에서 신 교수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16. 오스틴대 명물 체육관 '그레고리 짐과 미시축구장 대럴 로얄 스타디움'

앨빈



놀란 라이언이 미식축구공으로 훈련하는 모습.

20. 놀란 라이언의 과학적인 훈련방법

앨빈



놀란 라이언이 기록한 탈삼진자 리스트 보드.

박물관에는 놀란 라이언의 5714개 탈삼진 기록 중 중요 이정표별 탈삼진 선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19. '놀란 라이언, 불멸의 대기록' 탈삼진과 노히트 노런

앨빈



놀란 라이언 전시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18. 불멸의 강속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놀란 라이언 박물관'에 가다

휴스턴



김인숙 씨 (오른쪽에서 3번째)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가족들과 함께 축하파티를 했다.

17. '인생역전' 김인숙, 나이는 숫자에 불과! 60세에 미국 변호사가 되다

앨빈



필자가 놀란 라이언의 기념품 앞에서 잠시 포즈를 취했다.

21. '헨섬맨' 놀란 라이언의 관련 사진 및 기념품

오스틴



신체문화와 스포츠를 위한 루처 스타크 센터.

22. 오스틴대 신체문화스포츠를 위한 루처 스타크 센터 방문

휴스턴



당일 행사에 참석했던 교민들의 단체사진.

23. 휴스턴 동포에게 소개한 한국전통 양생체조 세미나

휴스턴



박윤정교수

24. 유익했던 휴스턴대 체육학과 첫 방문

휴스턴



스포츠트레이닝센터에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25. 휴스턴대 스포츠시설 탐방
"좋은 스포츠 업적을 남긴 스포츠 사람들"

휴스턴



추신수 선수가 팬들에게 사인해 주는 모습.

26.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와 다르빗슈에게 사인볼을 받다

휴스턴



추신수로부터 유니폼에 사인을 받고 있는 박정근 교수.

27. 추신수 동료들 (앤드루스, 오도어, 사디나스)에게 사인받다

휴스턴



폭스 스포츠네트 사우스웨스트 제프 어윈 카메라 기자와 함께

28. 폭스 스포츠네트 사우스웨스트 방송 카메라기자와 아나운서를 취재하다

게인즈빌



황문현 대학원생 실험실에서 제자 겸 후배들과 함께. (왼쪽)
농구장 스티븐오코넬 센터 앞에서 후배들과 함께. (오른쪽)

32. 플로리다대에서 만난 제자 겸 후배들과의 뜻깊은 스포츠 시설투어

탤러해시



학점 3.0이상인 미식축구 학업 우수 선수들의 사진.

31. 스포츠로 유명한 플로리다주립대(FSU) 스포츠시설을 둘러보면서

휴스턴



구단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습.

30. MLB팀과 국내 프로야구팀 프런트의 인력자원 비교

휴스턴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후 4명이 기념 사진을 찍었다. 알렌 로윈 선수개발담당 부디렉터, 윤진 대표, 박정근 교수, 매트 브랜드 부사장

29. 휴스턴 애스트로스 부사장과 야구 에이전시 관련해 미팅하다

올랜도



'포스터 세션' 앞에서 찍은 기념 사진.

33. 미국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를 참관하다

노퍽



윤석민 선수와 함께.

34. 하버 파크에서 윤석민 선수를 만나던 날

볼티모어



오리올스 파크 앞에서.

35.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장과 슈퍼파워의 중심을 가다

뉴욕



뉴욕 메츠 시티 필드 구장 앞에서. (왼쪽)
케네디 스퀘어 앞에서. (오른쪽)

36. MLB 뉴욕, 보스턴 구장과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가다

보스턴



토론토 이스트 랜싱



토론토 블루제이스 홈구장 로저스 센터 앞에서. (왼쪽)
DeMartin Stadium (속구장). (오른쪽)
37.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로저스 센터와
미시간주립대(MSU)를 가다

리틀록



양 리그별 대진표.

39. MLB 홈런더비 연속 우승한
오에니스 세스페데스

휴스턴



경기중인 독립야구장에서

41. 미국 독립야구리그 소개 및 야구단 관전평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부시 스타디움 정문에서.

38. 부시 스타디움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을 가다

리틀록



아메리칸리그 선발진 명단

40. 역사가 된 '2014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라인업



박정근 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머리말

호서대 교수로서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은 나는 아내, 막내딸과 함께 6개월 동안 (2014.2.27.-8.15) 미국 스포츠여행을 했다. 메이저리그(MLB)를 중심으로 프로스포츠는 물론 대학스포츠, 아마추어와 생활스포츠, 스포츠시설, 스포츠산업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미국 스포츠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여행을 하면서 작성한 기사를 스포츠큐(www.sportsq.co.kr)에 40회 동안 연재를 했다.

초반 여행은 MLB 스프링캠프 여행과 휴스턴 근처지역 여행을 주로 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텍사스주 휴스턴-애리조나주 글렌데일-텍사스주 샌안토니오-앨버커키-오스틴대-달라스 지역을 여행했다.

두 번째 여행은 55일간 미국의 중부 및 동부, 캐나다지역을 여행하는 강행군이였다.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드디어 여행을 시작했다. 집사람, 처형, 막내딸 여자 세 분을 모시고(?) 운전사 역할을 하며 약 두 달간 여행길에 올랐다.

나는 운전을 하고 집사람은 호텔예약 및 식사를 담당하고, 막내딸은 내비게이션 맡았으며, 처형은 집사람과 함께 식사를 담당했다. 환상의 콤비 4명이 오전 10시10분에 드디어 휴스턴을 출발했다.

55일간 일정은 아래와 같다. 휴스턴 출발-루이지애나주 뉴올리안즈-앨라배마주-플로리다주 탤러해시(FSU)-게인즈빌(UF)-올랜도(디즈니월드)-데이토나비치-세인트 오거스틴-잭슨빌-조지아주 사바나-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분홀-머틀비치-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버지니아주 체서피크-노퍽 타이거-워싱턴디시-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즈-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뉴저지주 애틀란틱시티-뉴욕주 뉴욕메츠 시티 필드-코네티컷주 예일대-로드 아일랜드주 뉴포트-매사추세츠주 보스턴(레드삭스)-MIT-하바드대-캐나다 퀘벡-몬트리올-오타와-토론토(블루제이스 로저스센터)-나이agara폭포-미시간주 이스트 랜싱(MSU)-칼라마주(WMU)-일리노이 시카고-스프링필드(링컨생가)-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부시 스타디움)-테네시주 멤피스(엘비스프레슬리 고향)-아칸소주 리틀록(빌클린턴 고향)-텍사스주 휴스턴.

55일간의 여행을 포함해 미국 안식년 6개월 동안 약 3만 마일 여정을 마쳤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미국 독립야구단 경기를 관전하면서 귀국 후 국내 독립야구단 창단에 대한 구상도 했다. 미국에서 6개월은 야구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다.

CONTENTS

황금알을 낳는 스포츠 콤플렉스, 레이크 포인트 타운센터를 가다
 팬들을 위한 혜택과 이벤트로 가득한 마이너 구단
 조지아텍, 캠퍼스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보비 도드 스타디움에 가다
 본격적인 메이저리그 순회! 애리조나 스프링캠프를 찾다
 전설의 홈런왕 맥과이어와 '류현진의 베프' 유리베를 만나다
 눈 앞에서 펼쳐진 추신수의 플레이에 매료되다
 허구연 "존경받는 해설자로 은퇴하고 싶다" <상>
 허구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수" <하>
 '훈련 베카' 투손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를 가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 '미닛메이드 파크'에 서다
 야구가 생활화된 갤버스턴, 운동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다
 텍사스 최고 스포츠 명문대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추신수의 날 텍사스 글로버 라이프파크, 1000명 교민과 함께 하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풍성했던 추신수 데이
 'LG트윈스 출신' 휴스턴 야구협회장 윤찬 씨를 만나다
 오스틴대 명물 체육관 '그레고리 짐과 미식축구장 대럴 로열 스타디움'
 '인생역전' 김인숙, 나이는 숫자에 불과! 60세에 미국 변호사 되다
 불멸의 강속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놀란 라이언 박물관'에 가다
 '놀란 라이언, 불멸의 대기록' 탈삼진과 노히트노런
 놀란 라이언의 과학적인 훈련방법
 '헨섬맨' 놀란 라이언의 관련 사진 및 기념품
 오스틴대 신체문화스포츠를 위한 루치 스타 센터 방문
 휴스턴 동포에게 소개한 한국전통 양생제조 세미나
 유익했던 휴스턴대 체육학과 첫 방문
 휴스턴대 스포츠시설 탐방 "좋은 스포츠 업적을 낳은 스포츠 사람들"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와 다르빗슈에게 사인볼을 받다
 추신수 동료들(앤드루수, 오도어, 사디나스)에게 사인받다
 폭스 스포츠네트 사우스웨스트 방송 카메라기자과 아나운서를 취재하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부상장과 야구 에이전시 관련해 미팅하다
 MLB 팀과 국내 프로야구팀 프런트의 인력자원 비교
 스포츠로 유명한 플로리다주립대(FSU) 스포츠시설을 둘러보면서
 플로리다대에서 만난 제자 겸 후배들과의 뜻깊은 스포츠 시설 투어
 미국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를 참관하다
 하버 파크에서 윤석민 선수를 만나던 날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장과 슈퍼파워의 중심을 가다
 MLB 뉴욕, 보스턴 구장과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가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로저스 센터와 미시간주립대(MSU)를 가다
 부시 스타디움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을 가다
 MLB 홈런더비 연속 우승한 요에니스 세스페데스
 역사가 된 '2014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라인업
 미국독립야구리그 소개 및 야구단 관전평

5. 전설의 홈런왕 맥과이어와 '류현진의 베프' 유리베를 만나다

애리조나 방문 두번째 날(3월12일) 나는 허구연 해설위원과 류현진을 만나기 위해 훈련하고 있는 글렌데일 카멜백 런치 구장을 또 다시 찾았다. LA다저스 선수들이 훈련 중인 경기장에는 많은 팬들이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사인을 받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반인들은 선수 훈련하는 곳에 출입금지이지만 우리는 선수들 훈련하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류현진을 만나기 위해 구장을 찾았지만 류현진은 노조회의가 있어 연습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약간 실망했지만 LA다저스에는 유명선수들이 많은 곳이 아닌가. 훈련장에서는 메이저리그 스타들을 가까이 볼 수 있었다. 푸이그, 유리베, 내야수 손 피긴스도 보였고 유명한 오렐 허샤이저(현 다저스 TV분석가, 전 LA다저스 투수)와 미국 유명 여기자도 보였다. 푸이그는 한손으로 타격 훈련을 하면서 오렐 허샤이저와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푸이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연습 중에는 촬영할 수 없다고 해 훈련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 전설의 홈런왕 마크 맥과이어한참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허구연 위원이 저 사람이 마크 맥과이어라고 손짓했다. 바로 미국 전설적인 홈런왕 마크 맥과이어였다. 나는 마크 맥과이어 타격코치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국내에서 언론을 통해 자주 접했던 최고의 선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어 무척 행복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유명스타의 사인을 받고 행복해 하는 것처럼 한껏 들떠 있었다. '빅맥' 마크 맥과이어는 1986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1라운드 지명을 받고 이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맥과이어는 데뷔 첫해인 1987년에 49개 홈런을 터트리며 신인상을 수상하며 대형 선수로서의 첫 걸음을 뒀다.

그는 1997년 3명의 투수와 1:3 트레이드로 '운명의 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이적했다. 특히 1998년 메이저리그 최초로 단일시즌 최다홈런인 70호를 기록하며 전설적인 홈런왕 반열에 올라섰다. 실버슬러거상 3회 수상을 비롯해 골든글러브상 1회를 받았다. 올스타전도 12회나 출전할 만큼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2001년 11월 은



▲LA다저스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에 출입금지이지만 우리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사진은 LA다저스 푸이그가 카멜백 런치 구장에서 배팅연습 하는 모습이다.

퇴를 선언하며 16년간의 선수생활을 마감한 맥과이어는 통산 583개의 홈런을 터트렸다. 2010년 1월 스테로이드 복용을 시인하며 명예의 전당 입성에 실패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후 2010시즌부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타격코치로 부임하며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고 현재 LA다저스 타격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전설의 홈런왕 마크 맥과이어는 현재 LA다저스 타격 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구연 위원, 마크 맥과이어, 박정근.



▲류현진의 절친으로 국내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유리베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세 친해질 만큼 쾌활했다.

◆ ‘유쾌발랄’ 유리베와의 짧은 만남 마크 맥과이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훈련장에 떨어진 수많은 야구공 중 하나를 주우려고 할 때 실내 트레이닝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오며 ‘공 줍지 말라’는 제스처를 내게 보낸 선수가 있었다. 바로 유리베였다. 그래서 나는 공을 내려놓았고 유리베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를 불렀더니 막 달려와 내 옆에 있던 박지혜 통신원을 끌어안고 좋다고 난리를 쳐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나중에 전해들은 사실은 공을 줍지 말라던 제스처가 내 옆에 있던 여자에게 관심 있다는 포즈였다는 것이다.

류현진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유리베는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선수다. 그는 입담과 친화력이 좋아 처음 보는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지낸다. 하지만 훈련만큼은 진지했다. 우리와의 짧은 만남이 끝나자마자 그는 쓴살 같이 트레이닝장으로 달려갔다. 정작 사인을 받지 못했다. ‘국민형’ 유리베와의 너무나 짧은 만남이었다.

◆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감독 ‘커크 깁슨’ 이날은 LA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작년 NL서부지구 2위)와의 시범경기가 있었다. 특히 다이아몬드 백스 감독인 커크 깁슨(Kirk Gibson)이 눈에 들어왔다.

깁슨은 내가 미시간주립대학교(MSU) 유학시절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슈퍼스타였다. 그는 내가 나온 미시간주립대학교 선수시절 미식축구선수로 더 유명했었다. 올 아메리칸(All-American)팀의 와이드 리시버로 활약하던 그는 당시 미식축구감독이 야구를 권유해 대학에서는 단 1년 밖에 선수생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 드래프트될 정도로 훌륭한 선수로 성장했다. 드래프트 이후 첫 해 그는 48경기에 출장해, 타율 0.390, 홈런 16개, 타점 52점을 기록할 만큼 좋은 성적을 거뒀다. 잠깐이라도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빠른 일정 때문에 만나진 못했다.

7. 허구연 "존경받는 해설자로 은퇴하고 싶다"

나는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허구연 해설위원을 만나 2박3일 동안 함께 지냈다. 허위원과 함께 추신수와 류현진이 활약하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LA 다저스 팀의 연습현장을 방문했다. 2박3일 동안 허구연 위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야구팬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허위원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는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했다. 그와 인터뷰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야구를 시작한 인연부터 야구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야구의 천부적인 소질과 공부하는 야구 등 시시콜콜한 야구의 추억부터 메이저리그 관련 소식과 국내야구 발전을 위한 대책 등 심도 깊은 얘기까지 다채로운 야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허구연 해설위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두 차례로 나눠 다루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 허구연 위원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선수 시절에 대한 추억과 야구 해설을 하면서 느낀 해설위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1일 허구연 해설위원과 카멜렉 랜치 구장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 초등학교 때부터 4번 타자

나는 허구연 위원의 선수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가볍게 인터뷰를 시작했다. 허위원은 학창시절부터 ‘잘 나가는(?) 야구선수, 공부하는 야구선수’였다고 말하면서 현재 선수들도 공부를 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어떻게 야구에 입문하게 됐나.

▲ 부산 대신 초등학교 5학년 때 각 반에 1명씩 야구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반대표로 나갔는데 눈에 띄었는지 감독,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와 야구를 꼭 시키라고 조를 정도였다. 하지만 집에서 반대가 심했다. 부모님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구를 시킬 생각은 없었다.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 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야구를 해도 좋다고 승낙했다.

- 당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운동을 기피했다. 그래도 형제들이 많으면 1명 정도는 운동을 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

▲ 5형제 중 넷째다.

- 어렵게 야구를 시작했는데 잘 했다.

▲ 초등학교 5~6학년 때 부산 대신초등학교가 항상 우승을 차지했고 난 그 팀의 주전이였다.

- 허 위원은 공부도 잘했던 야구선수라고 했다. 당시 경남중학교에 시험을 치고 입학했다고 들었다.

▲ 내가 진학하려던 경남중학교에는 특기자 선발제도가 따로 없어 시험을 통해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

- 당시 공부와 야구 병행이 가능했다.

▲ 중학교 1학년 때 주전으로 뛰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 가끔 3학년 선배들이 교실로 찾아와 '공부 좀 그만해라. 너 때문에 우리 힘들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선생님들도 '허구연은 야구하면서도 공부를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놈들아' 라면서 야단치기도 했다.

- 당시 경남중에는 좋은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다. 그때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 라면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됐을 것 같은데.

▲ 대대로 경남중학교 야구부 출신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야구선수들이 많았다. 최덕홍 선배는 야구선수 출신으로 대대장을 했고, 마동명 선배는 세브란스의대를 나와 뉴욕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됐고, 장태영 선배는 서울상대를 졸업했다.

- 대학시절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 팬들이 캠퍼스는 물론 합숙소까지 찾아오곤 했다. 대부분 대학 교정 안에서 이야기만 나누고 돌려보냈다. 그래서 나중에 원성이 자자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커피도 한 잔 안 사준다고...



▲자난달 11일 카벨백 렌치 구장에서 허구연 해설위원과 LA다저스의 시범 경기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 선수 생활은 언제까지 했다.

▲ 대학졸업 후 한일은행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국가대표까지 역임했지만 27살 때 큰 부상을 당하면서 야구를 그만둬야 했다.

- 대학 시절 공부와 야구를 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 대학 시절에 4번 타자와 홈런왕을 하면서도 중간고사가 있으면 공부해서 시험도 봤다. 그 당시만 해도 후배들이 내가 수업에 들어가는 이유를 잘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후배들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야구 이외의 다른 길도 많은데 공부에 소홀하면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진다. 나는 당시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정세균, 홍준표 같은 정치계 거물들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야구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선수들은 친구 사귀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참 안타깝다.

- 석사학위도 갖고 있다고 들었다.

▲ 대학원 시험볼 때 합격할 줄 몰랐다. 그런데 어려운 경쟁을 뚫고 무사히 합격한 것이다. 나중에 학교에서 놀랐다고 들었다. 고인이 되신 김상협 전 총장님이 '허구연이 학교에 이야기도 안하고 시험을 쳤네' 라면서 특히 좋아하셨다.

◆ 마지막 꿈은 영원한 해설자현재 허구연씨는 국내 대표적인 야구 해설위원 중 한 명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해설을 통해 팀의 구체적인 전술이나 작전 등을 파악하고 현

재 야구의 문제점 등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다. 그는 야구 해설을 통해 가장 보람을 느끼고 존경받는 해설자로 은퇴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밝혔다.

- 어떻게 해설자가 됐나.

▲ 법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모 방송국에서 방송해설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심사숙고 끝에 결국 교수직을 포기하고 해설자로 나서게 됐다.

- 해설자가 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나.

▲ 후회 없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정치권이나 야구 관련 기관에서 허 위원을 데려가기 위한 러브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존경받는 야구 해설가로 남기 위 해선가.

▲ 정치권에서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은 해설자다. 질문에서처럼 존경받는 해설자로 은퇴하고 싶다. LA 다저스의 빈 스킨리 해설자는 85세인 지금도 야구해설을 하고 있다. 다른 분야의 일보다 지금은 야구계의 현안 문제가 내게는 더 중요하다. 특히 정치나 야구 관련 기관은 내가 판단했을 때 야구계나 체육계에서 일을 할 만큼 했다 싶을 때 해도 늦지 않다.

- 요즘 해설자 중에는 야구선수 출신이 아닌 분들도 많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나.

▲ 개인적인 입장은 선수 출신들이 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술이나 작전 플레이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는 야구를 경험한 사람이 더욱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 야구선수 출신들도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필드에서 뛰어본 경험이 동반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설자의 경우 찰나의 순간 어떻게 저런 플레이가 나왔는지, 결과는 어떤지, 당시 작전은 무엇인지 등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 해설자와 캐스터의 차이가 무엇인가.

▲ 해설자는 야구 현장 전문가로서 야구 기술, 이론, 규칙을 바탕으로 플레이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왜 저런 플레이를 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캐스터는 뉴스, 히스토리, 스토리, 기록,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전달해주는 전문가여야 한다. 때문에 방송에서는 캐스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MBC 스포츠플러스의 한명재 캐스터는 국내야구, 메이저리그 모두 정통하다. 다양한 자료와 역사, 뉴스를 섭렵하고 방송에 임한다. 그러면 나는 플레이 위주만 설명하면 된다. 그만큼 캐스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중계의 현실은 캐스터들이 한 가지 종목에만 전념할 수 없는 여건이라 안타깝다.

- 해설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후배 양성도 해야 할 것 같은데.

▲ 캐스터는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해설은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해설은 감독, 코치, 스타 출신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독 출신 해설자는 경기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해설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자가 되기 원하면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하고 좀 더 깊은 연구와 자료를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캐스터는 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캐스터는 음성, 발음, 순발력, 기록 등 전문성과 함께 야구에 관한 기본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은 중계를 주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 요즘 야구에서는 여자 아나운서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 좋은 캐스터는 수준 높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측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진행자의 외모에 신경쓰는 점도 이해한다. 최근에 내가 알고 지내던 여자 아나운서가 결혼을 했다. 그는 내게 기혼 아나운서의 고민을 토로했다. 나는 기혼자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전문성을 더 갖추라고 조언했다. 앞으로는 여자 아나운서들도 단순히 '브라운관의 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시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7. '인생역전' 김인숙, 나이는 숫자에 불과! 60세에 미국 변호사 되다

안식년 중 6개월을 해외에 머물기 위해 적절한 곳을 찾던 중 휴스턴에 거주하는 동갑내기 외사촌 여동생(김인숙 씨)이 생각났다. 그는 기꺼이 머물 장소를 제공해줬다.

지난 3월 1일 휴스턴 공항에 도착할 때 동생은 캘리포니아에서 사흘 동안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오랜만에 공항에서 만나 안부 인사를 나누며 시험 결과에 관해 물었다. 그는 시험은 나름대로 잘 봤다는 말과 함께 5월 중순경 발표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다.

지난달 16일 내가 델러스에서 일을 보고 휴스턴으로 왔을 때 동생이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60세를 바라보는 그가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한 이야기를 기사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는 60년이란 세월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 한국에서 20년, 일본에서 16년, 미국 20년을 보냈다.

이로 인해 그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항상 약자에 속했고 한국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졌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인숙 씨(오른쪽에서 3번째)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가족들과 함께 축하파티를 했다.

김인숙 씨는 법치 사회인 미국에서 법조인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권이든 어떤 분야에 있든 항상 꼭대기에는 변호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법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미국까지 온 이상 돌아갈 때가 없었고 밑바닥에 사는 것도 싫었다.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학교에 다녔다. 교육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법대에 욕심이 있었지만 법대에서 공부할 여건이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잠시 공부를 멈춘 그는 막내딸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7년 전부터 로스쿨 인터넷 수업을 통해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다. 그리고 60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결실을 보게 됐다.

■ 김인숙 씨와의 일문일답.

- 60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공부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 번째는 타이틀이 필요했다. 누구의 어머니 아내라는 이름보다 김인숙으로 살기 위한 타이틀이 필요했다. 물론 사업가 김인숙이란 명함도 갖고 있지만 사업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충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쳇말로 폼을 좀 내고 싶었다.

두 번째 이유는 딸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주 사는 곳을 옮겨 다니면서 힘든 모습들을 보여줬더니 자식들이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나이에 변호사에 도전해 합격했으니 딸들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다.

- 변호사 시험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나?

▲ 7년 정도 책을 봤던 것 같다. 처음에는 휴스턴대를 포함해 몇몇 대학 로스쿨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소라기보다 정치가를 양성하는 곳에 가깝다. 정계에 입문할 의사가 없으면 로스쿨에 지원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로스쿨에 전념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로스쿨을 선택했다. 내가 입학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학교는 설립한 지 11년밖에 안 됐고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진행했다. 4년 동안 인터넷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운이 좋았다.

- 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험을 치렀나?

▲ 단순하게 생각해서 캘리포니아에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을 봤다. 변호사 시험은 49개 주에서 2월이나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일제히 치러진다. 하지만 시험 날짜는 주마다 다르다. 뉴욕은 2일 동안 시험을 치르고, 캘리포니아는 3일간 시험을 본다. 49개 주에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이 제일 어려운 편이다. 왜냐하면 시험과목이 가장 많고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이유는 캘리포니아주가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로스쿨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김인숙 씨는 로스쿨 졸업식에서 남편 보쿠마 씨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원래 인터넷 로스쿨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 사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서는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로스쿨을 인가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버드 법대 등록금이 10만 달러, 휴스턴대 5만 달러 등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다. 그런데 등록금이 싼 인터넷 로스쿨을 인정하면 기존 로스쿨과의 형평성이 깨진다고 보기 때문에 인터넷 로스쿨을 인정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시험의 난이도를 어렵게 해 합격자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지금은 위스콘신주도 인정하고 있다.

- 매년 변호사 시험에 몇 명 정도 합격하나?

▲ 첫 번째 관문은 로스쿨 1학년 때 시험이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된다. 보통 민법과 형법, 상법 3과목을 평가하는 데 미국변호사협회(ABA)로부터 인정받은 로스쿨은 자체에서 시험을 본다. 법대 입학하면 1년 후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다. 물론 적성이 맞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클래스의 40명 중 5명만 합격했다. 전체 동기생 400명 중 50명 정도만 살아남았다. 그중에서 졸업시험까지 치른 사람이 30명에 불과하고 최종합격자는 7명뿐이었다. 캘리포니아 합격률은 평균 45%정도다.

올해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서 2000명이 합격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에서 공부했던 학생들도 캘리포니아에서 합격해야 해서 변호사 시험에 다른 주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다른 지역의 변호사들도 525명 중 절반 정도가 떨어졌다. 내가 운이 좋았다는 것은 시험 범위가 방대해 시험이 어디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운도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합격을 예상했나?

▲ 법률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다.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펼치자 이해할 수 없는 영어들이 다가왔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포기하고 두 달 후에 책을 팔자라고 결심했다. 꿈에 외할머니가 나타나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그래서 다시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4년간 열심히 준비했다. 시험 보는 날 마감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시험장을 빠져나왔다. 답은 잘 썼지만 이렇게 쉽게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다.

- 합격을 확인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

▲ 인터넷 수업으로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한 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해 믿을 수가 없었다.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 정신이 멍해지면서 정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인지 믿어지지 않았고 해석을 잘못했나 의심이 들어 딸에게 전화해 문장을 읽어줬다. 그랬더니 딸이 합격했다고 말해줬고 환호성을 질렀다. 대부분 학생들은 대학교수이고 석·박사 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다. 나같이 학사 학위만 가진 사람은 거의 처음일 것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통지서.

- 변호사 김인숙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다는 것이다. 주로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그것이 나라 간의 일이든지, 개인, 회사 등 어떤 분야일지 몰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아주겠다. 또한 돈 없는 사람과 힘없는 여자들을 대변해 주고 싶다.

- 한국과 관계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지?

▲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고국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 또 한국 로스쿨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주고 싶다.

-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나?

▲ 사람은 꿈이 가장 중요하다. 꿈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 나이에 재일교포와 결혼해 이혼한 아픈 경험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힘들고 어려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기사를 접하는 데 이들에게 가능하면 해외에 나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라고 권하고 싶다.



▲변호사가 된 김인숙 씨를 축하하기 위해 선물한 펜.

■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선물한 펜김 변호사의 어린 시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의 합격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깨끗하게 살아온 여결인 그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펜을 골랐다. 변호사가 되면 사인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펜을 주문 제작해 선물했다.

26.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와 다르빗슈에게 사인볼을 받다

지난 5월 12일 월요일, 이날은 휴스턴의 미닛 메이더 파크에서 열리는 텍사스 지역 라이벌 휴스턴 애스트로스 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3연전 중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내가 거주하고 있는 휴스턴에서 추신수 출전 경기를 놓칠 수 없는 법. 첫 게임을 관전하기 위해 애스트로스 구장을 일찍 찾았다. 경기장 매표소를 향해 걸어가는데 젊은 한국인 2명이 앞에 가고 있어 먼저 반갑게 인사했다. 여자는 휴스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남자는 이곳에서 직장 다닌다고 했다.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는 추신수 팬인 한국 여학생과 함께.▶

티켓 오피스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했다. 직원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고 구장 매표소에서 직접 구입하면 더 싸다고 했다. 제일 저렴한 14달러 짜리 자리를 구입했다. 나는 사진을 찍고 구장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라 구태여 비싼 티켓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드디어 5시 구장에 입장했다. 경기는 7시5분에 시작이다.이날 간 목적은 추신수 선수를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몇 가지 프로젝트 건(추신수 관련 일)을 직접 물어 보려고 3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추신수 선수가 3루 쪽으로 걸어와서 반갑게 먼저 인사했다. 내 소개를 하고 몇 마디 건넸지만 주변 팬들의 사인공세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었다.



▲추신수 선수가 팬들에게 사인해 주는 모습.



▲추신수 선수로부터 받은 사인.



▲핸드폰 커버에 추신수 선수로부터 받은 사인.

추신수 선수는 팬 사인 직후 곧바로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 명함만 받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곧장 훈련에 들어갔다. 종이에 추신수 사인을 받고 또 카메라용으로 가지고 간 집사람 핸드폰 커버에 사인을 받았다.

조금 있으니 일본 출신 투수인 다르빗슈 유 선수가 팬들에게 사인하는 차례가 되어서 추신수 선수와 똑같은 종이 사인과 핸드폰에 사인을 받았다.



▲다르빗슈 유 선수가 팬들에게 사인해 주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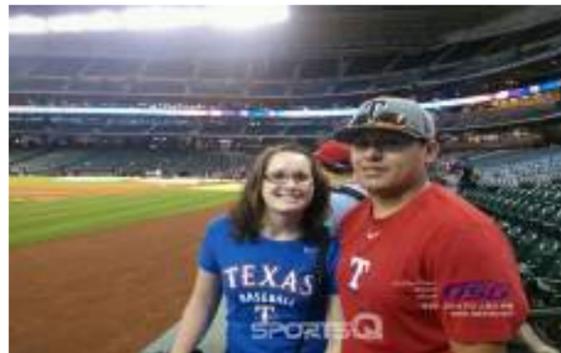
▲다르빗슈 유 선수로부터 받은 사인.



▲핸드폰 커버에 다르빗슈유 선수로부터 받은 사인.

그 며칠 전에 달라스 뉴스코리아 최윤주 편집국장과 김민아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네이버 사진기자가 추신수와 룸메이트란 이야기를 들었다. 애리조나 자택에서 아직 텍사스로 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텍사스 홈경기 때는 네이버 사진기자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장 안에 있는 네이버 사진기자에게 내 명함을 주고 추신수 관련 프로젝트를 이야기한 뒤 나에게 연락 좀 달라고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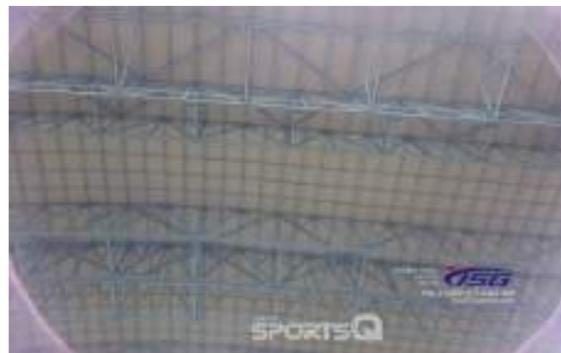
추신수 팬이라는 젊은 미국 부부를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도 있었다. 남편 이름은 마르코였고, 2013년 8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고향은 텍사스 루프킨이고 텍사스 A&M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하였다. 부부는 "추신수는 대단한 선수다.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 나도 기분이 좋았다.



▲추신수 팬인 미국 부부.

14달러짜리 좌석은 외야 자리인데 3루에서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다보니 경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자리 이동이 불편해서 그대로 3루 측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았다. 경비원이 다가와 표를 보자고 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보라고 하였다.

바로 내가 앉은 옆자리에 팩스사에서 취재하러 나온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가 있어서 추신수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카메라 기자와 명함을 주고 받았다. 텍사스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니 프리 배팅할 때 론 워싱턴 감독이 직접 공을 던져주고 있었다.



▲돔 구장 지붕이 닫혀 있는 휴스턴 에스트로스 구장.

돔 경기 관전은 처음이었다. 돔구장이라 날씨가 덥자 루프(지붕)를 닫았다. 화씨 80도(섭씨 약 26.7도) 이상이 되면 팬들을 위해 지붕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 준다고 했다. 덕분에 정말로 시원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관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스트로스 팀 성적이 좋지 않아 팬들이 많지는 않았다.

경기도중 이벤트가 많았다. 그 중에서 치어리더들이 공(몰랑몰랑한 공)을 관중들에게 쏘아주는 슈팅 스타(shooting stars) 이벤트도 진행됐다. 공을 관중들에게 쏘았을 때 내가 있는 방향으로 날아와 받는 행운을 안았다.

추신수는 1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치고 결승 득점을 올렸다. 이로써 추신수는 5월 9일 보스턴 레드삭스전부터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전날까지 33경기를 출전해 111타수 37안타 19득점 4홈런 11타점 3도루 24볼넷을 기록중이었다. 타율은 0.333, 출루율은 0.465였다.

하지만 이날 경기이후 116타수 38안타로 시즌 타율은 0.328, 출루율 0.456으로 떨어졌다.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것을 보면 추신수의 발목 부상이 완전치 않은 것으로 보였다.

추신수는 상대 선발인 우완 투수 브래드 피콕(26)과의 1회 첫 대결에서 5구째를 받아쳐 유격수 땅볼아웃으로 물러났다. 3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피콕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바깥쪽으로 낮게 들어온 빠른 볼을 밀어쳐 좌익수 앞에 안타를 쳤다.

추신수는 엘비스 앤드루스의 유격수 땅볼 때 2루로 나아갔다가 애드ريان 벨트레의 좌중월 홈런 때 홈을 밟았다. 추신수의 시즌 20번째 득점이었다.

추신수는 4회초에는 중견수 깊숙한 뜬공으로 아웃되었다. 네 번째 타석인 6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추신수는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마지막 9회 선두타자로 나온 추신수는 상대 세 번째 투수 다린 다운스 앞에 떨어지는 땅볼을 쳐 아웃되었다. 텍사스는 4-0으로 이겨 시즌 20승(19패) 고지를 밟았다.

경기가 끝나고 혼자서 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경기장 밖에서는 춤을 추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가보니 베네수엘라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경기가 끝난 후 그라운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스타디움 앞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었다.

스타디움을 나왔는데 주차해 놓은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았다. 밤 10시 47분에야 차를 찾고 집에 오니 11시 22분이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하루였다.

27.추신수 동료들 (앤드루스, 오도어, 사디나스)에게 사인받다

지난 5월 13일 화요일은 텍사스 레인저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시즌 두 번째 경기. 집사람, 딸과 함께 미닛 메이드 파크를 찾았다.

스타디움 입구에 애스트로스 스타들의 기념판들이 있었다. 애스트로스에서 활약한 유명선수인 놀란 라이언, 호세 크루즈, 로저 클레멘스, 크레이그 비지오 등을 기념하는 동판들이 나란히 반겼다.

기념판을 둘러본 후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고 휴스턴까지 원정응원을 온 커플을 만나서 추신수 선수와 관련 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신수의 플레이에 매료됐다는 이 커플은 한국에서 왔다는 나의 말에 반가워 하며 함께 사진도 찍었다.



1980~88년 애스트로스에서 투수로 활약한 놀란 라이언의 은퇴(1996.9.29) 기념판과 1994~97년 MVP 명단 및 내셔널리그 중부리그 챔피언 기념판.



텍사스 레인저스 팬과 함께.

너무 일찍 도착한 탓에 들여보내 주지 않아서 구장 앞 맥주집에서 저녁을 먹고 기다렸다가 입장했다. 구장에 들어가서 보니 어제 만났던 네이버 카메라 기자가 운동장에 있어 물어보니 추신수 선수 만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였다.팬들은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야단이었다. 얼마 후, 나 역시 딸, 집사람과 함께 추신수 선수를 비롯한 몇 명의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았다.이날은 추신수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미리 추신수 티셔츠 3개(지난 4월 15일 추신수의 날에 받았던 티셔츠)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직접 유니폼에 사인을 받았다. 물론 야구공에도 사인을 받았다. 식구들이 함께 간 탓에 사인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추신수로부터 유니폼에 사인을 받고 있는 박정근 교수.



추신수 유니폼에 추신수 선수에게 받은 사인.



추신수 선수에게 받은 사인공.

추신수 선수 사인 뿐만 아니라, 전날 치어리더들이 공을 관중들에게 쏘았을 때 받았던 공에 유격수 엘비스 앤드루스 선수로부터 사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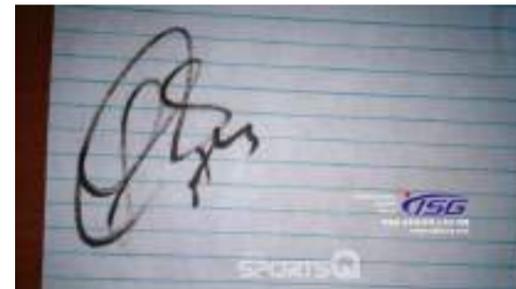
전날 팬 서비스인 슈팅 스타 때 포구한 공에 유격수 엘비스 앤드루스 선수에게 받은 사인.



유격수 엘비스 앤드루스 선수에게 받은 종이사인.



2루수 루그네드 오도어 선수에게 받은 사인.



내야수 루이스 사디나스 선수에게 받은 사인.



포수 J P 아렌치비아 선수에게 받은 사인.

전날 경기 때는 돐구장의 루프(지붕)를 닫아서 시원하게 관전했는데 이날은 루프를 열어서 날씨가 좀 더웠다.

애스트로스 마스코트인 오비트(Orbit)는 경기장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였다. 나도 오비트와 함께 포즈를 취하며 잠시 동심에 젖었다.



돐 구장 지붕이 열려있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장.



애스트로스 마스코트인 오비트와 함께 한 박정근 교수.

관중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나온 듯 편안하게 경기를 관전했다. 특히 이날은 내 앞자리에 중년남자 4명이 앉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맥주를 마시면서 흥겹게 게임을 즐겼다. 이날 관중은 1만402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경기에서 추신수는 1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1안타 1사구를 기록했다. 5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28(119타수 39안타)에 머물렀다. 출루율은 전날 0.456에서 0.457로 살짝 올랐다.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왼손 선발 댈러스 쿠첼의 4구째 몸쪽을 파고드는 낮은 직구에 삼진을 당했다. 3회 1사 1루에서는 몸쪽 빠른 공에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맞고 1루로 출루했다.

6회 선두 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초구 직구를 끌어당겨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8회 2사 2루에서 마지막 타석에 선 추신수는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0-8로 완패했으나 추신수는 9일 보스턴 레드삭스전부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었다. 휴스턴 선발 쿠첼은 생애 첫 완봉승을 거뒀다.

29. 휴스턴 애스트로스 부사장과 야구 에이전시 관련해 미팅하다

미국 스포츠 여행 (28)

[휴스턴=박정근 호서대 교수(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ISG 대표이사)] 지난 5월 2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휴스턴 애스트로스 부사장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윤찬 대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이 있는 미닛 메이드 파크를 향했다.

아침시간에는 시내 다운타운이 좀 막힌다고 해서 일찍 출발했는데 의외로 잘 뚫려 일찍 도착했다. 부사장에게 전화했더니 직접 구장 바깥에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키가 작고 젊게 보이는 친구가 부사장이라고 했다. 구단 회의실에 들어갔더니 선수개발 부디렉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를 나눈 뒤 4명이 회의를 시작했다.

내 소개를 먼저 하고 이날 미팅의 주요 의제를 이야기했다. 윤찬 대표가 며칠 전에 내 이력서와 회의 어젠다를 알려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는데 부사장은 내 이력서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부사장 이름은 매트 브랜드, 직책은 기업 파트너십 부사장(Corporate Partnerships)이었다.

그를 잠깐 소개하면, 2011년에 애스트로스 팀에 합류했고, 혁신적인 광고와 마케팅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주요 기업 파트너와 함께 밀접한 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들이 어떻게 그들의 브랜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일한다고 했다.

매트는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의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비즈니스 개발팀을 이끈다. 애스트로스에 오기 전에는 25년간 공급망관리(SCM) 분야에 종사했다. 특히 세일즈 임원직으로서 소매업, 자동차와 에너지 파트에서 일을 많이 했다.

이글 글로벌 물류회사(Eagle Global Logistics)에 근무할 때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세일즈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다. 최근에는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물류회사에서 수석부사장을 역임했다.

매트는 워싱턴 셀라에서 자랐으며, 워싱턴 에드몬드 커뮤니티대와 아이다호 루이스&클락 주립대에서 야구를 했다. 부인과 두 아들과 함께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다.

키가 아주 큰 알렌 로윈은 2012년 10월 19일에 선수개발담당 부디렉터로 승진했다. 그가 하는 일은 마이너리그 선수관리, 국내외 선수개발 스태프 멤버 및 선수 지원, 애스트로스의 이민 관련 업무 등이다. 그는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거나 부상에서 회복되면 마이너리그의 여러 레벨에 선수들을 배치해 준다.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의 계약, 보험, 집, 헬스케어 등을 도와준다.

알렌은 2007년에 애스트로스에 왔다. 전에는 선수개발 코디네이터로서 근무했다. 그 기간에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애스트로스 시설 건물(2010년 5월 오픈)을 관리 감독했다. MLB에서는 2006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지역사회관계 인턴으로 참여한 게 첫 직책이었다.

알렌은 스페인어가 유창하다. UCLA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샌디에이고주립대에서 스포츠사업매니지먼트로 MBA 과정을 밟았다. 샌디에이고 출신으로 현재는 휴스턴에 처와 함께 살고 있다. 휴스턴 지역사회에서 아주 활동적인 멤버로 통한다.

회의 당일 어젠다를 내가 먼저 이야기했다. 호서대 야구학과, KBO, ISG에 관해 간단히 설명했다. 부사장은 한국 선수들은 군대 문제가 MLB 진출에 많은 장애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고, KBO가 너무 강한 조직이라고까지 말했다. 한국선수가 MLB 진출 시 연봉을 어느 정도 책정해야 하는지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디렉터가 애스트로스에 한국 선수가 있다고 해서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직접 전화를 해서 연결시켜 주었다.

이름은 문찬중(Chan Jong Moon), 2009년 충암고를 졸업해서 현재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싱글A팀인 쿼드 시티스 리버 밴디츠(Quad Cities River Bandits)에서 뛰고 있다고 했다. 그 팀은 아이오와주 데이븐 포트에 있다. 리그는 미드웨스트 리그에서 뛰고 있다(아래 내용 참조). 참 반가웠다. 서로 자주 연락하자고 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날 회의 결론은 서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신뢰가 쌓이면 선수 에이전트 관련 일도 하자고 했다. 첫 시작은 한국에서 애스트로스 야구캠프를 한번 구상해 보자고 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후 4명이 기념 사진을 찍었다. 알렌 로윈 선수개발담당 부디렉터, 윤찬 대표, 박정근 교수, 매트 브랜드 부사장(이상 왼쪽부터).



정규시즌 일정표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매트 브랜드 부사장, 박정근 교수, 윤찬 대표, 알렌 로윈 부디렉터(이상 왼쪽부터).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 직원은 모두 217명이라고 했다.



구단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박정근 교수.

윤찬 대표는 현재 부동산과 여행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 기반은 잡았다고 한다.나의 야구에 대한 열정을 보고 자기도 옛날 꿈인 야구선수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같이 에이전트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좋은 선수를 내가 발굴해서 보내면 윤찬 대표는 미국에서 선수 관리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는 윤찬 대표.

■ 문찬중(Chan Moon) 선수는 누구?

- 생년월일 : 1991.03.23
- 투/타 : 우투좌타(양타)
- 주요 포지션 : 유격수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
- 키/몸무게 : 183cm/73kg
- 2009년 계약 : 계약금 35만 달러
- 소속팀 : 휴스턴 산하 싱글A 쿼드 시티스 리버 밴디츠(Quad Cities River Bandits)

문찬중 선수는 충암고를 졸업한 뒤 2009년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입단해 현재까지 뛰고 있다. 문찬중 소개 내용은 스카우팅 리포트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문찬중 선수는 2년간 루키리그에서 뛴 뒤 싱글A로 승격했다. 앞으로 실력이 꾸준히 늘어 난다면 내야 유틸리티 자원으로 유망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파워는 약하지만 수비에서 중간 이상의 기대치를 가졌으며, 상당히 빠른 선수로 주목받았다.

- ▶ 타격= 힘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스윙 자세나, 콘택트 능력 등은 양호하며 선구안은 좋아 보인다.
- ▶ 수비= 포구 능력은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수비범위도 넓고 공을 잡아 송구로 연결하는 과정도 부드럽다. 그러나 송구 능력은 아직은 좀 떨어지며, 유격수 평균 수준(혹은 약간 모자라는)이다. 상위리그로 올라갈수록 볼처리를 빠르게 할 줄 알 필요가 있다. 유틸리티 플레이어로는 2루, 3루, 유격수 포지션 모두 최소한 평균수준의 수비를 기대할 만하다.
- ▶ 주루= 도루를 할 수 있는 평균 또는 평균이상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도루시에는 그것을 영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만약 메이저리그에 올라간다면 풀타임을 뛸 경우 10~15개 정도의 도루를 할 정도다.
- ▶ 기타= 팀메이트들과 잘 어울리며 야구지능이 높다. 팀원들 사이에서 즐겁게 지내며, 잘 어울리는 선수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팀메이트와 경기하는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4.하버 파크에서 윤석민 선수를 만나던 날

2014년 5월 23일 휴스턴을 출발했으니 어느덧 1주일이 지났다. 뉴저지에 사는 처남댁으로 가는 중간지점에서 윤석민 선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젖었다. 휴스턴 출발 전에 윤석민 선수 홈 경기와 어웨이 경기 일정을 맞추며 미리 일정을 짜봤다. 운 좋게 홈경기 일정에 맞출 수 있었다.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트리플A)로 내려온 윤석민 선수(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트리플A 노퍽 타이즈)를 만나기 위해 3일 동안 대서양과 접해 있는 5개주(플로리다-조지아-사우스 캐롤라이나-노스 캐롤라이나-버지니아)를 따라 올라갔다. 물론 중간 중간에 관광을 하면서 차를 몰았다.

5월 30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호텔을 출발한 우리 가족은 조지아주 사바나를 거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리지랜드(Ridgeland) 지역에서 1박을 했다.

5월 31일에는 리지랜드를 떠나 대서양 연안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서 찰스턴 분홀 대규모 농장(Boone Hall Plantation: 흑인 노예들이 일하던 농장)과 머틀비치(Myrtle Beach)를 구경했다.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주 남쪽 연안 도시인 윌밍턴(Wilmington) 근처 리랜드(Leland)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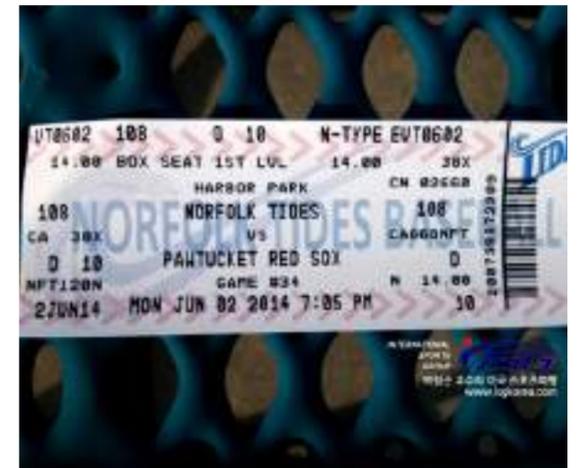
6월 1일에는 버지니아주 체서피크(Chesapeake) 지역에 도착해 호텔에서 1박한 뒤 6월 2일은 버지니아 비치와 체서피크 베이 브릿지 터널을 구경했다. 이어 가족들을 호텔에 남겨 둔 채 나혼자 윤석민 선수를 만나기 위해 노퍽 타이즈(Norfolk Tides) 하버 파크(Harbor Park) 구장을 찾았다.

원래 오후 7시5분 경기인데 윤석민 선수를 미리 만나기 위해 야구장에 도착하니 그때가 오후 4시 44분이었다. 이날은 포터킷 레드삭스(Pawtucket Red Sox)와 경기가 열렸다.

매표소에서 14달러에 1루쪽 자리 입장권 한 장을 구입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정식 입장은 안 되었지만 구장 문이 열려 있고 지키는 사람도 없어서 5시 10분쯤 구장으로 미리 들어갔다.



하버 파크 매표소.



당일 구입한 노퍽 타이즈와 포터킷 레드삭스 경기 입장권.



윤석민 선수와 함께.



윤석민 선수(오른쪽)와 그의 통역담당이 운동을 마치고 걸어 가고 있다.

마침 구장 안에는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었다. 구단 스태프가 있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고 윤석민 선수의 소재를 물으니 우익수 쪽에서 훈련하는 55번 선수라고 알려주었다. 마침 윤석민 선수가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내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다.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 학과장이라고 하니 “야구학과도 있어요?” 라며 깜짝 놀랐다. "메이저리그 진출 못해서 어쩌냐? 빠른 시간 내에 빅리그 진출 가능하냐? 몸 상태는 어떠냐? 이곳 생활은 괜찮냐?" 등 윤석민 선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리고 안식년 기간 동안 휴스턴에 왔다가 윤석민 선수 경기를 구경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 고마워했다.

인터뷰를 좀 길게 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내 등판 계획이 없고 어웨이 경기 때문에 지금 가야 한다"고 해서 명함만 주고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한국에서 잘 나가던 에이스 투수가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하고 마이너리그에서 게임을 뛰고 있고 그것도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으니... 마음이 좀 아팠다. 빅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는 추신수와 류현진 선수에 비교하면 안타까웠다. 빠른 시간 내에 메이저리그 승격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불현듯 MLB와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선수들은 누구인지 궁금했다.

찾아보니 2014년 현재 MLB와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다음과 같았다.

- * MLB=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류현진(LA 다저스)
- * 트리플A= 윤석민(볼티모어 오리올스), 이학주(탬파베이 레이스), 하재훈(시카고 컵스), 최지만(시애틀 매리너스)
- * 더블A= 강경덕(볼티모어 오리올스), 이대은(시카고 컵스), 데릭 정(토론토 블루제이스) * 하이A= 김선기(시애틀 매리너스),
- * 로우A= 심현석(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신진호(캔자스시티 로얄스), 문찬중(휴스턴 애스트로스), 김성민(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윤정현(볼티모어 오리올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에는 7개 마이너리그팀이 있다. 오리올스팀은 현재 윤석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노퍽 타이즈 뿐만 아니라 루키부터 트리플A까지 많은 팀을 보유하고 있다

- * 노퍽 타이즈(Norfolk Tides, 트리플A 인터내셔널 리그)
- * 보위 베이삭스(Bowie Baysox, 더블A 이스턴 리그)
- * 프레데릭 키스(Frederick Keys, 하이A 캐롤라이나 리그)
- * 델마바 쇼어버즈(Delmarva Shorebirds, 로우A 사우스 애틀랜틱 리그) * 애버딘 아이언버즈(Aberdeen IronBirds, 쇼트 시즌A 뉴욕 펜 리그)
- * GCL 오리올스(GCL Orioles, 루키 걸프 코스트 리그)
- * DSL 오리올스(DSL Orioles, 루키 도미니칸 서머 리그)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트리플A 시설 및 분위기를 파악할 겸 구장 안을 둘러보았다. 먼저 저지, 모자, 티셔츠 등을 팔고 있는 매점을 찾았다.



노퍽 타이즈의 저지



노퍽 타이즈의 모자



노퍽 타이즈의 티셔츠

하버 파크 구장 내 매점에서는 소속 선수들의 사인볼과 선수 사진도 판매하고 있었다.



하버 파크 구장 내 매점의 사인볼 판매 모습.



하버 파크 구장 내 매점의 선수 사진 판매 모습.

구장에서는 재미있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 노인들로 구성된 밴드가 스탠드에서 연주하고 있었다. 노퍽 타이즈 유니폼을 입고 나이도 잊은 채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구장 한 켠에는 어린이들이 볼 스피드를 측정할 수 있는 공 던지는 시설도 만들어 놓았다. 간단한 시설이었지만 어린이들이 야구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 전에 연주로 분위기를 돋우고 있는 노인 밴드.



볼 스피드를 측정하는 곳

스타디움 바로 뒤에는 항구가 있었다. 구장 명칭을 왜 '하버 파크'라고 지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스타디움은 1993년 노퍽 시내에 약 170억 원(1600만 달러)을 들여서 개장했다. 수용인원은 1만1856명이다. 1995년에는 마이너리그 구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장으로 베이 스피어 아메리카(Baseball America)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버 파크 스타디움 외야에서 찍은 사진. 오른쪽으로 항구가 보인다.

이날 홈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노퍽 타이즈는 3-1로 포터킷 레드삭스를 이겼는데, 나는 6회에 2-1로 리드하는 상황에서 호텔로 돌아왔다.



관중들이 경기 전 미국 국가를 부르며 있는 장면.



노퍽 타이즈와 포터킷 레드삭스의 경기장면.

37.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로저스 센터와 미시간주립대(MSU)를 가다

미국 스포츠 여행(36) 퀘벡,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미시간주립대

[휴스턴=박정근 호서대 교수(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ISG 대표이사)] 지난해 6월 29일 일요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보스턴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캐나다를 향해 출발했다. 메인주를 중단하며 캐나다로 가는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를 해변으로 단장한 에코 레이크 비치에서 잠깐 쉬고 밤 늦은 시간에 퀘벡 근처 드러몬드빌(drummondville)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점심시간 쯤에 퀘벡 관광지에 도착했다.

퀘벡주는 알다시피 캐나다 동부에 있는 지역으로, 주로 프랑스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며, 캐나다에서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유일한 주다. 퀘벡주의 주도가 퀘벡이다. 이곳은 명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프랑스 풍의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관광객이 참 많았다.



7월 1일은 국경일인 '캐나다의 날'이라 프레이드 등 볼 것들이 많았다. 드러몬드빌보다 남쪽에 위치한 몬트리올 및 오타와 시내를 하루종일 관광하고 저녁시간에 섬이 1000개라는 천섬(joe well stone beach)을 구경했다.

다음날은 더 남쪽으로 달려 토론토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에서 인턴을 했던 김현수 씨를 만나 기민이네 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기민이네 가족들은 천안에 있을 때부터 친했는데 미국에 올 때마다 만난다. 다음날은 기민이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근무하고 있는 토론토한인노인회를 방문했다.

◀ 퀘벡에서 가족과 함께.



▲ 토론토한인노인회에서 기민이 아빠(강원목), 회장님과 함께.

기민이네 가족과 함께 토론토 시내를 둘러보고 크루즈 여행을 한 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를 구경했다. 늦은 시간이라 야구장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바로 옆에 있는 호텔안에서 스타디움 전체가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주도인 토론토를 연고지로 하는 메이저리그팀이다. 1977년 창단했으며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캐나다 국적의 유일한 메이저리그 팀이다.



▲ 토론토 블루제이스 홈구장 로저스 센터 앞에서.

7월 5일 기민이네랑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이가라 폭포를 구경했다. 이 폭포는 미국 뉴욕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 남서부에 위치한 런던(London)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오후 미시간주 중앙부 이스트 랜싱 지역에 위치한 미시간주립대(MSU)에 도착했다.



▲ 나이가라 폭포 앞에서.

MSU는 나의 젊음을 바쳤던 곳이라 미국 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1983~1985년 체육행정학 석사, 1987~1992년 스포츠심리학 박사, 2005~2006년 안식년 등 모두 8년을 보낸 곳이다.

박사 시절에는 한국유학생 회장을 하면서 코리안나이트 및 남북한 세미나 등 많은 추억을 남겼고, 안식년 때는 가족들과 함께 1년을 지내고 애들 공부 때문에 가족들만 두고 1년간 기러기 아빠를 했던 추억 등 수많은 기억을 간직한 곳이다.

MSU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MSU는 1855년 미국 최초의 농과대학으로 설립, 최초의 랜드그랜트 대학교이기도 하다. 미국 내 최고 공립 연구 대학교들로 간주되는 미국의 퍼블릭 아이비 대학교들 가운데 하나이다.

2014년 기준으로 재학생이 5만 85명(학부생 3만 8786명, 대학원생 1만 1299명)에 이르렀고, 한국을 포함한 해외 유학생수는 7660명에 달한다. 교직원 4700명의 교원을 포함해 모두 1만 1600여명에 이른다.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규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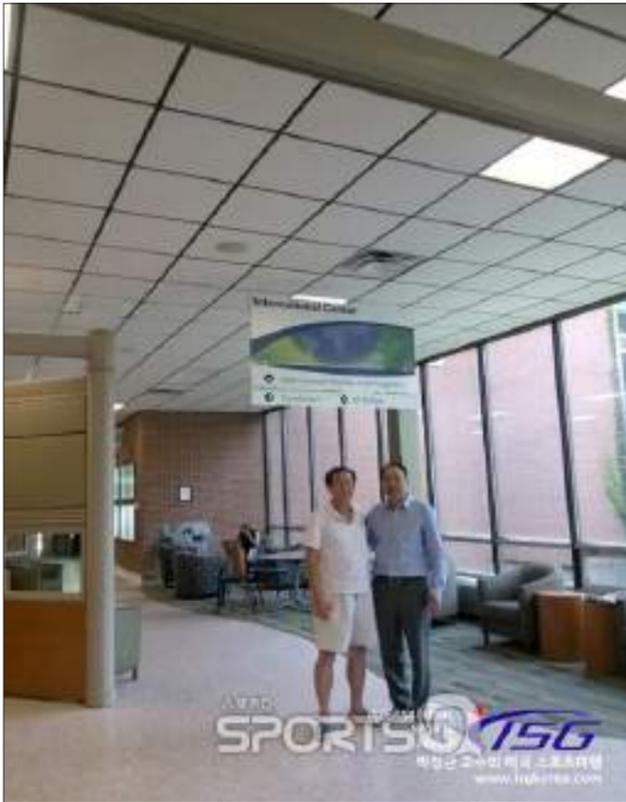
특히 경영학, 원자핵물리학, 교육학, 법학, 정치학, 정골의학,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고 서플라이체인 경영, 포장, 호텔경영, 무선통신, 음악치료 부문의 연구를 선구적으로 개척했다.



▲ MSU 상징인 스파르탄 동상 앞에서.

MSU에 도착하자마자 이전에 자주 다녔던 곳들을 가보았다. 코리아하우스, 스파르탄빌리지, 도서관, 스파르탄 마켓(2주전에 폐업했다고 함)을 가보고 찰리강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다음날에는 내가 존경했던 임길진 학장님(현재 고인)이 계셨던 국제대학에서 강기원 교수를 만났다. 강 교수는 아직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임길진 학장님은 필자가 학생회장을 맡던 시절에 40대의 나이에 국제대학장으로 부임하시어 국제적인 일을 많이 하셨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 강기원 교수와 함께.



▶ MSU 국제대학 건물안에 있는 매장.

MSU 스포츠시설은 훌륭한 편이다. 내가 공부할 때는 빅텐(Big Ten) 컨퍼런스 소속이었다. 10개 대학(미시간주립대, 미시간대, 위스콘신대, 오하이오주립대, 노스웨스턴대, 퍼듀대, 인디애나대, 미네소타대, 아이오아대, 일리노이대. 나중에 펜실바니아주립대도 참가)이 각 스포츠 종목에서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펼치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국내에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장관이었다. 미전역에서도 인기가 높은 컨퍼런스였다.

MSU 운동부는 12개 남자팀, 13개 여자팀이 있으며, 전미대학체육협회(NCAA)가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한다. 미식축구팀은 1954, 1956, 1988, 2014 로즈볼 우승, 6번의 내셔널 챔피언. 농구팀은 1979, 2000년 NCAA 우승에 이어 최근에는 7번의 파이널포 진출, 아이스하키팀은 1966, 1986, 2007년 내셔널 챔피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MSU 체육학과도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대학이었으며, 특히 필자가 전공했던 스포츠심리학 또한 명성이 대단한 대학이었다.



▲ 필자가 수학하던 체육학과 건물 IM CIRCLE 앞에서.

MSU 출신 유명 스포츠 선수 출신이 많지만 그중 매직 존슨과 커크 깁슨이 대표적이다. 매직 존슨(Magic Johnson)의 본명은 어빈 "매직" 존슨 주니어(206cm)로 전 NBA LA 레이커스의 포인트 가드로 활동한 프로 농구 선수이다. 매직이라는 닉네임은 15세 때 어느 경기에서 36득점 18리바운드 16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를 지켜본 저널리스트가 붙여주었다고 한다.

커크 깁슨은 전 MLB 야구 선수이며 지금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감독이다. 그는 MSU 시절 야구선수와 미식축구선수(와이드 리시버)를 병행했지만, MLB에서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LA 다저스에서 외야수로 활동하였다.

스포츠 이외에도 MSU 동문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다. 엘리 브로드브는 자선 사업가이며 억만장자이다. 브로드는 부인과 함께 2008년 하버드대학교와 MIT가 공동설립한 생물학연구소인 브로드 연구소에 4억 달러를 기증하였다.

제임스 칸은 영화배우이며 MSU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1972년 영화 '대부'에서 장남 소니의 역할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기업가 톰 고레스, 풀리처상 수상 작가 리처드 포드, 전 요르단 수상 아드난 바드란, 노벨상 수상자 엘프리드 허시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MSU 동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정근모(전 과기처장관), 이완구(전 국무총리), 유일환(전 유한양행 대표) 등이다. 현재 53만 2000명의 MSU 졸업생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MSU를 둘러보던 중 마침 소프트볼 실내훈련장에서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다. MSU는 방학 동안 학생들을 위해 열리는 여름스포츠캠프로도 유명한 곳이다.



▲ 소프트볼 실내훈련장에서 훈련하는 어린이들.

MSU가 예전 방문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경기장이었다. 필자가 수학할 때 있었던 야구장, 축구장, 소프트볼장이 기부자들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건설됐다.



▲ Secchia Stadium(소프트볼장).



▲ DeMartin Stadium(축구장).]



▲ McLane Baseball Stadium(야구장).



▲ 75만~400만 달러 기부자 명단(Secchia, DeMartin, McLane).



4.

**박정근 교수의
언론 기사**

오마이뉴스 2003.04.08

공부하는 학생선수, 과연 불가능한가?

8일 체육시민연대,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전국체육교사모임의 주최로 ‘학원 엘리트 체육의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 구성원들은 공부를 도외시한 채 운동에만 전념하는 전국의 학생 선수들이 인권 유린과 학업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이어 그들은 어릴 적부터 운동만 하는 현실이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기 힘들게 만들고, 선수로 성공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선수들이 사회 부적응자로 제도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구성원들은 ‘학생선수들이 일정 시간 이상 운동할 수 없도록 법제화’ ‘연습 및 시합 출전으로 인한 수업 결손 금지’ ‘초등학교 합숙훈련 금지 및 합숙소 폐지’ ‘체육특기생 대입 진학시 내신 및 수능 커트라인 점수 상향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천안초 축구부 합숙소 화재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함께 시작됐다.

토론은 ‘학원 스포츠의 개혁, 의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강신복 교수(서울대 체육교육과)의 총괄적인 강연이 있던 후 참가자들의 지정 토론으로 이뤄졌다.

제도의 비현실성과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말문을 연 박명기 교수(서울시교육위원)는 “현수능 80점(400점 만점), 내신 90% 라는 체육 특기생 입시 제도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라며 삼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수능 커트라인을 60% - 77% 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덧붙여 그는 한국 체육 제도 개혁을 위한 ‘체육제도 개선 위원회’ 같은 전담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라크나 대구 참사에 비해 천안 초등학교 화재사건을 많은 이들이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운을 댄 정윤수(축구칼럼니스트)씨는 ‘학생선수’를 ‘운동선수’로만 보는 인식의 시급한 전환을 촉구했다. 또 정씨는 정작 발 벗고 나서야 할 현장에 있는 축구인들이 신분 보장 문제로 직접 참여 하지 못한 현실이 무척 답답하다며 아쉬워했다.

"서울에서 오전 열시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과연 얼마나 많은 현장 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며 주최 측에 섭섭함을 토로한 이민표 교사(영남 중학교)는 “남을 밟고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경쟁 논리에 선수와 지도자 모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혔다. 덧붙여 그는 학생 선수들이 학교 운동 시설을 독점함에 따라 일반 학생들이 운동 할 욕구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을 강조했다. 또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회의 통폐합을 주장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축구를 했다는 최동욱 교사(울전중학교 축구부 감독)는 합숙소 폐지가 근시안적 해결책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현재 천안 화재 후 합숙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방 학생들이 오갈 곳이 없어졌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그는 현실적 제도의 안정적인 뒷받침 없이 지금 와서 무조건 합숙소를 폐지시키는 건 실제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형택 선수를 지도한 주원홍 감독(삼성증권 테니스 감독)은 “단기간에 한국 체육 제도를 개혁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적어도 초등학교 합숙 훈련만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이어 그는 참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의 끊임없는 재

교육을 당부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는 한국코칭능력개발원 홈페이지(www.ikcdc.net)나 이팩(02-3471-2469)에서 받을 수 있다.

이어 박정근 교수(호서대 코칭능력개발대학원장)와 김홍남 교수(필른 체육대학 박사)는 독일과 미국 스포츠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며 앞으로 한국 체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안민석 교수가(체육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공부하는 학생선수들의 가능성을 탐색해 본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에 있는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부탁한다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토론회 구성원들이 모두 포함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릴레이 1인 시위, 항의 방문(교육부, 문화부, 대한체육회), 관계 기관 서약서 추진 등을 계속 실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일보 2005.06.08

초·중·고 야구지도자를 위한 크리닉

초·중·고 야구지도자를 위한 세미나가 11일 오전 8시 30분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소프트볼 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허구연 MBC해설위원과 박용진 PSB해설위원, 박노준 SBS해설위원, 박정근 호서대교수, 김명화 우송대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피칭과 타격의 기본부터 인·아웃 필드, 베이스러닝, 공격 및 수비, 재활훈련, 심리기술훈련 등 야구 전반에 걸쳐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방안을 소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료증과 야구지도자학과 석사과정 등록시 2학점을 인정받는다.

합격례 2006.09.15

국제감각 갖춘 스포츠 전문인력 키운다

박정근 교수, 미시간주립대 '국제스포츠 지도자과정'개설

"스포츠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 ‘국제 스포츠 지도자 프로그램’ (International Sports Leader Program)을 개설한 박정근(51) 호서대 체육학과 교수. 그는 그동안 국내 체육계의 수많은 지도자나 선수, 스포츠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지만, 변변한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최근까지도 스포츠 연수 하면 어학 과정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스포츠 연수를 진행하려면, 현장실습과 영어교육, 이론교육



을 병행해야만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3개월과 6개월 과정 2가지로 전공과정(스포츠행정·코칭론 등)과 영어, 인턴십(해당 종목의 학교 또는 클럽에서 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멘토링'으로 불리는 과정으로, 미시간주립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교수가 연수 전반에 관한 학습과정을 효율적으로 이수하도록 '특별 지도'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연말부터 과정이 시작될 예정인데, 스포츠 지도자나 선수, 체육 행정가, 체육 관련 전공 학생, 스포츠 기자 등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스포츠 전공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겸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고 소개했다. 미시간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박 교수는 이 대학의 테버라 펠츠 교수와 함께 이 프로그램의 공동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조이뉴스24 2009.01.30 고교축구 주말리그제 토론회 격론... 시행 앞두고 찬반 팽팽

30일 오후 2009 고등리그 시행 토론회 열려

선진 축구로 가는 길" VS "의견 수렴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학교축구 활성화 사업-초, 중, 고교 주말리그제' 도입을 놓고 찬성-반대 측 인사들의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2009 고등리그 시행 토론회'가 열렸다.



조중연 신임 축구협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어진 토론회는 장원재 숭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찬성과 반대 각 다섯 명씩의 인사가 패널로 나서 리그제를 놓고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말리그제는 남자 초·중·고교 축구의 학기 중 전국 규모 토너먼트 대회를 폐지하는 대신 연중 지역 리그 대회와 연말 왕중왕전으로 전환, 공부하는 선수들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찬성측 인사로 모두 발언에 나선 이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은 "공식적인 회의만 14~15회를 했다"라고 전제한 뒤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고교 졸업 선수들의 다양한 진로 보장 ▲축구관 규모의 확대 등을 위해 주말 리그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 과장의 발언에 대해 반대측 오희천 통진중고 감독은 "오늘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반문했다. 안동고등학교 최건욱 감독도 "축구협회가 주말리그에 대한 구체적인 경기 수 등을 말해주지도 않고 시행하려 한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공부를 시키며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광경근 여의도고 감독도 "고교에 진학하면 직업이라 생각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주말리그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당장 유학 가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그제의 운영 주체인 축구협회 송기룡 기획부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라남도 해남 공청회에서 모두 설명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한 뒤 "토너먼트 시스템이 문제가 많아 리그 형태로 바꾸는 게 낫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최 감독의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대학진학 방법이 바뀌어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리그제 반대측 의견에 대해 찬성측 박정근 호서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학교마다 4강, 8강 등의 기준이 있지만 결국은 선수의 실력을 보고 뽑는다"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통진중고 3학년 선수의 학부모인 정현숙 씨는 "2008년 11월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곧바로 실시하는 게 어딴냐. 우리 아이가 실험대상이나"라며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를 바로 시행하기보다 현재 중학생들부터 해야 한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측 의견이 부딪히자 객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던 일선 학부모와 지도자들은 찬성측 인사들을 향해 불만을 터트리며 리그제 도입 유보를 주장했다. 일부 참석자는 "결정을 다 해놓고 무슨 공청회냐", "조중연 회장 물러나라" 등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결국, 토론회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소란 속에 발언에 나선 김대길 축구협회 풋살분과위원장은 "축구협회의 홍보 부족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학부모들께서 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며 제도를 겪으며 보완해가자는 의견을 내세워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스포탈코리아 2009.01.30 초중고 주말 리그제 공청회, 팽팽한 찬반 격론 속에 끝나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초, 중, 고교 주말 리그제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세 기관은 30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2009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말 리그제에 관한 공청회(특히 고교 리그제 중심)를 열었다. 공청회는 주말 리그제에 찬성하는 측과 갑작스러운 정책 도입에 우려를 표명하는 반대측이 토론을 벌이는 양상으로 진행됐고, 많은 축구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했지만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지난 11월 축구협회를 포함해 세 기관이 발표한 초, 중, 고 주말 리그제는 기존의 토너먼트 방식의 대회에서 오는 악영향을 일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는 학습권을 위해 학기 중에 대회가 없어지고, 주말 리그제를 개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근간을 바꿔놓기 때문에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공청회까지 오게 됐다.

주말 리그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교과부 박희근 과장, 문체부 이상일 과장, 호서대 체육학과 박정근 교수, 대한축구협회 김대길 이사 그리고 송기룡 부장이 나섰다. 이어 반대 측에서는 안동 고등학교 최건욱 감독, 통진 종합고등학교 오희천 감독, 여의도 고등학교 광경근 감독, 전라북도 축구협회 김대은 부회장 그리고 학부모대표 정현숙 어머니가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거의 모든 이들은 제도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도입 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나타냈고,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공청회 도중에 큰 불만을 드



러내며 회의장 바깥으로 나가기도 했다.

찬성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축구 발전을 위해서 주말 리그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운영상에서 나오는 미비점은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론적으로 옳은 제도이니만큼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행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 제도로 월드컵 4강의 기쁨을 마련했다. 조금만 손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주말 리그제가 좋은 제도인 것은 알겠지만 지금 도입하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정현숙 어머니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에 우리 아이를 실험대상으로 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션 2009.04.17 한국야구발전연, 22일 '야구 인프라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야구발전연구원(원장 김종)은 '야구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 2회 야구발전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올림픽, WBC 등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과는 걸맞지 않은 낙후된 지방 경기장 시설을 개선하고 야구 인프라의 확대와 돐구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경기장 시설개선이 시급한 대전, 대구, 광주구장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방구장의 시설 현대화 방안, 유소년 야구장 및 간이 야구장 확보 방안, 돐구장 건설의 최적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박기철 스포츠투아이 전무, 서승호 한국 스포츠CMS 대표, 정희윤 SEI 스포츠경제연구소장, 김동성 대한야구협회 부회장, 허구연 MBC 해설위원, 박정근 호서대 교수, 스포츠월드 이준성 차장 등이 발제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야구발전연구원 김종 원장은 "야구발전토론회는 현재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야구장 시설을 중심으로 야구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 3, 4회 토론회에서는 야구 저변 확대,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뉴스 2009.04.17 23일, 국회서 '야구발전' 토론회 열린다

'야구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발전 전략'을 주제로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회 야구발전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동안 올림픽,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제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과는 걸맞지 않은 낙후된 경기장 시설을 개선하고 야구 인프라의 확대와 돐구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경기장 시설개선이 시급한 대전, 대구, 광주 구장의 현황과 지방구장의 시설 현대화 방안, 유소년 야구장 및 간이야구장 확보 방안, 돐구장 건설의 최적화 및 활용 방안 등이 주요 토론 주제가 된다.

박기철 스포츠투아이 전무, 서승호 한국 스포츠CMS 대표, 정희윤 SEI 스포츠경제연구소장, 김동성 대한야구협회 부회장, 허구연 MBC 해설위원, 박정근 호서대 교수, 스포츠월드 이준성 차장 등이 발제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행사를 이끌 한국야구발전연구원의 김종 원장은 "야구발전토론회는 현재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야구장 시설을 중심으로 야구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 3, 4회 토론회에서는 야구 저변 확대,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스포츠경향 2009.04.23

야구발전토론회 “야구로 번 돈 야구에 쓰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야구발전토론회 도중 나온 성경 구절로 토론 중 화제가 된 말이다. 인프라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해법 중 한가지로 야구로 번 돈은 야구에 투자하자는 의견이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지방구장 시설 현대화 방안 △유소년 야구장 및 간이야구장 확보 방안

△돛구장 건설 최적화 및 활용방안 등 야구장 인프라 개선을 내건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박기철 스포츠투아이 전무의 발표로 진행된 지방구장 현대화 방안 중 스포츠투가운데 야구토토 수익금을 지방구장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구장이 시설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야구토토 수익금을 야구장 건립비용으로 지원하자는 것. 2008년 야구 총수익금 720억원을 6년간 야구 인프라에 투자하면 무난히 지방구장 현대화를 이룰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금은 전체 수익금 가운데 10%만이 유소년야구 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KBO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구장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의 필요성과 함께 구장 위탁료를 전체 수입의 10% 미만으로 묶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메이저리그 구단별 사례에 따른 내용으로 국내 구장도 이에 맞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잠실구장 위탁료를 무려 25%까지 받았던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13%로 낮추고 또다시 10%까지 인하했다. 임대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은 야구협회장인 강승규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한편 토론에 앞서서는 윤종환 한화 단장이 대전구장 시설 현황을 브리핑했다. 또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동성 동대문운동장 비상대책위원장과 허구연 MBC 해설위원, 이준성 한구 야구기자회 회장, 박정근 호서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2010.05.09 야구학과를 아시나요?

학문으로서 야구는 어떤 모습일까.

야구만큼 말이 많은 스포츠도 드물다. 매일 열리는 프로야구는 풍부한 애깃거리를 생산한다.

각종 규칙, 감독의 선수 기용, 작전, 투수와 포수의 볼 배합, 홈런 때린 선수의 갖가지 사연 등등 한 경기가 끝나면 이야기 보따리가 쏟아진다.

중가 미국에서는 다양한 야구 결과에 과학을 덧붙인 시도가 있었고 야구를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은 논문들이 일찍부터 발표됐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팀별 의존도',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리그간 선수 이동을 살핀 한 팀의 지난 30년간 조직 안정성' 등 갖가지 주제의 조사 결과가 팬들을 즐겁게 했다. 야구와 물리학을 접목한 '야구의 물리학'이란 책도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에도 야구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이 있다.

충남 천안에 자리 잡은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에는 야구학과가 있다. 야구이론과 실기를 모두 가르치는 곳으로 대학 학부와 대학원에서 '야구학과'라는 이름을 내건 곳은 이곳 뿐이다.

호서대 체육학과 교수로 야구광인 박정근(55) 교수가 2004년 야구학과를 개설했다. 이번 학기에는 프로야구 일선에서 활약 중인 코치와 TV 해설위원, 열혈 마니아를 자부하는 7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회인 야구팀에서 활약하면서 심판자격증을 이미 딴 대전의 체육선생님, 광주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오는 40대 열성팬 등이 허구연 MBC 해설위원, 박노준 SBS 해설위원, 박용진 전 한화 2군 감독으로 이뤄진 교수진으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배운다.

대학원생들은 5학기에 걸쳐 야구 코칭심리학, 트레이닝론, 코칭론, 야구 기술훈련, 전

공 세미나, 전공 인턴십 등 2학점짜리 12개 과목을 듣고 논문을 통과하면 석사학위를 받는다.

'체육학 석사'에 전공은 야구전공이 되는 식이다. 더 세분화하면 코치·심판·트레이닝·마케팅·기록분석·해설·에이전트 전공으로 나뉜다.

호서대 스포츠과학대학원은 3년전 대한야구협회와 산학협동을 맺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경기 지도자 자격증 2급을 준다. 2급 자격증이 있으면 아마추어팀 감독을 곧바로 맡을 수 있다.

스포츠심리학을 전공하고 야구학과 개설에 산파 노릇을 한 박 교수는 6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야구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정작 학위를 제대로 따낸 학생은 없다"며 말을 시작했다.

프로에서 은퇴하고 아마추어 지도자를 희망한 여러 선수들이 '야구학과'를 노크했지만 공부할 시간도 모자랐고 등록금 마련도 어려워 1~2학기만 다닌 채 학업을 접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야구 지도자의 빈자리는 팬들이 메웠다. 선수 출신에게 부족한 이론을 채워주자는 원래 목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야구를 하지 않았던 일반인에게 체계적으로 실기를 가르쳐 전문 야구인을 육성하자는 쪽으로 교육 방향이 확대됐다. 본격적인 야구 아카데미를 지향한 셈이다.

서울산업대와 우석대에 이어 호서대 대학원 야구학과에서도 겸임교수로 학생들과 만난 박노준 해설위원은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앞으로 프로야구단 프런트와 야구 전문 기자 등도 이곳에서 양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MBN뉴스광장 2010.06.15

허정무 · 박지성 리더십 분석 - 호서대 체육학과 박정근 교수



MBN뉴스광장 2010.06.24

첫 원정 16강...한국 축구의 힘은? - 호서대학교 체육학과 박정근 교수



스포츠조선 2011.01.31

ISG,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미국야구취업연수 실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대표이사 박정근 호서대 교수 · 이하 ISG)이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고 미국야구 취업연수를 실시한다.

ISG는 오는 3월 21일 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에 위치한 키노 스포츠 캠프 플렉스에서 야구 취업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미취업 야구선수들에게 미국야구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대상은 현재 고교 졸업 후 대학교 또는 프로구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선수 중 미국무대 진출 희망자이다.

총 모집인원 44명으로 오는 2월 11일 마산 용마고등학교에서 트라이아웃을 실시해 선발할 예정. 트라이아웃은 일본프로야구 오릭스를 맡았던 레온 리 전 감독과 김용철 전 롯데 감독대행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 건을 담당하고 있는 ISG 김현수 매니지먼트팀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보고듣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무대에 진출을 꿈꾸는 선수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수를 거쳐 최소 마이너리그 팀과의 계약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다수의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이번 연수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트라이아웃에 레온 리 전 감독을 초청한 것도 선수들이 최소 마이너리그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수인지 아닌지 판가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발된 44명은 총 2팀으로 나뉘어 스카우터들 앞에서 실전 리그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560만원을 제외한 총 1290만원(개인부담 교육비 560만원, 현지 체제비 73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오센 2011.02.10

미취업 야구선수들, 11일 마산에서 트라이아웃 '도전'

국내 미취업 야구선수들에게 공개 트라이아웃 기회가 생겼다.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대표이사 박정근 호서대교수)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 오는 3월 21일부터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 위치한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대상은 현재 고교 졸업 후 대학교 또는 프로야구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선수 중 미국야구진출 희망자로 11일 오전 11시 마산 용마고에서 트라이아웃을 통해 선발한다.

일단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 총 담당자인 레온 리(59, 전 오릭스 블루웨이브 감독)는 9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11일 트라이아웃에서 직접 선수들을 평가할 예정이다.

트라이아웃을 위해 방한한 레온 리는 9일 밤 서울 모 호텔에서 OSEN과 만나 "야구를 하고 싶지만 한국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선수들을 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 야구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선수단은 40명 정도로 꾸릴 예정이며, 경기장은 메이저리그 팀들이 사용했던 투산 스프링캠프지를 그대로 활용한다. 코치진도 모두가 프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정해놓았다"고 설명했다.

트라이아웃 소식을 접하고 ISG에 신청서를 접수한 신창호(24, 전 LG 트윈스) 씨는 "군 제대 후 지난해 8월부터 프로야구 신고선수 테스트를 위해 몸을 만들다 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담은 들지만 기회를 잘 살리면 마이너리그 취업도 가능하다"는 말에 일단 테스트에 참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 씨의 경우 군 문제를 이미 해결한 만큼 연수 비용만 감당할 수 있으면 참가가 가능한 상황이다. 총 연수비용은 1290만원(국비지원 560만원, 교육비개인부담 560만원, 현지체제비 730만원)으로 항공료와 비자 진행비는 별도이다.

성균관대를 다니다 중퇴하고 모교인 부천고에서 개인 훈련을 하던 박인규(20) 씨도 "제가 알기로는 1차 테스트에 통과하면 6개월간 교육을 받다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무청 신체검사서에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군입대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다. 아직 나이가 어려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박 씨의 경우 군필이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서 테스트에 통과해도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연봉을 받고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 씨는 "솔직히 비용 부분은 부담이 안될 수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게는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버릴 수가 없었다"고 말한 뒤 "부모님과 상의를 했더니 걱정을 하셨다. 그런데 빛을 내서라도 꼭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ISG 김현수 팀장은 "비용과 군문제가 걸려있다. 그러나 비용의 경우 560만원이 순수 연수 참가 비용이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교통비다.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추후에 말이 나올 것 같아 포함했다"며 "보통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 문제 해결이 안된 선수는 한국에 있어도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 선수들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해외에 가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연기를 시도할 것이며, 당장 입대를 해야 하는 이들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레온 리는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선발된 선수들은 당장 3월 21일부터 투산에서 훈련을 시작할 것이며, 6월부터 3개월 간 최소 6~8개 팀이 참가하는 리그가 운영돼 각 팀당 70경기 이상 치를 것"이라며 "트라이아웃에 많은 선수들이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12.12.08

[송실대, 스타트업 키운다]입주 업체 소개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스포츠스타 애장품으로 어려운 선수 돕는다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은 4가지 핵심사업 스포츠아카데미, 스포츠마케팅&컨설팅, 스포츠매니지먼트, 스포츠온라인포털을 운영하는 회사다. 호서대 체육학과 박정근 교수가 직접 창업한 기업이다. 스포츠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박교수가 스포츠마케팅 전공을 하는 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포츠 관련 사업 인프라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ISG는 유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했다. 조문주 농구교실, 호서대 리틀야구단, 사회인 야구클리닉, 유소년(유아)스포츠교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전·현직 스포츠스타 매지니먼트 사업으로 기업 후원, CF촬영, 초청강연 업무와 국내선수의 해외진출과 해외선수가 국내진출을 할 수 있도록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다.

ISG는 온라인 통해 국내외 유명 스포츠스타와 저명인사의 애장품 경매로 비인기 종목이나 어려운 선수를 지원한다. 이 이벤트는 박교수가 스포츠창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생과 예비창업자를 위해 만들어준 창업 컨설팅 중 하나다.

4가지 핵심사업을 연계해서 라이선싱, 클럽운영, 스포츠 테마파크, 스포츠 캠프, 연수, 대회 유치, 잡지출판 등의 사업을 한다. ISG의 가족법인인 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에서 출판되고 있는 코칭능력개발지(JCD)는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등록돼 있다. 전국 체육관련 석·박사의 다양한 연구논문이 있다. 스포츠 현장의 지도자들에게 스포츠 코칭 및 과학과 관련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코칭분야의 전문적 특성을 지닌 학술지이다.

뉴스와이어 2013.06.27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전주방송과 제2회 대한민국의야구박람회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대한민국의야구박람회사무국이 주최하고 JTV전주방송과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의야구박람회가 개최된다.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 대표이사 박정근, 호서대 교수)은 (주)전주방송(대표이사 신효균)과 지난 6월 24일 JTV전주방송 본사에서 ‘제2회 대한민국의야구박람회’ (조직위원장 박노준, 대한야구협회 기획이사 겸 우석대학교 교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제2회 대한민국야구박람회’ 행사 전반에 걸친 홍보활동 업무뿐만 아니라 참관객 유치와 행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박람회 사무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성공적인 야구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상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업무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한민국의야구박람회사무국이 주최하고 JTV전주방송과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야구박람회’를 오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COEX C홀에서 개최한다.

박정근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 대표이사는 “JTV전주방송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야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사무국이 필요로 하는 행사인력 지원과 홍보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구산업의 발전과 야구관련 기업의 발전에 더 없이 좋은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업체들이 관련물품 홍보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팬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박정근 대표이사는 호서대 체육학과 교수로 평소 야구에 관한 깊은 애정과 유소년 야구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 원장과 호서대 리틀야구단 대표, KBO 야구발전실행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야구산업과 관련된 70개 업체(110개 부스)가 참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야구박람회’는 야구공, 글러브를 비롯한 야구용품, 의류, 액세서리, 야구관련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야구관련 기업의 신제품 시연과 훌륭한 기술력의 다양한 야구 아이템들을 만날 수 있으며 직접 착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야구박람회이다.

또한 ‘제2회 대한민국야구박람회’는 프로야구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올스타전 7.19, 휴식기간 7.18~7.22)에 열리기 때문에 프로야구 휴식기에 무료함을 느끼는 야구팬들이라면 반드시 이번 ‘제2회 대한민국야구박람회’의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가하여 무더운 여름을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야구박람회의 이벤트 계획은 야구박람회 홈페이지(www.baseballexpo.co.kr) 또는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홈페이지(www.isgkorea.com)와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InternationalSportsGroup)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야구박람회 홈페이지(www.baseballexpo.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팩스(063-250-5249) 혹은 이메일(ball@jtv.co.kr)로 접수하면 되며, 참관객 신청 역시 홈페이지 참관안내에서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개요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은 스포츠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스포츠 아카데미,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온라인 포털 사업이 4대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http://www.isgkorea.com>

제2회 대한민국야구박람회: <http://www.baseballexpo.co.kr>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InternationalSportsGroup>

웹사이트: <http://www.isgkorea.com>

스타뉴스 2013.11.14

'야구를 학문으로' 호서대, 야구학과 신입생 모집



국내 유일의 야구학과 대학원 과정이 있는 호서대학교(충남 천안 소재)가 신입생을 모집한다.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는 2014년 전기 신입 대학원생 모집을 오는 22일 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단 소속 선수와 지도자 및 야구에 관심이 있는 매니아라면 입학 원서를 지원할 수 있다. 대학원 입학생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혜택으로 맞춤형 교육이 있다. 대학원생들은 일정에 맞춰 '맞춤식 출장 강의(강의장소 및 시간 조정)'를 들을 수 있다.

강의 내용에 대해 호서대학 야구학과는 "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고 밝힌 뒤 "교육진은 전·현직 프로야구단 코치 및 해설위원(이용철·마해영) 등 현장 경력이 있는 교수(강사)진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연수 혹은 은퇴 후에는 미시간주립대학교(MSU) 국제스포츠지도자프로그램(ISLP)에서 수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J-1 비자로 가족 모두 미국 체류 가능(1~5년,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야구학과(주임교수 : 박정근)에 대한 설명(교과과정 및 시간표)과 장학금 등의 특전 및 원서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홈페이지(주소 <http://sportscience.hose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호서대학교 대학원 교학팀(041-540-5193~6) 및 야구학과 학과장실(041-540-5872)로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스포츠Q 2014.02.11

[SQ인터뷰] "스포츠 선진화는 일자리 창출"

박정근 호서대 교수,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

[300자 Tip!]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 한 집 건너 한명씩 국가의 녹을 받는 시험에 목숨을 건다. 대학교 도서관은 취업 양성소가 되었다. 십중팔구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 책을 퍼들고 저마다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스포츠산업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지만 스포츠산업의 부흥은 아직 요원하다. 답은 어디 있을까. 박정근(60) 호서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창업이라는 답을 던졌다.



◆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교수 박정근

[글·사진 스포츠Q 민기홍 기자] 박정근 교수를 만나기 위해 그가 경영하는 벤처기업의 서초동 사무실을 찾았다. 학교가 있는 아산의 연구실 책상에 앉아 연구하며 논문을 써도 될텐데 그는 그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신없이 바쁘기를 자처한다. 왜,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지, 스포츠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물었다.



박정근 교수의 직함은 너무 많다. 우선 체육학 교수로서 호서대학교의 체육행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2002년과 2004년 국내 최초로 대학원 과정에 야구학과, 축구학과를 개설했다. 현재 호서대 축구부 및 소프트볼팀을 창단해서 지도교수로 있으며, 내년에는 학점은행제 체육학과에 야구부도 창단할 예정이다. 벤처전문대학원의 스포츠경영 전공 주임교수를 맡기도 했다. 벤처기업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의 CEO다. 2009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실험실 창업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시작했다. 스포츠아카데미와 스포츠마케팅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회사다. 지난해부터는 '대한민국 야구박람회' 주관사로 선정돼 박람회 전반에 걸친 홍보·마케팅도 전담하고 있다. 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 원장이기도 하다. 코칭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 단체는 영문으로 주기적인 논문을 발간하며 양질의 지도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박 교수의 활발한 활동으로 전국 각 시도에 지부를 만들어 지방의 지도자들도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발전실행위원, 한국대학야구연맹 이사, 한국야구발전연구원 연구위원, LG 트윈스 프로야구팀 단장 자문역,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심사위원, 전 한화이글스 프로야구팀 전속심리상담사 등으로 눈코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정근 교수가 경영하는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 그가 말하는 스포츠 선진화란

그에게 안정적인 교수직에 머무르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지 물었다. "스포츠 선진화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답이 돌아온다. 그가 말하는 '스포츠 선진화'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정부의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 일자리 창출이다. 나는 스포츠산업에 끊임없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ISG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호서대 학생들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생들이 객원 마케터를 하겠다며 찾아온다. 학생들이 경험하기 힘든 스포츠산업 현장과 맞닥뜨릴 기회를 제공하며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중이다. 내년 창단하는 호서대 야구부도 일자리가 생긴다는 부분에 큰 의의를 뒀다.

사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도 많이 해보았지만 쓴 맛도 많이 봤다. 최근에도 아동·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신청했지만 막판에 고배를 마셔야 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깨지고 박살나도 또 도전할 것이다. 스포츠산업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스포츠산업 발전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공부를 병행하는 운동선수다. "미국 유학시절 공부까지 척척 잘해내는 운동선수를 보고 놀랐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저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을 만들어 양질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내년에 창단할 호서대 야구부도 궤를 같이 한다. 실력이 다소 모자라 프로에도, 대학에도 지명받지 못한 이들을 끌어안아 공부와 병행시킬 계획이다. 야구 실력이 나아지면 프로무대에 도전할 수 있고 공부를 함께 하기 때문에 미래도 대비할 수 있다.

◆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젊은이들에게 주문하는 것

그는 안식년 교수다. "사실 골프나 치고 놀러다니면 되지 뭐. 사서 고생하는거야"라고 껄껄 웃는다. 하지만 그는 꿈이 있어 여전히 달리고 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세 분 있다. 강석규(101) 호서대학교 명예총장, 고 임길진 전 미시간주립대 학장, 정근모(75) 전 과학기술처 장관 세 분을 닮기 위해 노력한다. 모두 나이와는 관계없이 누구보다 활동적이신 분들"이라며 "그분들에 비한다면 내 나이 예순은 활동하기에 팔팔한 나이"라 말했다.

그는 현직 교수가 벤처 기업을 일으킨 신화를 창조하고 싶다고 말한다. 확실한 꿈이 있으니 그에게 나이는 큰 걸림돌이 아니다. 그러면서 "최근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끈기가 부족하다. 확실한 목표와 함께 강한 내적 동기로 매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또 범위를 한국으로 한정짓지 않기를 바란다. 경계를 허무는 네트워킹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꿈꾸는 인재들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한국은 좁다"고 말했다.

그의 최종 꿈은 벤처에 관한 전문가로 창업 전도사로 거듭나는 것이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스포츠 관련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스포츠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려 하고 있다.

[취재 후기]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기조에 맞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건 다름아닌 서비스업이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산업은 그동안 등한시됐기에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 **박정근 교수**같은 기성세대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어주고 있다. 이제 젊은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답할 차례다.

경북일보 2014.12.08 "공부도 야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호서대 학점은행제·독립야구단 창단 설명회 학위 취득·프로무대 진출 등 다양한 기회 제공

야구를 하다 중도에 그만뒀거나 야구 및 스포츠에 관심있는 일반학생들에게 야구를 새로운 차원에서 접할 수 있는 야구학과 및 독립야구단이 창단된다.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는 지난 5일 호서대 체육관에서 선수지원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독립야구단 창단설명회를 갖고, 창단 배경 및 목적, 운영방안 등을 설명했다.

호서대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 창단하는 독립야구단은 야구를 하면서 스포츠관련 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을 통해 일반대학 학사편입 자격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스포츠마케팅 및 매니지먼트 전문회사인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과 산·관연관사업으로 펼쳐지는 독립야구단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즉 그동안 프로진출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야구를 그만 뒀어야했던 선수출신은 물론 야구은퇴자, 야구에 관심있는 일반학생 등을 대상으로 야구를 하면서 야구전문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호서대 학점은행제를 통해 78학점이상을 획득할 경우 일반대학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140학점을 획득할 경우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는게 ISG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내년 창단을 목표로 선수지원자 모집에 들어간 독립야구단이 성공을 거둘 경우 도중하차한 야구선수출신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 야구은퇴자에게는 제2의 인생준비 기회가 주어진다. 또 야구선수로서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일반인에게도 전문적으로 야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ISG와 야구학과측은 내년 창단과 함께 연고지 프로야구팀인 한화이글스 3군팀 및 대학연맹 소속팀과의 연습경기를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어서 야구선수출신들에게는 또한번의 프로선수 진출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지난 2011년 9월 프로구단 방출선수 등을 중심으로 창단해 3년간 운영됐던 독립구단 고양원더스는 2012년 LG 이희성을 시작으로 무려 27명의 프로선수들을 배출해 냈다. 이를 위해 호서대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는 **박정근 주임교수**를 중심으로 전직 프로야구선수, 구단스태프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을 배정할 계획이다.

박정근 교수는 "많은 고교 엘리트 야구 선수들이 대학 및 프로에 지명되지 못해 야구클럽을 벗어야 되는 현실속에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독립야구단을 창단하게 됐다"며 "산학연관의 지원을 통해 이들 선수에게 대학 교과 과정 및 야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립야구단 지원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홈페이지(www.isgkorea.com) 또는 전화(02)583-776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대학신문 2014.12.09

호서대 학점은행제 독립야구단 만든다

교수진에 이용철 KBS 야구해설위원, 마해영 전 선수, 조태룡 넥센 단장 등

호서대(총장 강일구)가 학점은행제를 통한 독립야구단 창단 설명회를 열었다. 호서대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는 지난 5일 호서대 체육관에서 선수 지원자, 학부모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차 창단 설명회를 열고 창단 개요와 목적,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고 8일 밝혔다.

호서대 학점은행제 야구선수들은 호서대에서 야구와 학업을 병행하게 된다. 야구 및 스포츠 관련 수업을 통해 졸업 학점을 이수하면 정규대학 졸업학생들과 동일한 체육학 학사 학위를 수여 받는다. 2학년만 마쳐도 호서대 및 타 대학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며 정식 야구선수로 활동하거나 일반 학생으로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다.

박정근 야구학과 주임교수는 “많은 고교 선수들이 대학 및 프로에 지명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야구글러브를 벗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야구든 학업이든 재기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창단 목적”이라며 “대학 교과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야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지원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 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 선수들 중 기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엔 프로나 아마야구에서 조기 은퇴한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독립구단을 결성한다. 또한 국내에서 검증된 전문 코칭스태프의 훈련 프로그램과 프로 3군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기량을 쌓은 후 프로나 해외 진출도 타진하게 된다.

야구수업을 진행할 교수진들은 이용철 KBS 야구해설위원, 마해영 전 프로야구선수, 조태룡 넥센 히어로즈 단장 등 호서대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 교수들로 내정됐다.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 대학원 신입생 모집 공고문

중부매일 2014.12.30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호서대 체육학과 충청권 유일 선정

전문인력 양성 핵심 허브로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체육학과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부터 처음 개설하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30일 호서대에 따르면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3~14세 유소년을 대상으로 신체발육과 성장에 필요한 수영, 농구, 야구, 축구, 레크리에이션, 태권도, 줄넘기, 인라인스케이트, 피구 등 57개 종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체육지도자다.

특히 연수생들은 호서대학교에서 66시간의 수업과 24시간의 현장실습 등 총 90시간을 이수하면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 국가지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국·공립 체육시설, 스포츠클럽,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취업전망도 밝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공모신청에 전국 120여개 대학이 지원했고, 1차 서면평가 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5개 기관을 선정했다.

호서대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2015년부터 보다 전문화된 유소년스포츠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주관한 박정근 교수(체육학과)는 "이번 선정은 체육학과 교수·학부생·대학원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쾌거이고, 연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유소년스포츠지도자를 육성해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호서대학교는 이달 초에 사회체육학과도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선정돼 어 체육과 생활체육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전일보 2014.12.31

호서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선정

[아산] 호서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 처음 개설하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3-14세 유소년을 대상으로 신체발육과 성장에 필요한 수영, 농구, 야구, 축구, 레크리에이션, 태권도, 줄넘기, 인라인스케이트, 피구 등 57개 종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체육지도자다. 연수생들은 호서대에서 66시간의 수업과 24시간의 현장실습 등 총 90시간을 이수하면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 국가지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국·공립 체육시설, 스포츠클럽,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취업 전망도 밝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공모신청에는 전국 120여 개 대학이 지원했다. 1차 서면평가, 2차 프레젠테이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충청권 유일의 호서대를 비롯해 중앙대(수도권), 경남대(경상권), 광주대(전라권), 가톨릭관동대(강원권) 등 5개 대학이 선정됐다.

한편 호서대는 이달 초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에도 선정됐다.

전설의 키스톤 콤비, '낙오병들의 기적'이끈다

두 번째 독립야구단 미라클 창단 선언...김인식-김재박, 팀 '조련사'로

**ISG, 호서대 대학원과 손잡아
내달 20일 경기 연천서 창단식
마해영·김일훈 등도 코치 합류**

‘베트콩’ 김인식(62)과 ‘여우’ 김재박(61). 1980년대 MBC청룡(LG 트윈스 전신)의 ‘키스톤 콤비(2루수와 유격수)’가 한국의 두 번째 독립야구단을 이끈다. 최초의 독립구단 고양원더스가 해체된 지 6개월 만이다.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기업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은 24일 “호서대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와 손잡고 한국야구아카데미와 한국코칭능력개발원의 도움을 받아 독립구단 미라클(가칭)을 창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타격왕 마해영도 합류

미라클 구단은 고양원더스처럼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했거나 조기 은퇴의 어려움을 맛봐야 했던 야구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20여명의 선수가 지원했다. 미라클은 다음달 20일 경기 연천의 ‘연천베이스볼파크’에서 창단식을 연다. 초기에는 한화 이글스 3군이나 대학야구연맹 소속팀, 서울, 경기 고교야구팀과 연습경기를 치르며 기량을 쌓을 계획이다.

사령탑은 MBC청룡에서 7시즌 동안 활약했던 김인식 전 LG트윈스 2군 감독이 맡는다. 선수 시절 김 감독과 한술밥을 먹으며 LG트윈스 코치도 함께했던 김재박 전 LG 감독도 명예외래교수로서 코치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해영 XTM 해설위원과 한화 이글스에서 선수 생활을 한 김일훈, 최연오 등도 코치로 뛴다.

**후원금 2억 조건 스폰서 모집
야구지도자 취업 교육도 병행**

김인식 감독은 “늦게 잠재력을 꽃피우는 선수도 많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며 “급여가 부족하긴 하지만 박정근 ISG 대표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재박 감독과 선수 때부터 호흡을 맞춘 만큼 함께 팀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기업 나오면 구단 명칭 변경

ISG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고양원더스가 3시즌 동안 화제를 몰고 다녔지만 재정난과 기존 프로야구단의 텃세 등으로 결국 지난해 9월 해체를 선언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독립구단 창단과 독립리그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호서대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와 ISG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박 대표도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는 “후원금 2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스폰서를 모집하고 있다”며 “ISG 미라클이라는 구단 이름을 사용하다 후원 기업이 나타나면 구단주 자리와 팀 명칭을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서대 대학원 야구학과 소속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훈련을 돕고, 의과대 교수들이 의료 지원을 하는 등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구단이 순항하면 연천군의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원기업 나오면 구단 명칭 변경

ISG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고양원더스가 3시즌 동안 화제를 몰고 다녔지만 재정난과 기존 프로야구단의 텃세 등으로 결국 지난해 9월 해체를 선언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독립구단 창단과 독립리그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호서대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와 ISG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박 대표도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는 “후원금 2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스폰서를 모집하고 있다”며 “ISG 미라클이라는 구단 이름을 사용하다 후원 기업이 나타나면 구단주 자리와 팀 명칭을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서대 대학원 야구학과 소속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훈련을 돕고, 의과대 교수들이 의료 지원을 하는 등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구단이 순항하면 연천군의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알선과 인성교육도

미라클 선수들은 낮에는 훈련에 매진한 뒤 저녁 시간에는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박 대표는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중고교 야구팀에 선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며 “꼭 프로선수가 아니라 유소년 지도자, 코칭스태프 등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서대 대학원은 선수들에게 야구업계로의 취업도 중개할 계획이다.

미라클 구단은 1기에서 30여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2~3기 때 200여명까지 정원을 늘리는 게 목표다. 선수들에게는 최소한의 훈련비(70만원)를 받을 예정이다. 프로 진입에 근접한 선수는 장학생으로 선발해 훈련비를 면제한다. 향후 스폰서가 생기면 선수들의 부담을 줄여갈 방침이다. 박 대표는 “현재 800여명의 야구선수가 뚜렷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제2의 독립야구단 '미라클' 구단주 "넥센 히어로즈처럼 되고 싶다"



양창욱 : 26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3부, 목요일 3부는 '목요일스페셜'로 꾸밈니다. 고양 원더스라는 최초의 독립야구단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추억 속으로 떠났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서 또 안 생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독립야구단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곧 창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독립야구단, '미라클'입니다. 오늘은 이 미라클 구단주이신 박정근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정근 : 아,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구단주신데 교수님이시네요?

박정근 : 아, 예. 제가 현직 호서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고요. 대학원에, 저희들 스포츠과 학대학원에 야구학과의 주임교수, 학과장으로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야구학과의 학과장이군요.

박정근 : 예, 그렇습니다. 야구학과는 전 세계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양창욱 : 예. 야구학과에서는 뭘 가르치나요? 야구를 가르치나요?

박정근 : 예.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만들었는데요. 2004년도에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티칭도 하고 졸업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과목이 야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심리학, 야구 트레이닝, 야구 코칭론, 야구 기술훈련, 야구 세미나, 인턴십. 그리고 나서 24학점을 다 따고 나면은 논문을 쓰든 해외연수를 가든 개인 연구를 하든 4학점을 더 따서 28학점을 따면은,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최종 석사 학위를.

양창욱 : 아, 야구로서.

박정근 : 예예. 그리고 거기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나면 대한야구협회에서 저희들은 지도자 자격을 인정을 해서 또 벤치에, 감독으로 바로 벤치에 앉을 수 있습니다.

양창욱 : 아, 그렇군요.

박정근 :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양창욱 : 예. 지금 저도 아주, 생소하지만은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저는 야구학과라고 해서 번트를 잘 대거나 수비를 잘 하는 법, 뭐 그런 걸 배우는 줄 알았어요.

박정근 : 아닙니다. 스포츠 산업으로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야구인들뿐만 아니고 사회인 야구팀들도 수업을 많이 듣고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양창욱 : 아, 그렇죠. 여성분들도 뭐, 야구팬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박정근 : 예. 야구, 요즘 장난이 아니라서.

양창욱 : 예예. 저도 뭐 야구, 진짜 프로야구 광팬이죠, 광팬. 저도.

박정근 : 예, 맞습니다.

양창욱 : 예.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서는 야구 선수였어요? 원래?

박정근 : 아니요. 옛날에 제가 방송에 한 번 나와서 허구연 선생님하고 한 번 40분 생방송에서 나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야구를 너무, 우리 반에선 제가 야구를 잘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제가 학년이 74학년인데 제가 야구 클럽을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나와서 그냥 한 번 테스트 받으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테스트 딱 한번 줄 세워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을 깬 거예요, 못 받은 겁니다.

양창욱 : 에러를 하셨군요.

박정근 : 에러를 내니까 그 한방에 그냥 끝난 거죠.

양창욱 : 아, 그리고 더 이상 야구를 실질적으로 하실 일은 없으셨군요?

박정근 : 예. 그다음에 아마추어로 제가 계속, 아마추어로 대학 와서도, 제가 학교를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고대에서도 야구팀에서 제가 뛰었고요. 미국에서는 소프트볼로 시합을 계속 뛰었고.

양창욱 : 아, 고려대에서 그럼 야구선수 생활을 하셨다는 말씀이예요?

박정근 : 아니 아니, 야구선수는 아니고, 아마추어.

양창욱 : 아, 사회인 야구로?

박정근 : 네. 사회인 야구팀에서 제가 했고. 그 당시는 사회인 야구라고 안 하고 아마추어 야구라고 했죠.

양창욱 : 예. 요즘 동호회들이 참 많죠.

박정근 : 예, 그렇게.. 리그에서는 소프트볼을 제가 직접 지도 했습니다. 제가 석박사를 미국에서 했는데...

양창욱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은 야구를 실질적으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야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지도하

지도하고 구단까지 운영하게 되셨냐는 거죠.

박정근 : 저는 야구인 출신이 아닙니다.

양창욱 : 예. 그럼 야구이론이나 이런 것 등등을 전문적으로 배우셨기 때문에 석박사를 하시고 교수님까지 하시는 거예요?

박정근 : 저는 이제 야구는 아니고 전공이 제가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양창욱 : 아, 스포츠 심리학.

박정근 : 스포츠 심리학, 이제 박사 전공이고. 그 중에서도 코칭리더십. 코치들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도자로 만드는 게 제 전공입니다.

양창욱 : 예예.

박정근 : 제가 KBO 야구발전위원이고요. 허구연 선생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양창욱 : 그렇죠. 위원이시고, KBO.

박정근 : 제가 또 대학야구연맹 이사도 있고요. 리틀 야구도 올해는 안 했지만 한 3, 4년 제가 직접 해 본 경험이 있고.

양창욱 : 아, 리틀 야구단이요?

박정근 : 재밌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마이너리그 진출할 프로젝트, 물론 성공하지 않았지만, 마이너리그 진출 프로젝트가 국가 프로젝트로 선정돼서 한 번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면서 미국 마이너리그 진출하는 건데 우리 선수들이 공부를 하려는 선수들이 많질 않아가지고.

양창욱 : 그렇죠.

박정근 :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리그 진출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론 몇 사람이 가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도 가능한 것인가 하고 놀랐죠. 문제는 570만원을 가진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양창욱 : 아, 반을 낼 사람들이 없었군요.

박정근 : 예예. 반을 낼 사람이 없어서 그 때 제가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국가에서 570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테스트 받아서 겨우 몇 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청취자 분들이 지금, 지금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제가 지금 누구와 얘기를 나누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박정근 : 예, 대학 교습니다.

양창욱 : 예. 일전에 고양원더스라는 독립야구단이 있었는데 지난해 이게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2의 독립야구단 '미라클'이 곧 창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단주이신 호서대 체육학과 박정근 교수님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라클 얘기를 좀 해 보죠. 창단식은 언제 하죠?

박정근 : 3월 20일 날 금요일 날 2시에 연천 베이스볼파크에서 합니다.

양창욱 : 아, 연천 베이스볼파크면 이제 미라클이 거길 운동장으로 쓰나요?

박정근 : 예. 왜냐하면은 호서대학교는 천안 아산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실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리틀야구장밖에 없어가지고.

양창욱 : 아, 운동장이 작군요.

박정근 : 운동장이 작고 물론 축구장을 쓰면 되는데 시설이 좀 부족해서, 옛날에 우수창 사장님이 강진 베이스볼파크 하시면서 잘 아는 분이 돼가지고, 혹시 연천 베이스볼파크 홈페이지에 보니까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아, 무료라라도 빌려줄 테니까 교수님 하시는 일을 자기도 너무 좋아하니까 도와드리겠다 해서 연천 베이스볼파크에서 무료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연천의 베이스볼파크는 시설이 잘 되어있나요?

박정근 : 예. 야구장이 지금 다섯 면이 있는데요. 다섯 면 중에 두 면은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고 3면은 완벽한데요. 그 중에 한 면은 천연잔디입니다.

양창욱 : 예, 천연 잔디.

박정근 : 두 면은 인조잔디고. 얼마 전에 KBO 총장님이 오셔갖고 보셨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양창욱 : 아, 너무 좋아서?

박정근 : 예. 근데 문제는 이 거리가 너무 멀다, 첫 번째.

양창욱 : 어디에서부터요? 호서대학교에서요?

박정근 : 아니, 서울에서.

양창욱 : 서울에서. 예예. 연천이면 멀죠.

박정근 : 예.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근데 너무 멀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숙소 생활 하면 되니까, 봤더니 숙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사회인 야구팀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월, 화, 수, 목, 금은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물론 뭐 선수들 와서 훈련도 하고 하지만은 대부분 월, 화, 수, 목, 금이 비어있어 가지고 이걸 무료로 좀 빌려주시면은 활성화에 전력투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건 무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숙식 제공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좀 싸게 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만도 구장의 우수창 사장님하고, 실제 사장님도 계세요. 실제 사장님도 도와주셔서 일단 두세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거리는 좀 멀어도 연천 베이스볼파크에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이게 고양원더스가 이제 해체가 되고 미라클이 독립야구단으로 창단이 됐으면 아무리 독립야구단이라 하더라도 돈이 좀 많이 들 텐데, 이거를 지금 교수님이 팀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받았습니까? 교수님 개인 사비로 하셨어요?

박정근 : 사실은 독립야구단으로 부르기에 아직은 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야구아카데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창욱 : 아, 그렇군요. 사실 고양 원더스는 허민 구단주인가요? 그 분이 돈을 아주 전폭

적으로 지원해주셨잖아요.

박정근 : 아휴, 그 분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큰일 나요. 그 분은 돈 많은 구단주님이시고.

양창욱 : 아, 교수님은 돈이 없으시군요?

박정근 : 예.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수인데.

양창욱 : 아, 어떻게 하세요, 그럼?

박정근 : 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넥센 히어로즈 개념으로 제가 그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창욱 : 그니까 목표가 넥센 히어로즈처럼 그렇게 되는 거군요?

박정근 : 예. 사실 넥센 히어로즈 창단할 때 제가 좀 일부분 간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노준 교수가 거기에 단장으로 갔는데 박노준 선생이 제 지도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넥센 구단 탄생에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그때.

양창욱 : 음, 청취자 분들한테 넥센 히어로즈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알지만요.

박정근 : 예. 넥센 히어로즈의 대표는 넥센 타이어가 아니고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주식회사가, 서울히어로즈가 대표예요.

양창욱 : 넥센 타이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박정근 : 그렇죠. 넥센타이어는, 예를 들어 100억을 주면 메인 스폰이 되는 거죠. 넥센타이어는. 구단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미라클 팀에다가 넥센타이어가 돈을 2억을 주면은, 그렇게 메인 스폰을 하면은 넥센 미라클이 되는 겁니다.

양창욱 : 예. 그렇게 돈을 투자받고 제휴명을 써드리는거군요?

박정근 : 돈을 내신 그 기간 동안은 구단주로 명칭을 주는 겁니다. 물론 총괄은 제가

하고요.

양창욱 : 예, 그렇군요.

박정근 : 아직 메인 스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임시로 미라클로 일단은 스타트를 하고요.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방송을 듣고 정말 취지가 좋다고 메인 스폰이 나타나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구단주 이름을 그 분한테 드리는 걸로. 저는 실제 일만 총괄만 하고요.

양창욱 : 총괄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여지고.

박정근 :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원더스도 사실 실패를 했고. 모든 건 돈이 들어가니까 실패를 하거든요. 기업들도 십 몇 억씩 내서 팀을 창단하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서대학교 야구학과 의 모든 교수님들, 외래 강사님들을 여기에 다 전부 투입을 시켜요. 강사료는 학교에서 주고 여기에서 전부 다 티칭하시는 분들, 우리 교수님들이예요. 대학원생들, 모두들 여기에서 학점을 얻고 강사직을 하고 여기에 다 지금 다 투입을 하는 겁니다.

양창욱 : 예예. 그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호서대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코치진들이란 말씀이시고. 감독님은요? 선수와 감독은 지금 다 구성이 됐나요?

박정근 : 예. 구성이 됐습니다. 감독님은 옛날에 MBC청룡에 있었던 김인식 감독님.

양창욱 : 아, 옛날에 MBC청룡 2루수.

박정근 : 그렇죠. 죄송한데 별명이 베틀콩.

양창욱 : 베틀콩, 베틀콩. 예예. 그 분 잘알죠.

박정근 : 오늘 제가 그 분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게, 제가 급여를 많이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 분이 너무 취지가 좋다고 저는 박정근 교수님하고 끝까지 갑니다.

양창욱 : 예예. 선뜻 응해주셨군요. 급여를 많이 이렇게 드리지도 못하는데.

박정근 : 예예.

양창욱 : 예. 선수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박정근 : 지금 25명이 등록을 다 했고요. 처음에 한 열 몇 분 밖에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3월 20일까지 보면은 한 3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이 분들한테도 급여를 지급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정근 : 아뇨, 아뇨. 급여를 지불 안 합니다.

양창욱 : 아, 급여를 지불 안 해요?

박정근 : 지금은 급여를 지불 안 하지만, 앞으로 제가 5년 있으면 대학교수 은퇴합니다. 퇴직을 하면은 그 때까지 제가 4개 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양창욱 : 아, 예.

박정근 : 왜냐하면은 이게 잘 되면은, 올해 1기만 잘 되면은요.

양창욱 : 예.

박정근 : 내년엔 2기, 3기는 30명이 아니고 한 100명 정도도 가능하거든요.

양창욱 : 예.

박정근 : 100명이 되면 두 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창욱 : 아.

박정근 : 예. 두 팀을 만들면서 이 선수들 프로로 보내고 일본 독립 구단으로 진출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사회인 야구팀이 19,000개가 있는데 19,000개 중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좋은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예.

박정근 : 그 선수로 이루어진 팀들을 독립리그로 제가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럼 그 팀들 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희들은 선수를 육성시켜서 거기다가 공급해 주

면은, 그렇게 해서 이게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선수들한테 돈도 안 받고 돈을 주는 구조로 4년, 5년 안에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양창욱 :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 팀, 미라클 팀은 누구와 경기를 합니까, 이제?

박정근 : 월요일 날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팀하고.

양창욱 : 고등학교 팀들하고.

박정근 : 예. 저희들이 월, 화, 수, 목, 금은 연천에서 하루종일 야구를 하고. 저녁에는 인성 교육을 우리 교수님들이 와서 전부 다 무료로 특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각자 집으로 갑니다.

양창욱 : 예예. 그러면 교수님, 이 선수들은 지금 목표가 뭐예요? 프로에 진출하는 거예요?

박정근 : 다 프롭니다. 다 프롭니다.

양창욱 : 예. 여기서 실력을 쌓아서 이제 프로로 가는 거고.

박정근 : 예예.

양창욱 : 그럼 고등학교 팀들하고만 주로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박정근 : 아뇨 아뇨. 일단 아직 몸이 안 풀린 상태기 때문에.

양창욱 : 아, 몸이 안 풀려서 고등학교하고 하고.

박정근 : 3월 달에는 좀 체력을 보강을 하고 4월달부터는 집에 갔다가 월요일 날에는 들어오면서 마해영 선생이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옛날 삼성의 마해영 선수.

박정근 : 예예. 다 집합을 해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시합은 무조건 고등학교 팀하고 하고 연천을 들어옵니다, 월요일 날은 무조건. 그리고 화, 수, 목에, 금요일 날은 무조건 연

천에서 사람을 불러서, 팀을 불러서 연천에서 합니다.

양창욱 : 예. 이 분들이 움직이고 드시고 하는 건 다 자기 부담이네요? 일단은? 아직까지.

박정근 : 예예. 자기 부담인데 이런 것들도 경기도 야구협회의 전무이사, 이상우 전무이사님이 내년부터 다 좀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근데 고양원더스가 허민 구단주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왜 해체가 됐죠, 근데? 지난 해?

박정근 : 아, 그건 아시잖아요. 그게 뭐 100억원 이상 들었지 않습니까?

양창욱 : 그러니깐요.

박정근 :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첫 스타트 할 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KBO 팀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KBO의 실제 단장이나 구단주, 사장님들이 법적으로 독립야구단 시스템이지, 우리 KBO 멤버로 들어오기에는...

양창욱 : KBO 멤버라는 그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프로야구단이 되는 건가요?

박정근 : 네, 우리가 말하는 프로야구를 말하는 겁니다.

양창욱 : 프로야구단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깐 고양원더스는 프로야구단 전초 단계로 있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100억까지 투자가 됐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군요.

박정근 : 그럼요. 10개 구단에서 일단 반대를 했고, 허민 구단주는 좀 섭섭했고.

양창욱 : 실력이 안 돼서 그랬나요? 왜 그랬죠?

박정근 : 아, 실력은 아닌데 구조적인 문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불편한데. 구조적인 문제인데 뭐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허민 구단주도 그냥 그만두게 되었는데.

야구계에서 보면 허민 구단주 같은 분에게는 사실 박수를 보내야 되죠, 개인적인 입장인데. 가슴이 아픡니다.

양창욱 : 예. 제가 이걸 왜 자꾸 여쭙보냐 하면 미라클은, 그런 어떤 고양원더스의 문제점과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그런 복안들이 있으신가요?

박정근 : 예예. 저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초반에는. 한 번 뛰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대학 진학을 못하거나 프로를 못 가면은 야구할 데가 없습니다.

양창욱 : 아, 예.

박정근 :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들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대학 나온 선수들, 800명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요. 나쁘게 표현해서 이 친구들이 잘못하면은 일자리 창출도 안 되갓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건데, 이 800명을 누가 구제를 해 줄 겁니까?

양창욱 :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야구를 해도 프로로, 프로야구로 가지 못하면은 선수들이 다 뜬다는 말씀이지요?

박정근 : 다 뜬니다.

양창욱 : 예예. 그래서 이런 미라클 같은 독립야구단, 독립리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박정근 : 제일 중요한 건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야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깔아주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어떻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던가요?

박정근 : 왜냐면 일단은 독립야구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디.

양창욱 : 어떤 거요?

박정근 : 다 실패들을 했기 때문에.

양창욱 : 그거 갖고 되겠느냐?

박정근 : 예. 허민도 실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걸 성공하겠느냐,

양창욱 : 아, 그럼 교수님은 성공하실 거라고 보세요?

박정근 : 저도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매일매일 하여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창욱 :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박정근 : 이걸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모든 종교계, 그 다음에 학계, 기업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3월, 이제 창단하고 나서 이걸 제가 이제 책으로 씁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양창욱 : 필요? 이 창단 과정을요?

박정근 : 예. 창단 과정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동안 있었던 것들을, 물론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해줄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걸 칼럼으로 계속 글을 올릴 겁니다. 책을 만들어서 물론,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에 재정적으로, 물론 품격적으로 지원해 준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책을 만들 겁니다.

양창욱 : 예예. 구단주님,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줄여주셔야겠습니다.

박정근 : 예, 알겠습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제2의 독립야구단, 미라클이 잘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박정근 : 예, 감사합니다.

양창욱 : 고맙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호서대 체육학과 박정근 교수님, 제2의 독립야구단, 미라클의 구단주입니다. 오늘 함께 했습니다.

스포츠조선 2015.06.18 연천 미라클 모델로 본 독립구단, 저비용 팀 창단 가능하다

아직은 척박한 풍토에서 독립야구단은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국내 유일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천군이 메인 스폰서를 맡은 연천 미라클은 선수가 숙식비 등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LG 트윈스, 고양 다이노스, 한화 이글스 등 프로 2~3군 팀, 고려대 등 아마추어 팀과 연습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프로 출신 선수들이 합류하고 팀이 완성되면서 전력도 탄탄해졌다. 프로팀 스카우트들도 선수들을 주목하고 있다.

연천 미라클은 실패를 맛본 선수, 두번째 야구인생을 펼쳐보고자하는 이들에게 희망이다. 어려움은 있지만 수십억원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독립구단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새로운 모델을 통해 보여줬다.

연천 미라클의 선수 정원은 30명이다. 출범을 앞두고 선수 수급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탈퇴 선수도 나왔지만 지원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독립구단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야구선수 출신이라고 해도 무조건 받지 않는다. 우선 홈구장인 연천베이스볼파크 내 선수단 숙소의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다. 또 팀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량 검증이 필요하다. 단체 생활에 따른 규율 또한 엄격하다. 박정근 연천 미라클 구단주(호서대 교수)는 팀 출범 전부터 선수의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다.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LG 3군의 연습경기 모습. 사진제공=연천 미라클

이제 제2, 제3의 독립구단 창단, 나아가 독립리그 출범을 준비해도 될 것 같다. 우수창 연천 미라클 단장은 "지원자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야구에 굶주려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야구 저변 확대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팀 추가 창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고교,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 진출에 실패한 선수,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가 계속해서 야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우선 연천 미라클은 육성에 무게를 둔 아카데미 개념의 새로운 팀 창단을 구상하고 있다. 제2의 독립구단 창단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박정근 구단주는 "지방자치단체나 야구에 관심이 있는 기업, 뜻있는 후원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독립구단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구단주 직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독립구단, 독립리그 활성화는 프로야구 10구단 시대의 야구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김인식 연천 미라클 감독은 "일부 지자체가 팀 창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팀이 더 생겨야 독립구단이 건강해 진다"고 했다.

몇 년 전 KT와 부영이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을 놓고 경쟁했을 때 경기도가 도 내 독립리그 창설을 공약했다. 그런데 kt 위즈가 3년 전 창단해 올해 1군 리그에 합류했는데도 독립리그 얘기가 없다.

양해영 KBO(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한번도 독립리그 문제로 KBO에 문의를 하지 않았다. 고비용 구조였던 고양 원더스를 참조하다보니 크게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많은 야구인들이 연천 미라클 모델을 주시하고 있다. 이제 kt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경기도에 공약 실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연천 미라클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3~5억원 정도의 후원금이 있으면 팀 운영이 가능하다.

우리와 여러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일본의 경우 독립리그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방출된 후지카와 규지가 친정팀 한신 타이거즈 대신 독립리그 시코쿠리그의 고향팀 고치 파이팅독스에 입단해 화제가 됐다.

또 또다른 독립리그 BC리그의 니가타에서 뛰던 호주 출신 왼손 타자 미치 데닝(27)은 야쿠르트 스왈로즈로 이적해 만루홈런을 터트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타격부진으로 고심하고 있는 오승환의 소속팀 한신은 16일 BC리그 이시카와 밀리언스타즈의 벨슨 페레스를 영입했다.



김인식 연천 미라클 감독이 선수단 미팅에서 주문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천 미라클

스포츠조선 2015.12.09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 창단 첫 해 프로선수 3명 배출

'기적'의 실현, 저비용 독립야구단 운영 가능성 입증

국내에서 유일한 독립야구단인 '연천 미라클 야구단'이 프로선수 3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출범 첫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연천 미라클 야구단 소속이던 이강혁(내야수, 24세) 선수가 최근 NC 다이노스와 정식 계약을 통해 입단했고, 지난 8월 한화이글스에서 입단테스트를 받았던 김원석(외야수, 26세) 선수도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미라클 야구단에 몸 담았던 이케빈(투수, 23세, 재미교포) 선수는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했다.

올 3월 창단된 연천 미라클 야구단은 대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야구단으로, 프로야구팀이나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한 선수, 프로팀에서 방출된 선수 등이 모여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훈련과 경기를 꾸준히 이어와 주목받았다.

'야신' 김성근 감독이 이끌던 고양원더스의 경우 허민 구단주의 재력이 뒷받침돼 소속 선수들이 프로 못지 않은 대우를 받았지만 미라클 야구단은 선수들이 숙식비조로 월회비 70만 원을 내며 프로무대 진출을 위해 땀을 흘렸다.

올 한해 프로야구단 2,3군이나 대학팀과 19경기를 치른 미라클 야구단의 전적은 7승 2무 12패.

상대팀 관계자들로부터 프로팀 2.5군 정도의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미라클 야구단을 거친 34명의 선수들의 현재 진로를 보면 프로 진출 3명, 미라클 구단 잔류 희망 12명, 운동 중단 15명, 야구 계열로 전환(코치, 심판, 대학원진학) 4명이다.



왼쪽부터 이강혁, 김원석, 이케빈 선수 (사진 = 연천미라클야구단 제공)

결국 야구를 그만둔 선수가 절반 가량 되지만 선수들의 프로무대 진출을 목표로 설립된 구단인 만큼 프로팀 입단자를 배출해낸 성과는 의미가 있다.

한국 최초의 독립야구단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고양 원더스의 경우 구단주의 재력에 힘입어 한 해 예산 30억 원 가량을 썼지만 연천 미라클 야구단은 3억 3천만 원 가량을 썼다.

연천군(군수 김규선)이 2억 원을 후원했고, 선수들이 낸 월회비, 뜻있는 야구인들의 후원금 등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했다.



사진 = 연천미라클야구단 제공

"야구를 해왔으나 더 이상 야구를 할 곳이 없어진 선수들에게 판을 깔아주자"는 생각으로 연천미라클야구단을 창단했다는 박정근 구단주(호서대 교수)는 "5억 원 정도면 월 회비를 받지 않고 독립야구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 구단주는 "연천군을 비롯해 내년에도 미라클 야구단을 도와줄 스폰서를 찾고 있는 중"이라며 독립야구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천 미라클 외에 추가 창단의 가능성도 보인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놔 주목된다.

연천미라클야구단에 이어 다른 독립야구단들이 등장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독립야구 리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구계에선 관심과 기대가 크다.

스포츠Q 2018.11.05 한국코칭능력개발원 출범 20주년 스포츠코칭 학술대회, 9일 제주

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이 출범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박정근 한국코칭능력개발원 원장은 오는 9일 제주 제주시 로베로호텔 크리스탈룸에서 '스포츠 코칭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KCDC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더 나은 코치(better coach)를 통한 더 나은 스포츠(better sport)'를 목표로 삼은 이번 행사는 주제발표, 현장중심의 실제 연구 6편, 스포츠산업관련 연구 6편, 스포츠코칭 5편, 스포츠심리와 일반 5편, 포스터 12편 등 논문 35편을 다루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송석연 제주대 총장,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양명환 제주대 교수, 김기진 대구 경북체육학회 회장, 이강현 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장, 연기영 한국스포츠법학회 창립회장, 임호균 송신영 등 전 프로야구 선수, 박영수 아시아축구연맹(AFC) 강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KCDC는 코치 세계단체 국제코칭탁월성협의회(ICCE, International Council for Coaching Excellence)에 가입된 국내 대표 코칭 학술기관이다.

지난 20년간 이론 업적으로는 △ 발간사업(등재지 논문, 국제학술지, 잡지, 서적 등) △ 학술세미나(국제학술대회) △ 대학원설립(축구학과, 야구학과) △ 민간자격연수(16개 국가 등록 민간자격증) △ 연수(직무연수, 해외연수) △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 및 지부지회 설립(11개 지역) △ 우수코치시상식 △ 지도자강습회 △ 국제교류(미시간주립대, 스탠포드대, 캐나다코칭협회, ICCE) △ 국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학술지지원사업선정, 인턴지원사업선정, 축구국가대표 제2트레이닝센터 용역선정) △ 산학협동제휴 △ 가족기업 ISG 공동사업(각종 스포츠교실 운영, 국비지원 해외취업연수선정, 중기청 창업프로그램선정, 야구박람회주관, 유명선수 매니지먼트 계약, 독립야구단창단) 등이 있다.

국민일보 2018.11.08 한국코칭개발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제주서 개최

현장중심의 실제 연구·스포츠산업분야 등 35편 논문 발표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과 제주코칭능력개발센터가 9~10일 제주도 로베로호텔에서 'KCDC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스포츠 코칭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대 체육학과, 해양스포츠센터, 박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이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서는 한국코칭능력개발원 박정근 원장이 '스포츠 코칭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현장중심의 실제 연구 6편, 스포츠산업분야 6편, 스포츠코칭 5편, 스포츠심리와 일반 5편, 12편의 포스터 발표 등 35편의 논문도 발표된다.

KCDC는 코치세계단체인 국제코칭탁월성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aching Excellence: ICCE)에 가입된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 코칭 학술기관이다.

지난 20년간 등재지 논문·국제학술지·잡지·서적 등 발간사업과 국제학술대회 등 학술세미나, 대학원설립(축구학과·야구학과), 민간자격연수(16개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연수(직무연수·해외연수),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 및 지부·지회 설립(11개 지역) 활동을 전개했다.

또 우수코치시상식, 지도자강습회, 국제교류(미시간주립대·스탠포드대·캐나다코칭협회·ICCE), 국가·공공기관 지원사업(학술지지원사업선정, 인턴지원사업선정, 축구국가대표 제2트레이닝센터 용역선정), 가족기업 ISG 공동사업(스포츠교실 운영, 국비지원 해외취업연수선정, 중기청 창업프로그램선정, 야구박람회주관, 독립야구단창단 등) 등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지역 기관단체장 및 현직 체육전공 교수, 현직 스포츠지도자 등이 참여한다.

충남신문 2019.05.13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이 전국 최적지

박정근 호서대교수, 천안시가 산·학·연·관을 통한 축구산업 클러스터 구축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박정근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축구학과 주임교수가 천안시가 전국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시·도등 지자체가 공동 협의로 이른바 산·학·연·관을 통한 축구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의 최적지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센터) 유치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스포츠(축구)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움직이는 거대 지자체가 을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대한축구협회(협회)는 큰 행운을 잡은 셈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번 센터 유치는 각 지자체마다 사활이 걸린 문제라 선정 타당성을 설명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천안이 센터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경쟁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산학연관을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천안이 유일한 곳이라 대학교수로서 산학연관을 강조하고 싶다"며 "5월13일(월)에 이런 저런 이유들로 탈락과 선정의 아픔이 갈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은 타 지역에 비해 산학연관, 교통 접근성, 부지 확장성, 재정 자립도, 부지 제공 조건, 비용분담, 역량들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학연관을 포함하여 천안의 장점을 강조했다.

▲산학연관을 통한 축구산업 클러스터 구축

천안지역에는 11개 대학이 있다. 전공도 다양하다. 스포츠산업, 스포츠비즈니스, 축구학과 등 축구산업과 연관된 학과들이 많이 있다.

산학연관을 통한 축구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 산업육성, 인프라구축, 스포츠과학화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11개 지역 대학생들이 협회에서 현장실습이나 인턴 ship, 추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회와 대학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서 상생을 할 수 있다.

최근 각 대학 링크사업단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비 지원과 학점인정을 해주면서 기업에 현장실습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있다.

한 예시 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산학연관의 시너지 창출은 축구산업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또한 대학을 통해 스포츠의료지원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

단국대와 순천향대학병원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첨단시설 및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공동 운영할 수 있으며, 국내외 선수 체력 검증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 학부 생, 대학원 생, 교수들과 함께 축구관련 체육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훌륭한 스포츠 인프라(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자생력이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함)도 갖추고 있다.

현재 선정 가능한 지역 중 이러한 산학연관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유일하게 천안만 가능하다.

또한 천안시는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통 큰' 지원까지 약속받았다.

양승조 도지사는 센터의 최적지는 천안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비(200억), 도비(400억) 지원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도지사는 스포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한 삶의 행복은 스포츠와 함께'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특히 센터 유치는 충남의 스포츠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이미 5개년 중기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개의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지리적 이점이다.

예정부지인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일원은 경부고속도로 북 천안 IC에서 7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수도권 전철.고속도로 접근성 등 교통의 요충지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도 가깝다.

이곳은 국가대표팀 훈련 뿐만 아니라 지도자 및 심판연수, 전국대회 개최, 기자들의 현장 취재, 국내외 축구관계자 및 팬들의 방문 등을 볼 때 후보지역 중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다.

즉, 전국 어디에서도 오기 좋은 곳이다.

북천안 IC에서 7분, 입장휴게소(하이패스 IC)에서 3분, 천안버스터미널에서 25분, 천안역에서 35분, 천안아산 KTX역에서 35분 정도 소요된다.

특히 서울은 KTX, SRT로는 30분 소요거리라 출퇴근도 가능하다. 또한 우수한 문화 인프라가 보유되어 있어 뛰어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다.

축구하기에는 최적의 기후환경(3무: 안개, 태풍, 폭우)을 가지고 있다.

▲확장성(20만평부지+천안축구센터+대학+종합운동장)20만평 부지개발의 용이성 큰 장점

경사가 완만하고 암반이 분포되지 않아 공사기간 단축 및 추가 사업비가 미 발생한다.

현재 협회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10만평이지만 추후 필요한 부지를 위해 13만평을 먼저 확보했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20만평까지 가능하다.

협회도 지금 당장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천안시와 협의해서 협회가 필요한 만큼

만 사용을 하면 경비절감도 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모두 매입을 할 수 있다.

즉, 파주와는 다른 전략으로 센터를 소유할 수 있다.

천안시는 협회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도와줄 것이다.

예를 들면, 실내연습장은 천안시 소유인데 협회에서 선수훈련용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면 민간자본 보조가 가능하다.

체육진흥법 민간자본 보조가 가능해서 천안시가 협회에 돈으로 지원하면 협회에서 실내연습장을 건립할 수 있고 협회 소유물이 된다.

추후에 전체 부지 20만평보다 더 필요하게 되면 1km 이내 20만평의 여유 부지가 더 있고, 또한 천안축구센터도 같이 활용하면 된다. 5면의 축구장과 4면의 풋살장을 갖춘 천안축구센터와 연계해서 사용하면 좋다.

더군다나 11개 지역대학 축구장과 강의실 등을 활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등 축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바로 평가전이나 연습경기를 할 수 있는 큰 훈련장, 경기장이 있다는 건 좋은 장점이다. 국제경기 구장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관중석 4만석 이상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 및 역량

경쟁 시·군을 보면 인구수나 예산 규모면에 차이가 많이 난다.

실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현재 예측하고 있는 1,500억 원 이상 예산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천안처럼 안전한 재정과 역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예산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군 단위 지역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도시 지역에 센터를 유치하는게 축구발전적인 측면에 유리하다.

지금까지 해온 천안시의 역량은 다음과 같다. 천안축구센터 1,275억원.U-17, U-20 및 A매치 4회.2001년 전국체전.동남구 청사부지 복합개발 2,501억원.KTX역세권 R&D 집적지구 3,705억원.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1,485억원.천안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6,219억원.OLED 혁신공정 플랫폼 5,281억원.2018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 대통령상.4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지방자치 경쟁력 경영지원 부문 전국 1위.2018년 65건 기관표창: 대통령상 4개, 국무총리 상 2개 등.

▲이벤트 개최 경험

천안시가 가진 축구 관련 대형 이벤트 개최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천안은 그동안 FIFA 17세 이하 월드컵, FIFA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는 물론 4차례의 국가대표 경기 개최(거의 매진) 등 다양한 대형 이벤트를 개최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아산 무궁화, 서울 이랜드 홈경기 유치 등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도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프로팀 창단 및 축구학교 설립

선정되면 프로팀 창단을 공식 약속했다.

그리고 유아부터 초.중.고 및 대학, 프로구단까지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유망주 발굴을 통한 엘리트 축구인으로 성장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한다. 전국 축구 유소년을 육성하고 축구지도자와 학교 연계체계를 구축하겠다.

또한 동남아 및 전 세계 축구관련 선수 및 지도자들이 센터에 유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축구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한류를 만들겠다.

▲축구박물관 건립 및 실내 훈련장 설치

대한민국 축구역사 자료관, 축구인물 탐구관, 역대 유명선수 유니폼 등 전시 및 홍보관, 한국 축구발전 미래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사용하기 위해 실내 훈련장(축구장) 1면을 만든다.

▲100억원 축구발전기금 지원 및 상주직원 주택 지원

매년 10억원씩 10년간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협회 상주직원들을 위해서 주택 특별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러 여건을 본다면 천안시 만한 곳이 없다. 만약 선정이 되면 맞춤형 전폭 지원을(원스톱 행정서비스)할 것이다. 향후 20년 자산가치 10배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회입장에서도 좋아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천안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스포티비뉴스 2019.05.16

[스포츠타임 시선] '제2 NFC 우선협상' 천안시, "3년 내 프로구단 창단+관광특구 지정"

"한국 축구의 메카이자, 한국 축구 세계화의 중심, 국민 건강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3년 안에 프로축구단도 창단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시가 대한축구협회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 우선협상 1순위로 선정됐다. 조현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겸 부지선정위원장이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박정근 호서대 축구학과 주임 교수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추진위원회 유치기획 단장을 맡아 천안시의 유치 계획을 기획한 인물이다. 박 단장은 선정 발표 직후인 16일 오후 스포티비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축구종합센터가 자리할 입장면은 관광특구가 될 것"이라며 "추진 초기부터 약속한 프로구단 창단도 3년 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협상 대상 1순위로 선정된 천안시는 최대 60일 간 축구협회와 협의를 거친 뒤 계약하게 된다. 아직 계약 단계 전이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시가 내건 조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친 상황인 만큼 문제 없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천안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 우선협상 1순위

■ 10만평 부지에 10만평 추가 가능

■ 축구박물관 및 일반 체육 시설 건립, 3년 내 프로구단 창단도 약속

박 단장은 당장 축구종합센터로 인해 천안시와 입장면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적으로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다. "축구 A대표팀 뿐 아니라 남녀 연령별 대표팀을 포함 20여개 팀이 상시 축구종합센터를 오간다. 심판과 지도자도 많이 오가고, 초중고 유소년 대회도 열린다. 입장면을 오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를 이전의 과주NFC처럼 단지 대표팀의 훈련 시설이 아닌 축구 과학을 비롯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센터로 건립한다. 10만평 부지의 규모에 훈련 경기장 외에 다양한 축구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 박 단장은 축구종합센터가 한국 축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으로 축구 유학을 오고자 하는 동인이 될 것이라며 한국 축구의 세계화, 천안시의 세계화를 이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중심으로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다. 전세계에서 오고 싶은 축구센터가 될 것이다. 한국의 최첨단 시설에서 축구를 배우자는 축구 한류를 기대한다. 천안시에는 11개의 대학이 있고, 스포츠산업, 스포츠비즈니스, 축구학과 등 축구 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많다 축구를 통해 많은 해외 유학생을 끌어 들일 수 있다. 세계코칭연맹과 협업을 통해 한국 축구의 세계화, 천안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는 축구종합센터에 축구박물관도 건립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축구역사 자료관, 축구인물 탐구관, 역대 유명선수 유니폼 등 전시 및 홍보관, 한국 축구발전 미래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축구종합센터 부지는 10만 평이나 천안시 측은 최대 20만평까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사용하기 위해 실내 훈련장(축구장) 1면을 만들 계획이다.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한국 축구 메카' 되기 총력한 충남도와 천안시

천안시는 축구 뿐 아니라 다른 종목의 스포츠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관과 체육 시설도 만들어 천안시를 한국 스포츠의 메카이자,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박 단장은 "축구인들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에는 이미 천안축구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천안시는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통 큰' 지원까지 약속받았다. 양승조 도지사는 센터의 최적지는 천안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비(200억), 도비(400억)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스포츠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지사는 '건강한 삶의 행복은 스포츠와 함께'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충남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이미 5개년 중기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0개의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로 한국 축구의 중심 도시로 떠오른 천안시는 프로팀 창단을 공식 약속했다. 3년 내 창단을 추진한다. 2021년에는 천안 프로 팀이 K리그에 참가한다. 어떤 형태로 천안시 프로축구단이 출범할 지는 축구종합센터 계약 확정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프로 구단까지 출범하면 천안시는 축구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춘다. 천안시는 유아부터 초중고 및 대학, 프로구단까지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유망주 발굴에 이은 엘리트 축구인으로 성장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천안시는 전국 축구 유소년을 육성하고 축구 지도자와 학교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앞서 언급한대로 "동남아 및 전 세계 축구 관련 선수 및 지도자들이 센터에 유학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축구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한류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충청투데이 2019.05.19 NFC 천안유치 숨은공신 '민관실무유치팀'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의 영광에는 민·관 유치팀의 땀과 열정이 숨어 있었다.

지난해 11월 초 대한축구협회가 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구본영 천안시장은 곧바로 민관으로 짜여진 비공식 유치팀 구성을 지시했다. 박미숙 복지문화국장을 위원장으로 급조된 유치팀은 제일 먼저 핵심 조건인 후보지 물색에 들어갔다. 유치팀은 그러나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개발 압력이 높은 천안에서 10만여평이 넘는 규모의 땅을 찾아내는 일은 풀기 어려운 과제였던 것.

도시계획 사업부서에서 시유지를 포함한 4곳의 후보지들을 추천 받았으나 토지조성비가 많이 들거나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핵심 선결요건을 풀지못하자 유치준비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준비 초기 이런 난관 속에서도 유치팀은 인내와 끈기로 지역을 살살이 뒤졌고 결국 적지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민간위원이 지인으로부터 추천 받은 땅이었다. 바로 이 땅이 심사단으로부터 최상의 평가를 받은 입장면 가산리 일원 후보지다.

핵심요건이 해결되자, 유치준비 작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대축부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할 제안서 초안을 만들기위해 실무팀은 배달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샘 작업을 했다. 140여쪽에 달하는 제안서는 '넣고' '빼고' 를 수없이 반복했고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대비한 리허설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특히 유치위원장을 맡은 박미숙 국장은 최상의 제안서가 나올수 있도록 유치팀을 진두지휘한 일등공신으로 손꼽힌다. 박 국장은 입장 후보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원근거를 만들기위해 까다로운 관련법규를 직접 발굴해 제안서에 적용했다.

박승복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한 체육행정 실



천안시의 축구종합센터 부지 배치 계획도

무팀은 제안서 자료수집에서 작성, 유치팀 지원, 법률검토, 대시민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은 후방의 지원인력으로 몸을 아끼지 않은 숨은 주역들이었다. 언론에 노출된 경쟁후보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답사하는 일도 이들의 업무였다.

교수·체육전문가·체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의 활동은 행정 미치지 않은 전문분야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이었다.

박정근 호서대 교수는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센터 이전 기본계획을 직접 수행한 장본인 이면서 축구센터 이전 정보를 제일먼저 천안시에 제공했다. 변우섭 위원은 초기 준비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후보지 문제를 해결한 일등 공신이었다. 이석준 단국대 교수는 충청도와 시군 공조를 중재하고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다했다. 허점범 천안시 축구협회 회장과 이기춘 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역체육계의 뜻을 한데 모으는데 일조했다. 민간위원들은 축구협회 관계자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사비까지 털어 서울을 밥먹듯이 올라갔다. 5개월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 성공은 천안시 민·관유치팀의 숨은 노력과 열정이 투영된 값진 열매였다.

KBS생생토론 2019.05.24

[KBS뉴스 대전] 생생토론 '축구종합센터, 천안 시대 열리나'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16일, 축구종합센터 부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2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천안시'가 선정됐는데요,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이 훈련하는 모습을 천안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치열했던 축구종합센터 선정 과정을 짚어보고, 천안시가 한국 축구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패널...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시을)
박정근 / 호서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최동호 / 스포츠평론가



t-Broad 2019.05.27

[t-broad] 박정근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기획단장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박정근 대표이사님께서서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위원회의 유치기획단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유치 확정으로 박정근 대표이사님께서서는 지난 월요일(5/27) t-broad 중부 방송 촬영에 임하셨습니다.

[티브로드 장동원기자]

[앵커멘트]

올해 들어 천안의 가장 큰 이슈는 축구종합센터 유치였습니다. 희망대로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을 1순위로 선택했는데요. 천안유치단장 역할을 맡아온 박정근 호서대 축구학과 교수를 장동원 기자가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사내용]

Q. 천안 축구종합센터 1순위 확정을 축하드립니다. 유치까지 어려움과 보람 등 기억에 남는 일은?

A. 많은데, 일단 보람은 선정이 돼서 기분이 좋고요. 대한축구협회의 기본 계획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경쟁을 했더니 24군데에서 지원을 한거죠. 마침 천안이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같이 일하셨던 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천안으로 스타트를 했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선정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축구 훈련을 위한 천안만의 장점이 있다면?

A. 파주 보다는 천안이 기후 등 여러가지 조건이 좋죠. 그리고 파주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할 곳이 없습니다.

바로 축구장 앞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만 평 땅에 선수들이 나오면 산악, 거닐 곳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잘 돼있기 때문에 아마 컨디션 조절에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첨단화, 과학화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특히 과학화에 신경을 쏟아서 훈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여기에 많이 투입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경기력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천안 축구종합센터는 선수 훈련 외에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요?

A. 여기는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천안, 아산 시민만 즐기는게 아니고 1박2일 코스로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거봉포도도 사가면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국가대표선수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정말 좋은 모범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천안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의견은?

A.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천안 아산지역은 축구를 좋아하는 지역이어서 아마 프로팀을 잘 만들면 관중 동원은 마케팅 전략만 잘 퍼면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초 중 고 대학 프로의연계가 잘 돼 있어요. 프로까지 연계해서 천안 출신들을 프로로 육성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축을 볼 때도 프로팀이 있어야 하고, 관중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프로팀이 있어야 하고, 시나 도를 홍보하는데도 프로팀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것들을 위해 순기능적인 차원에서 프로팀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5. KCDC소식 회원동정

KCDC 소식 및 회원동정

스포츠객원마케터 17기 (2020년 동계 현장실습생)



스포츠객원마케터 17기 (2020년 동계 현장실습생)



◆김병철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ISG 인턴십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실무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턴생들이 하는 업무들은 단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ISG에서는 각자 자신이 자신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고 서투른 실력임에도 피드백 잘 해주셔서 제 스스로 한 단계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현 (순천향대학교 한국문화콘텐츠학과)

저는 ISG에서 스포츠객원마케터 17기로 활동하면서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낼 수 있는 뜻깊은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비록 주로 비대면으로 근무하여 다른 현장실습생분들과 자주 만날 수 없는 점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ZOOM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계속 소통할 수 있었고 덕분에 원활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짧으면 짧다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함께 해서 즐거웠고 재밌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잘 이끌어주셨던 박정근 교수님과 스포츠 객원마케터 17기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예인 (순천향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정근 교수님의 지도 아래 다른 인턴동기들과 협력하며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학생으로서 이루던 개인적인 학업의 성취와는 달리 ISG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책임감,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값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스포츠객원마케터 17기 (2020년 동계 현장실습생)

Editor ☆

◆양경준(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이제 곧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가기 전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으로 배워왔던 기업에서의 업무를 실제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잡지의 편집을 해보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사무실에 출근한 것이 아닌 재택근무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오게 될 언택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근무형태를 먼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행본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변은주(한남대학교 경영학과)

8주 현장실습이 짧다고 생각했지만 기간에 비해 실무 외에도 배운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책 편집이 처음이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의 비대면으로 현장실습이 진행되어서 걱정했지만 좋은 기업, 팀원들과 함께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zoom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택근무로 인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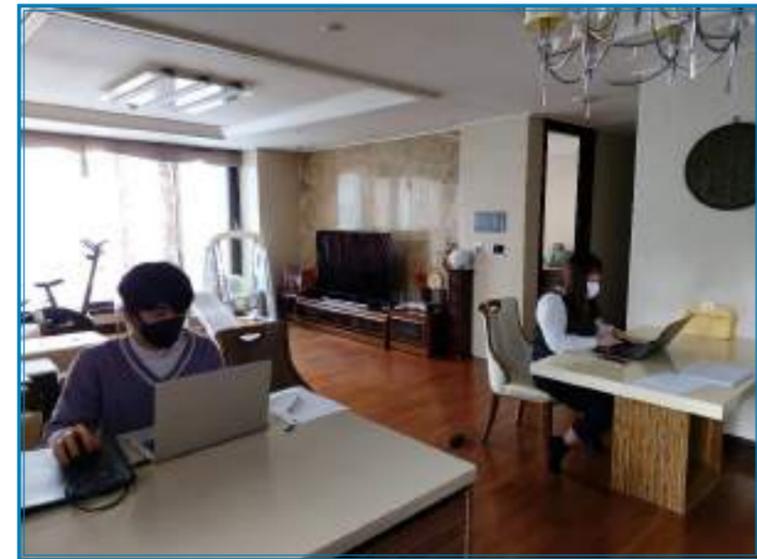
스포츠객원마케터 17기 (2020년 동계 현장실습생)

◆이상혁(순천향대학교 화학과)

비록 4주라는 짧은 기간만 활동하였으나, 현장실습이라는 형태로 실제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임소진(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저는 짧지만 굵은 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많은 소중한 경험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8주동안 대표적으로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IJCS(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라는 국제학술지를 발간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다양한 교수들에게 투고 권유 이메일을 발송하고 교수님의 한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직접 메일을 보내 코로나 이후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급 인턴사원 모집을 문의해 보았으며 ISG의 스포츠교육센터들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회를 만들고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실무경험을 통해 스포츠아카데미,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스폰서십, 스포츠매니지먼트, 스포츠에이전트, 그리고 스포츠포털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좋아했던 스포츠 산업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한국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ISG서포터즈 1기모집

-2021년 2월1일 ISG 서포터즈 1기 모집을 시작했다. 1월 중순부터 기획을 시작해 철저히 준비한 탓에 예상 밖으로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5일 모집 마감 때 73명이 지원했고, 서류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총 65명이 선정되었다. 앞으로 65명의 대학생 서포터즈들에게 20여개의 프로젝트를 개인 또는 조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각 조별 조장, 부조장을 선정해서 서포터즈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ISG+KCDC가 공동진행하고 있는 20여가지의 프로젝트 중에서 서포터즈들이 원하고 자신있어 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자신들이 직접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여 기간은 6개월-1년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능력있는 서포터즈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WIN-WIN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총괄책임자 ISG 서포터즈 팀장(김병철)의 각오

-기획을 시작할 때엔 이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할 줄 몰랐다. 하지만 준비를 잘 하였고, 스포츠 관련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큰 어필이 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학생들에게 큰 매력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앞으로 서포터즈를 담당해서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단원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하는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ISG 서포터즈 1기 모집 홍보 포스터

원장

박정근 ISG, 기부자

부원장

이강현 경남센터 회장(창원대)
 김기진 대구센터 회장(계명대)
 양명환 제주센터 회장(제주대)
 박창범 강원센터 회장(상지대)
 신정훈 광주센터 회장(송원대)
 박성률 경북센터 회장(트레이닝과학연구소)
 박정근 서울센터 회장(본원원장)
 송재호 전북센터 회장(원광대)
 김민 경기지부 회장(GX100피트니스지도자협회), 기부자
 이창렬 호서대야구학과 지회 회장(호서대)
 이두철 호서대축구학과 지회 회장(이두철FC)
 강신우 축구아카데미 지회 회장(ISG)
 유생열 영어프리토킹 지회 회장(경인교대)

감사

장도현 호서대

사무총장

최만식 가톨릭관동대

사무국

정경자 사무국장
 신용선 간사

상임이사

구민재 경남센터(마산대)
 김홍수 대구센터(계명문화대)
 윤종대 대구센터(경운대)
 김덕진 제주센터(제주대)
 윤상택 제주센터(제주국제대)
 김기윤 제주센터(제주관광대)
 전희섭 광주센터(스포랜드)
 이두석 광주센터(삼원이앤씨)
 황승현 경북센터(경북대)
 김태호 경북센터(동국대)
 조희제 경북센터(안휘성펜싱감독)
 백동기 서울센터(월드메디잡)

신혜숙 경기지부
 조성구 경기지부
 이지현 경기지부
 현유진 경기지부
 김명숙 경기지부
 신연주 경기지부
 임호균 호서대 야구학과
 김종남 호서대 야구학과
 박영수 호서대 축구학과
 유용준 호서대 축구학과
 이지원 호서대 축구학과
 오현옥 등기이사(동국대), 기부자
 이효경 등기이사(동서대)
 이명천 등기이사
 송요한 등기이사, 기부자
 윤보현 ISG(현일상사)
 강신우 ISG(뉴욕커피팩토리)
 박윤철 ISG(호서대)
 김형수 ISG(호서대)
 주종미 ISG(호서대)
 신일호 ISG(플레이앤스포츠)
 김현수 ISG(삼성)
 장덕수 ISG
 정명자 ISG
 정지혜 숙명여대, 기부자
 류호상 영남대
 유생열 경인교대
 하숙례 한세대, 기부자
 김세곤 수원대

이사

이은지 경남센터(창원대)
 박광진 경남센터(마산대)
 오윤경 경남센터(창원대)
 강우용 경남센터(창원대)
 정희철 경남센터(창원대)
 백지영 경남센터(창원대)
 이민호 경남센터(창원대)
 성호정 경남센터(창원대)
 심준일 경남센터(창원대)
 전지현 경남센터(창원대)
 홍정희 경남센터(창원대)
 이근철 경남센터(창원대)
 박기철 경남센터(창원대)
 진용 경남센터(창원대)
 제기 경남센터(창원대)
 정희준 경남센터(창원대)
 홍창배 대구센터(대구스포츠과학센터)
 문동욱 대구센터(계명대)
 안나영 대구센터(계명대)
 박주식 대구센터(계명대)
 김중수 대구센터(계명대)
 최종필 대구센터(대구대)
 정병기 대구센터(계명대)
 한용식 제주센터(제주영주교)

백혜경 제주센터(제주국제대)
 김진현 제주센터(제주국제대)
 박동훈 제주센터(제주대)
 오영택 제주센터(제주대)
 김봉수 제주센터(제주대)
 정원정 강원센터(상지대)
 김옥현 강원센터(상지대)
 정경진 강원센터(원주시 국민체육센터)
 김동혁 강원센터(평원초)
 박휴경 강원센터(연세대)
 김우경 강원센터(안양대)
 임정미 강원센터(금오공대)
 이준길 강원센터(상지대)
 김경진 강원센터(한체대)
 김수연 강원센터(연세대)
 윤성원 강원센터(연세대)
 이승연 강원센터(연세대)
 조양희 강원센터(전북대)
 김동재 광주센터(송원대)
 이상호 광주센터(송원대)
 박성하 광주센터(송원대)
 이재우 광주센터(삼원이앤씨)
 김근형 광주센터(홍국생명)
 박유찬 광주센터(동강대)
 박혁 광주센터(전남과학대)
 이동근 경북센터(동지고)
 김진균 경북센터(경북도청)
 허진한 경북센터(포항시교육지청)
 윤원일 경북센터(함부르크대)
 마재현 경북센터(with rowing club)
 양구석 경북센터(대한캠핑협회)
 송용관 경북센터(부경대)
 정민채 경북센터(경남체육회)
 문세영 서울센터(레하일)
 이현영 서울센터(생각하는 디자인)
 김하나 서울센터(알고랩스)
 민기현 서울센터
 이준서 서울센터(rising craft studio)
 문관호 서울센터(빛소리명상)
 박성용 서울센터
 양재원 서울센터(성균관대)
 박윤희 서울센터(송실대)
 정경구 서울센터(전주대)
 이금주 서울센터(강릉영동대)
 김정용 서울센터(법률사무소 성지)
 황윤성 서울센터(주대덕국제협력진흥원)
 이원재 서울센터(국민대)
 이지연 서울센터(동아대)
 박정호 서울센터(국립안동대)
 하태호 서울센터(하태호유소년축구클럽)
 박인성 서울센터(경일대)
 김소희 서울센터(동양대)
 이충영 서울센터(나사렛대)
 구병두 서울센터(전 건국대)
 이기천 서울센터(고려대)
 허옥 경기지부
 허영주 경기지부

*경남센터 공식명칭은 경남코칭능력개발센터입니다. 타 센터 공식명칭도 동일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 산하

지역코칭능력개발센터/KCDC지부/지회/기관/개인/후원/특별회원 가입신청서

김연재 경기지부
 김세민 호서대 야구학과
 김기담 호서대 야구학과
 나영도 호서대 야구학과
 박성범 호서대 야구학과
 박성윤 호서대 야구학과
 박창서 호서대 야구학과
 임재형 호서대 야구학과
 장수호 호서대 야구학과
 주민재 호서대 야구학과
 추종오 호서대 야구학과
 홍준표 호서대 야구학과
 송신영 호서대 야구학과
 조민석 호서대 야구학과
 박상진 호서대 축구학과
 박원익 호서대 축구학과
 이은상 호서대 축구학과
 김상준 호서대 축구학과
 변우섭 공주경희한방병원
 정주하 충남스포츠과학센터
 이삼준 동명대
 이상대 한국폴리텍대학
 이권원 호서대

기부하신분(1998-2008년)-100만원 이상 기부자

박정근(호서대 교수) 950만원
 강원준(스포츠아트 대표) 600만원
 송요한(등기이사) 500만원
 정지혜(숙명여대 교수) 500만원
 김종철(아이피스 사장) 400만원
 박노익(다트피쉬코리아 대표) 350만원
 김연수(이마라톤 대표) 300만원
 송도병원이사장 300만원
 하숙례(전 일본텐소농구팀 감독) 230만원
 한필수(IPEG 대표) 210만원
 문익수(고려대 교수) 130만원
 황웅구(기반테크놀러지 사장) 100만원

박재훈(스포츠 닷컴 대표) 뉴스레터 및 논문제작비 지원
 이효열(아이원 대표이사) 드림시스 컴퓨터1대, 프린터2대

기부하신분(2018년부터)

오현옥(동국대) 100만원
 김민(GX100) 100만원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기진(계명)

부위원장: 박윤희(숭실대)

부위원장: 안나영(계명대)

윤리위원회

위원장: 최종필(대구대)

부위원장: 문동욱(계명대)

위원: 곽이섭(동의대)

위원: 공성배(용인대)

위원: 윤기운(전남대)

위원: 이혁기(경남대)

위원: 정연택(영남대)

위원: 김상현(전북대)

위원: 김승재(강원대)

위원: 김재철(전북대)

위원: 김지영(상명대)

위원: 김창주(경희대)

위원: 김훈(대구대)

위원: 류민정(경남대)

위원: 류호상(영남대)

위원: 변재경(충북대)

위원: 윤기운(전남대)

위원: 정지혜(숙명대)

위원: 한남익(제주대)

위원: 한상완(광주보건대)

위원: 허정훈(중앙대)

신상정보	영문성명 English Name		
	한글성명 Korean Name	성별 Gender	
	漢子성명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택주소 Home Address		
	자택전화 Home Phone	휴대폰번호	
	직장주소 Office Address		
	직장전화 Office Phone	팩스 Fax	
	E-mail/Homepage		
	학력 및 경력 Education & Experience		
	전공분야(이론/실기) Major	이론:	실기:
가입사유			

가맹단체 회원 Group Membership	17개 지역센터(): 대학	17개 지부(): 기업, 체육단체 등
	지회(): 자격 제한없음	기관(): 기존 1기관이 가입
가맹단체 회비/Group Fee	• 센터: 100만원/년 • 지회: 100만원/년 • 지부: 100만원/년 • 기관: 30만원/년	
정회원, 기관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이사) 가입	개인회원(정회원)(): 10만원/년	기관회원(정회원)(): 30만원/년
	후원회원(8년정회원)(): 50만원	후원회원(20년정회원)(): 100만원
	후원회원(평생회원)(): 150만원	특별회원/기부금(): 150만원이상 *후원/특별회원은 세액공제혜택

예금주 / Accounter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회비 계좌번호 Account Number	KB국민은행 086637-04-004363

- 본인은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의 이념과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 Agreeing with the philosophy and goal of the KCDC, I hereby apply for the membership as checked above.

신청서 보내실 곳: 사무국장 이메일 kjc89280@naver.com(☎.02-3471-2469, 010-4879-1203)
 원장 이메일 jkpark3838@naver.com. 핸드폰 010-2306-4917. 홈페이지 www.ikcdc.net

20 년 월 일

신청인(Signature)

(인)

*대리 신청인 경우: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을 괄호안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코칭능력개발원 후원업체 신청서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Sponsorship Application Form)

후원 담당 성명 NAME	영문 English			
	한글 Korean	성별 Gender		
	한문 Chinese	주민등록번호 Date of Birth		
후원업체 Address	주소	□□□-□□□□		
		전화 Phone	팩스 Fax	
E-mail Homepage				
후원 내역 (본 사에서 후원금이나 혹은 사무기기 및 생산품 등의 후원 내역을 기록해 주십시오.)				
20 . . .				
신청인(signature) (인)				
예금주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86637-04-00436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5호의 2서식] <개정 2017. 3. 10.>

일련번호

기부금 영수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 용			기 부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 제외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①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읽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②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③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 '지정', '광고단체'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법정', '지정', '광고단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지정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광고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광고단체기부금	광고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주지사주	42
필요경비(순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	공제 제외 기타	6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 36호 / 2021년 3월 2일 발행

발행인 : 박정근 편집인 : 양경준, 변은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51길 10, 비 1층 109-179

전화 : 02)3471-2469



Symbol의 의미

기본적인 Symbol의 배열형태는 이니셜을 따서 만든 단순조합형이다. 전체적인 구성은 "곧은면"과 "둥근면"의 조화로서 즉, "한국 코칭 능력 개발원"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서로 간의 화합으로 잘 연결된 고리형식과 진취적인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했다.

Color의 주색은 밝고 건강한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는 청색으로, 보조색은 젊음으로 표현되는 오렌지색으로 대비시켰다.

측정하지 못하면 평가하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하면 지도를 하지 못 할 것임과, 높은로만 보게 됨으로만 이는 지도가 아닌 0.001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야구용의 분석 테크닉스 형성을 할 수 있는 테이스코즈입니다.

체계적인 훈련 방법과 과학적인 시스템
데이터 추출 정보를 기반으로 **테이스코즈 테이스볼 아카데미**

- 동작분석시스템 3d motion capture system
- 센서로 rapsod (착용 부구)
- 플랫폼 매트

지도단 테레코치주말재 (수업이벤트) 프래게나 주일석 2000 신원드레프트 3경기장
무수코치남영호 (두산베어스) 현재 송조경 w. 오영장 w. 김재중

테이스코즈

테이스코즈

www.teiscoz.com 문의 전화 02-18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51, 비 1층 (신원드레프트)



Jeong-Keun Park

- *International Sports Group (CEO)
-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President)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 Sport Psychology)
- Michigan State University (MA: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 Korea University (BA: Physical Education)

- Former MSU Visiting Professor
- School Sports Activation TF Team, by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and KFA
- Sport Psychology Counselor, Professional Baseball Team (Hanhwa Eagles)
- Vice President, The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 Director, Chungnam Sports Council
- Advisory Committee Member, Sport for All Association
- Editorial Board Member, KAPERD, KISS, KSSP
- Director, Korea University Baseball Federation
- Committee Member, Korea Basebal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 Advisor, General Manager of LG Twins Professional Baseball Team
- Advisor, Noah Technology
- Editorial Board Member, Korean Academic Society for Youth
- Advisor, Cheonan FC
- Ope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major in soccer) at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Hoseo University
- Advisory editorial writer, Hoseo University
- Dean, Graduate School of Coaching Development, Director of the Division of Sport & Exercise Science, and Chairperson of the Department of Sport & Exercise Science, Hoseo University
- Chair, Sports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 Exercise Science, Hoseo University
- Chairperson, Department of Soccer, Graduate School of Sport Science, Hoseo University
- Chairperson, Department of Baseball, Graduate School of Sport Science, Hoseo University

- Professor, in charge of Venture Club (Sports Clinic), Hoseo University
- Committee Member, KBO Baseball Development Committee
- Owner, Independent baseball team "Yeoncheon Miracle"
- President, National Qualifications Training Center for Youth Sport Leader at Hoseo Universit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Director, the Korea University Baseball Federation
- Columnist, "Professor Park Jeong-Keun's America Sports Tour" 40th Columns
- Sponsorship Member, the Chungnam Sports Council's Softball Teams
- Member, the Cheonan Bidding Working Committee of the Korea Football Complex
- Current, Publisher,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KCI)
- Publisher, Coach-Leader
- Publisher & Editor,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 Co-Director, International Sport Leader Program (ISLP)
- Review Board Member, Korea Research Foundation
- Lifelong Member, KAPERD, KSSP, & KSSLS
- Advisory Committee Member,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KSSP)
- Korean Sport Psychology Consultant, Level 1 (The highest Level)
- Advisory Committee Member, Korea Football Complex, Korea Football Association (KFA)
- President, Korea Coaching Development Center (KCDC)
- CEO, International Sports Group (ISG)

박정근 소개 (Jeong-Keun Park)



- 현)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KCDC) 원장
-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ISG) 대표이사
- 전)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체육전공 교수
-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야구학과, 축구학과 주임교수
- 문체부 지정 호서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원장
-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구단주
- (사)KBO 야구발전위원회 위원
-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 스포츠심리상담사
- (사)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추진단 자문위원
- (사)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 실무위원회 추진기획단장
-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부회장

- 학사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석사 | Michigan State University 체육행정학
- 박사 | Michigan State University 스포츠심리학
- 자격증)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 유소년스포츠지도자 1급, 스포츠마케팅전문가 M급, 캠퍼스인증코치 1급 등 다수의 자격증 소유

"수십 년간 다져진 스포츠 지식과 경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선수 및 코치 심리상담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Athletes and Coaches	해외 유학 상담 Study Abroad Counseling	기업체 특강 (리더십) Special Lecture (Leadership, etc.)
국제 교류 International Exchange	KCDC + ISG 관련 사업(스포츠 ODA 등) KCDC + ISG related Business (Sport ODA etc.)	민간자격연수 Private Qualifications Training

Tel. 02.3471.2469 | E-mail. jkpark3838@naver.com | 010.2306.4917
 www.ikcdc.net | www.isgkorea.com